

미산 스님(상도선원장)
연기적 사유와 공감
바람직한 가족 형성 비결
8면

창간 20년 2014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9월 16일) · 주간

제1013호 2014년 10월 9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대보적경〉
마음은 바람과 같다
그 모습을 볼 수도 잡을 수 없다.
마음은 머무는 일 없이 사라진다.

기대 수준 못 미친 조계종 1차 법인 등록

9월 30일 등록 마감… 17개 대상 법인 중 9개 등록

조계종 총무원이 중점 추진하는 법인 종단 등록이 9월 30일로 1차 마감됐다. 1차 대상은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 17곳이었다. 이중 9개 법인들이 종단 등록을 했으며, 8개 법인이 등록을 보류하거나 거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10월 1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 종단 등록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찰보유법인으로 분류된 9곳 중 6곳이 등록했다. 등록을 한 사찰보유법인은 이미 이행합의를 통해 등록 의사를 확정지은 대각회를 비롯해 안국선원, 백련불교문화재단, 성륜불교문화재단, 안양원, 한마음선원 등이다.

사찰보유법인 중 등록하지 않은 법인은 종단과 갈등 중인 선학원과 탈종을 선언한 송담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법보선원, 동주 스님이 운영하는 보리동산 등 3곳이다. 하지만 보리동산은 내부 문제를 조율하고 등록할 것을 알려와 추후 등록키로 했다.

사찰법인의 종단 등록은 저조한 편이다. 조계종 원로의원 현해 스님이 설립한 조계종 성찬회와 종단에 기증된 여진불교문화재단, (재)연화 등 3곳만 종단 등록 했다. 반면 강남불교의 한 축인 능인선원과 대구·영천 지역 대형 사찰법인인 만불회를 비롯해 세등선원, 옥련선원, 숭산국제선원 등 5곳은 등록하지 않았다. 다만 옥련선원은 추후 등록 절차를 밟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심 조계종 총무차장은 "재단의 내부 조율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직 법인관리법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 등록 결정을 못하고 있는 법인이 일부 있지만 그동안 종단과 깊게 인연 맺어온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은 대부분 등록한 것으로

한마음선원·대각회 등
사찰보유법인 6곳 등록
선학원·법보선원 미등록
사찰법인은 3곳만 등록

특성 고려치 않아 잡음 多
"협의기구 구성해 法 개정"

보고 있다"면서 "개별적으로 활동해 온 법인과 종단과의 연계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했다.

하지만 이번 등록 마감은 조계종에 손실을 끼친 부분도 적지 않다. 우선 사찰 500여 곳을 보유한 선학원과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며, 종단 최고의 선지식중 한 분인 송담 스님이 법보선원의 법인 등록을 거부하고 탈종한 것은 종단의 큰 상처로 남았다. 여기에 서울 강남 3대 사찰 중 하나로 강남불교를 이끈 능인선원과 대구·영천 지역은 물론 전국에 30만 명의 신도를 보유한 만불회의 이탈도 종단 입장에서는 뼈아픈 손실이다.

이번 법인법 등록마감을 지켜본 관련법인의 한 관계자는 "법인 등록 기간이 짧아 여론 수렴이 부족하고 법인들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비롯된 잡음들은 분명히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며 "특히 일부 법인들은 사찰 재정 투명화를 위해 재가 이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실정에 맞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각회의 사전 이면합의를 통한 등록 과정을 지켜보며 법인법의 합리성에 의구심을 품고 미등록한 법인들도 있는 상황이어서 군소 법인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명확히 해소할 처방책도 아울러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이같은 여론을 고려해 주요 등록 법인들과 관련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획국장 남전 스님은 "법인 특성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협의 기구를 만들어 누구나 법인관리법에 공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일·신성민 기자

조계종 16대종회의원 후보 전원 '이상無'

선관위 30일 후보자 자격심사… 10월 1일부터 선거운동

조계종 16대 중앙종회의원선거가 입후보자 자격심사에서 후보자 전원의 자격이 이상 없음으로 결정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는 9월 30일 제295차 회의를 열고 입후보자 자격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직할교구 등 24개 교구와 직능 대표, 비구니 대표 입후보자 자격심사를 진행했으며, 전원 이상 없음의 결정을 내렸다.

다만 23교구 관음사에서 입후보한 법우 스님에 대해서는 자격에는 이상이 없지만 호법부에 별도로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첨부 서류에 범죄 이력 10여 건이 확인됐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와 함께 2교구 용주사로 출마한 홍법 스님은 회의 직전 사퇴서를 제출했으며 비구니 대표 인수 스님은 후보 등록마감 전 자진 철회했다.

중앙종회의원 선거 후보자 자격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해 15일간의 선거 일정이 진행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오는 10월 13일 선거인명부 확정할 예정이며 같은 날 직능과 비구니 대표 선출이 이뤄진다. 또한 제16대 중앙종회의원선거 투표는 16일 오후 1시 전국 교구본사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관련 기사 2면〉



절집 국화 향기와 함께 가을이 성큼

10만 송이 국화로 가득한 팔공총림 동화사로 나들이 나온 유치원생들이 가을의 향기를 만끽하고 있다. 10월 1일부터 6일까지 동화사는 경내 일원에서 '제5회 팔공산 승시축제'를 개최한다. 올해에는 '승시국화축제'도 함께 진행된다. 국화축제는 11월 14일까지 이어진다.

글=정혜숙 기자 · 사진제공=동화사

한국불자들 持戒도 經學도 없다

〈지계〉 〈경학〉

조계종 불교사회硏, 2014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한국사회의 불자들은 자신의 종교가 가진 계율을 지키는 데 소홀하고 경전 공부에도 관심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기 신앙에 대한 만족도는 불교가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9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한국의 사회·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종교생활 및 종교경험에 대한 인식' 부문의 종교의 계율·계명 준수 정도를 묻는 질문에 34.9%가 '잘 지키고 있다'고 응답했다. 49.2%는 '그저 그렇다'로 답했다. 하지만 계율과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종교 신자 중 대부분이 개신교(49.5%)였고, 가톨릭(40.9%)과 불교(21%)가 뒤를 이었다.

평소 종교 경전을 얼마나 자주 읽냐는 질문에 22.8%가 '자주 읽는 편'이라고 응답했으며, 44.5%는 '종교집회에 참석할 때만 읽는다'고 말했다. 경전을 자주 읽는다고 응답한 종교 신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개신교(37.8%)였다. 불교 신자 응답률은 7.9%에 그쳤다.

동체 대비를 위한 봉사활동 실천 역시 불교가 가장 낮게 집계됐다. '봉사활동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불교는 54.5%에 달했다.

신앙생활의 만족도도 불교가 최하위였다. 자신의 신앙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개신교가 65.1%로 가장 높았으며, 가톨릭은 50%, 불교는 34.3%였다.

신앙 만족도 '最下' 수준
재정 투명성 여전히 낮아

신뢰도 불교 2위·가톨릭 1위
사회발전 기여도 '불교' 높아
최근 대사회 활동 호감 상승

한국불교의 재정 투명도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국민들은 불교계의 교단이나 사찰 재정의 투명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6%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절반이 넘는 54.5%가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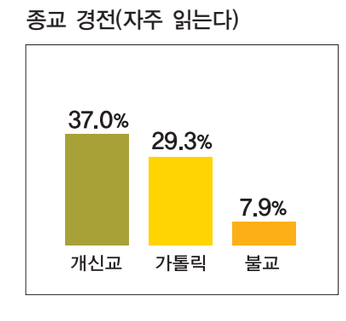
종교별 신뢰도는 가톨릭이 45.5%로 가장 높았고 불교는 41.6%로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개신교는 26%에 그쳐 신뢰도가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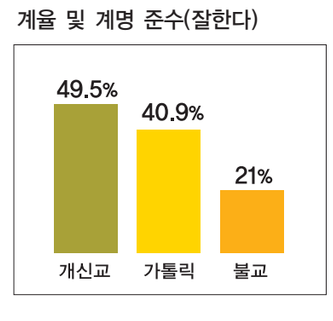
이번 조사 결과에서 고무적인 부분은 사회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종교로 국민들은 불교(30.2%)를 꼽았다는 점이다. 개신교는 20.1%, 가톨릭은 15.8%에 그쳤다. 불교의 바람직한 사회활동을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47%가 '생명존중'을, 35%가 '인권존중'을 들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 등 각종 사회 참여 운동으로 국민 여론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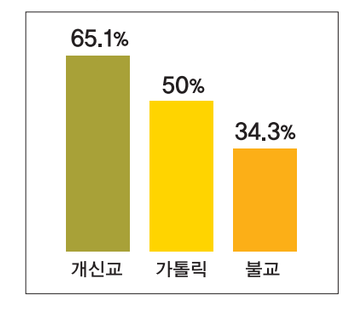
하지만 불교계의 사회문제 해결 캠페인에 대해서는 49.1%가 '지지하지만 참여하지는 않겠다'고 밝혀 불교 사회 운동의 대중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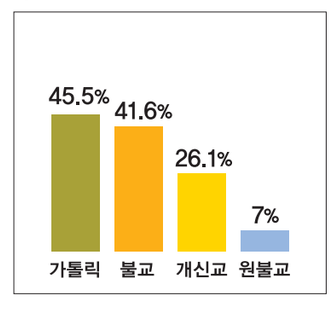
한편, 이번 조사는 만 16세 이상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대면조사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3%P이다.

신성민 기자









호국안보·국가경제발전·국민화합기원

제 1회 한국전쟁 학도병 희생자 추모음악회 (위령대재)

2014년 10월 11일 (토) 오후 1:30 ~ 5:00
부산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라온제나 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

한국전쟁 낙동강 최후의 전투에서 육탄으로 방어하여 승리를 이끈
학도병들의 위대한 희생을 잃은지 60년!
우리 부산광역시불교승가연합회에서 호국안보, 국가경제발전, 국민화합기원을 위하여
위대한 희생을 기려 추모합니다.

주최: 부산광역시불교승가연합회 주관: 대한불교종정협의회 특별후원: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국가보훈처 부산지방보훈청
후원: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KBS 부산, 부산 MBC,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 BTN 불교TV, BBS 불교부산방송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64 베스트그린빌딩 4층 401호 전화 051-557-1041~3 팩스 051-557-1045 www.bsab.or.kr 나눔과 기쁨의 동행 부산광역시불교승가연합회

“종책 선거 상실… 종도 관심 절실”

불교시민단체, 29일 종회선거로 본 종단 미래 토론회

“향응, 금권선거 등이 조계종을 수식하는 단어가 돼야하겠습니까”

조계종 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9월 29일 템플스테이정보센터에서는 ‘종회의원 선거와 종단의 미래’를 주제로 대중공사가 열렸다. 종단이 개인 · 당파간 이전투구의 장이 된지는 오래. 금품 살포, 흑색 비방의 폐단을 줄이고 청정 선거 풍토와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자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등 사부대중 20여명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였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도법 스님은 “사부공동체를 바람직하게 운영하기 위해 중앙종회가 존재하는 것인데 의원 선출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바로 잡기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부명 스님(인천 몽은사)은 후보자들이 오로지 당선만 말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토론과 공약은 물론 종책 자료집도 없다. 심지어 그들에게서 출마의 변을 들을 수도 없다”며 “후보자가 여비문제가 아니라 종책을 고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7~80년대 한국사회에 횡행하던 금권선거가 선거법이 강력하게 집행되면서 점차 사멸해갔다”며 “종단에서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물론 선거 전후 종도들의 관심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종회의원 선거가 혼탁하게 된 데 대해 증악 스님(대구 보리사)은 “문제의 뿌리는 승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계파에 있다”며 “기본적 승려 복지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금권선거와 나눠먹기식 관행이 종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윤선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총장 역시 “승려로서 지위를 누리려 하면서 패거리 문화를 만드는 것이 문제”라고 동감했다. 그는 “조계종 선거는 사회 선거에 비춰봤을 때 부끄러울 정도로 비민주적”이라며 “사부대중 감시단의 후보 검열을 통해 선거 입후보자를 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권선거 근절 방안으로 증악 스님은 종회의원 이권 감소, 출마 2선 제한, 선거법위반 신고자 보호 · 보상시스템 강화, 금품받지 않기 자정 서명운동을 제안했다. 여비를 앞세워 돈이 오가는 관행을 줄이기 위해 공탁제를 채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선거권자에게 거리 별 여비를 투명하게 나누어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바람직한 종회를 위한 의견들도 나왔다. 종회의원들의 활동을 점검하는 사부대중 평가 감시단 상설화, 계파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되는 직능종회의 정상화, 종단 문제 진단 위원회 운영 등의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나왔다.

금품살포 · 흑색비방 근절위해
종회의원 출마 재선으로 제한
부정 선거 고발 · 보상 강화도
사부대중 평가 감시단 상설화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분야별 직능종회 추천제를 두고 이판과 사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선거부정을 줄일 수 있도록 제정된 통합선거법이 허울뿐인 제도가 되지 않도록 선관위에서 법집행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운 스님(서울 대원정사)은 “부처님 가르침을 진지하게 고민하는지 의심될 정도로 (도덕적 자질이 결여된) 말도 안 되는 스님들이 당선되는 경우를 종종 봤다”며 “병든 승가공동체를 회복시키지 않고서는 선거풍토가 바람직하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만의 선거이기 이전에 이는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불교시민사회단체는 9월 19일 조계종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중공사를 진행했다.

‘재산 사유화’ 못 막으면 종단 붕괴한다

현응 스님, 1일 종단 개혁 20주년 세미나서 주장


조계종 종단개혁 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10월 1일 종단 개혁 20주년 기념 3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1994년 조계종의 종단 개혁불사가 이뤄졌다. 새로운 행정체계가 만들어졌고 그 형태로 20년의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재정비리와 지계 문제 등 현재 종단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사찰 운영이 사유화되면서 재정이 전체 승가에 회향되지 못해 종단의 여러문제가 비롯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10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종단 개혁 20주년 기념 3차 세미나에서 ‘조계종단의 미래와 과제’를 제하로 한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현응 스님은 “사찰(공찰)의 현금 재원이 주로 해당 사찰 스님들에게만 사용되고, 전체 승가에 기여하는 면이 적다”면서 “1994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한 사찰 예산회계제도가 아직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사찰에서 발생하는 현금 재원의 수입과 지출이 엄정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단이 스님들의 기본적인 의무 교육 경비와 교화활동비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복리후생과 노후복지, 의료대책 등이 취약하고 비판하며 “이 같은 원인들로 인해 종단의 스님들이 수행과 교화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종단에 금지하고 있는 개인재산 축적을 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현응 스님은 “이런 문제들은 종단이 앞장서 조정해 해결하지 못한다면 단일종단, 단일승가, 화합승가의 존속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이제 종단은 ‘우리에게 종단이 뭘 해주고 있나’라는 스님들의 질문에 부응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현응 스님은 종단이 10년 이내 추진될 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스님들의 복리 지원과 전법 교화, 수행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들 복리후생 불안정 이유로
사유재산 축적… 악순환 이어져
연구 시설 · 연금 등 대책 필요
재가자 종단 운영 참여 확대해야

스님은 추진 과제로 △중덕급 이상 모든 스님에게 소규모 연구숙사 제공 △중덕 이상 스님들에게 생활, 활동 등 연구교화비 매달 지급 △모든 종단 스님들에 대한 의료지원 △종단 스님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연수경비, 승가고시비 등은 종단 부담 △대도시 대학원에서 불교교화에 필요한 석 · 박사 과정을 밟는 스님들을 위한 별도의 연구숙사 마련 △특별분담금 사찰 주지와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소임자에게 ‘종무원 연금’ 지급제도 도입 △중앙종단의 행정체계 전면 개편 △중앙종무기관 부서와 직제에 ‘승가수행교화 지원업무부서’ 설치 등을 제안했다.

현응 스님은 “지금 종단의 현실은 ‘무소유공동체’냐, ‘사유화각자도생’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결단의 분기점에 서 있다”면서 “손을 놓고 있으면 5년 이내에도 종단이 붕괴될 수 있다. 종단의 스님들이 합의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늦어도 10년 이내에 존경받는 승가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는 ‘현대사회의 메가트랜드와 미래를 대비하는 조계종의 과제’란 제목의 토론문을 통해 “현응 스님의 주장은 한국불교의 부당한 관행을 청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안이지만 사찰에서 발생하는 재원의 수입과 지출이 엄정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등 종단의 행정능력, 중앙과 본말사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제안이 과연 추진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윤 이사는 “한국불교는 승가와 종단을 하나의 동일체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종파불교의 산물”이라며 “대중적 생활불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한 종단개혁을 위해서는 재가의 종단참여를 과감히 넓히고 전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면서 “재가불자들이 종단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때 개혁종단이 바라는 종단의 자주화, 불교의 대중화, 종단 권력의 안정적 제도화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계종 종단개혁 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법등)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장 일문스님이 ‘종단과 사찰의 재정과 운영에 대한 대안’을 류지호 월간 불광 주간이 ‘바람직한 종단의 인사와 선거, 제도에 대하여’를 박재현 제4교구본사 월정사 종무실장이 ‘교구제의 변화 및 발전 방안에 대하여’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신성민 기자

구글 엔지니어에게 듣는 ‘명상 트랜드’

조계종 포교원, 11~15일 차드 맹 탄 초청 행사 개최

구글에 명상 전파한 명상수행자
차드 맹 탄과 韓 수행자들 만남
명상 대중화 · 창의적 리더십 모색

구글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IT 기업이다. 최첨단 기술의 집약된 구글에서 명상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차드 맹 탄(Chade Meng Tan, 사진)이 주인공이다.

그는 구글 초창기 멤버로 명상의 우수성을 안 후 마음챙김 명상에 기반한 새로운 정서지능 강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성공적 엔지니어에서 세계적 명상수행가로 변화한 차드 맹 탄이 한국 불교계의 초청으로 방한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스님)은 오는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구글의 명상가 차드 맹 탄(Chade Meng Tan)을 초청해 명상을 주제로 한 템플스테이와 포럼 등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국제적 명상 트랜드의 흐름을 읽고 불교명상의 대중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각계 지도자와 명상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번 초청행사는 템플스테이, 세미나, 명상포럼으로 나눠 진행된다. 템플스테이는 10월 11일~12일 1박 2일 동안 육지장사에서 차드 맹 탄의 명상기법과 한국 전통선 체험을 진행한다.

10월 1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명상 간담회는 구글의 사례를 통한 임직원 명상 프로그램의 내용과 세계적인 명상 트랜드에 대한 특강이 이뤄진다.



이어 오후 5시 30분부터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진행되는 ‘창의적 리더십과 명상’ 초청 특강에서는 심성개발 및 리더쉽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명상 효과를 모색한다.

조계종 포교원은 “명상은 이제 일상의 영역으로 내려와 사람들의 창의력과 통찰력을 강화시키는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명상이 기업 문화의 혁신에도 기여하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는 불교 명상의 대중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보우국사 기리는 문화의 향연 열린다

4회 태고문화축제 10월 13~14일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도산)은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고양시, 경기문화재단 등의 후원으로 10월 13~14일 양일간 제4회 태고문화축제와 다례법회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화정역 광장 특설법회장과 경기도 고양시 북한산 태고사에서 각각 봉행한다.

10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화정역 광장에서 봉행 되는 태고문화축제는 기념식과 영산재 시연, 찬불가 합창 등과 함께 염주 만들기, 붓글씨 가훈 써주기, 나비춤 바라춤 모습으로 사진찍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열린다.

한편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북한산 태고사 경내 태고보우 국사 부도탑 앞에 서 탄신 제 713주년 다례법회가 봉행된다. (02)739-3450~4 김주일 기자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 (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세계 종교인 모여 평화 기원한다

조계종, 내년 10월 '세계평화 기원대회' 추진

35차 본사주지協 회의서 보고
내년 10월 8~11일 대회 개최
세계 종교인·사회적 약자 초청
무차선대회·전통문화 행사 진행

올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에 이어 내년에는 세계 각국의 불교 지도자와 이웃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대규모 종교 행사가 불교계의 주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내년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 광화문 일원에서 '세계평화와 국민통합을 위한 기원대회'를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6일 동화사에서 열린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제35차 회의에서 기원대회 일정과 계획안이 처음 보고되며 알려졌다.

'참나를 찾아, 세계평화와 국민통합에 기여하자'는 주제로 진행되는 대회는 △세계무차선대법회(세계고승수계식) △평화기원대법회 △사회적 약자 초청 전통문화행사 △전통문화 순례 등의 행사로 구성될 예정이다.

평화기원법회에는 세계종교평화회의 평화선언과 평화의 등 점등식, 평화의 종 타종 등의 세부행사를 계획하고, 사회적 약자 초청 전통문화행사에는 다문화가족과 고려인, 사회소외계층 등을 초청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광화문에서 열릴 예정인 기원대회는 세계 고승들이 불자들에게 수계를 하는 의식을 봉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대교 이슬람 가톨릭 등 세계종교대표들이 공동평화선언도 발표될 예정이다.

기원대회에 참석할 종교지도자로는 15개국의 불교지도자와 세계 5대 종교계 대표 10여명, 국내 6대종교대표 등 총 300여명이며, 기원대회 기간 동안 50~100만 명의 대중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원대회는 종정 진제 스님과 前 종정 법전 스님을 증명으로 원로회의 의장 밀운 스님이 법주를 맡고 원로의원과 총림 방장, 조실 및 대종사 스님들이 고문으로, 총무원장을 대회장으로 하는 기원대회 봉행위원회를 구성해 추진된다. 현재 총무원은 관련 사무국에 채용을 마쳤으며 조만간 기구를 발족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원대회에 대해 총무원은 "종교간 화합을 통한 세계평화와 국민 통합 기여하고 한국불교 역량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선불교 문화와 한국불교 이미지 선양하고 한국 우호인사 확보 등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35차 회의에서 세계평화와 국민통합을 위한 기원대회 개최를 환영하면서 △세계무차선대회 및 세계고승수계법회에 신도 참여 적극 지원 및 진행 동참 △세계종교지도자 사찰 방문 협조 및 한국불교 우수성 세계 전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만장일치 결의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중앙신도회 '희망드림 대장정' 확산

제5교구신도회 간담회… 신도회 활성화 논의

조계종단의 신도회 조직을 재정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희망드림 대장정' 사업이 지역별로 확산되고 있다.

조계종 제5교구신도회(회장 최윤철)는 지난 10월 1일 보은 법주사에서 제5교구 신도회 활성화를 위한 교구신도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신도국장 덕산 스님의 격려사와 법주사 포교국장 도암 스님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설립된 5교구신도회 현안을 공유하고 교구신도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덕산 스님은 "종단 신도조직의 골간인 교구신도회가 사찰신도회와 종단의 중앙신도회를 연결하는 허리 역할을 해줘야 한다. 한반도 중부 지역인 충청권은 지역적으로도 신행활동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교구신도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도암 스님도 "신도회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5교구신도회가 수말사 사찰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5교구신도회 임원들은 교구신도회 활동의 한계를 이야기하며 앞으로 종단과 논의해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직할교구신도회와 2교구신도회 관계자들은 서로의 활동 현황을 5교구신도회와 공유하며 종단과의 소통에 내실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5교구신도회는 이어 10월 7일 청주 중앙공원에서 500여명의 어르신들께 점심을 대접하는 '부처님의 자비로 적십자와 함께하는 사랑의 점심나누기·이미용봉사' 행사를 진행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신도회의 희망드림 대장정은 10월8일 제8교구 직지사, 10월12일 제6교구 마곡사로 이어져 미결성 교구신도회의 원인을 파악하고 교구신도회 창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배현진 기자


조계종 제5교구 신도회는 10월 1일 법주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교구신도회 활성방안을 논의했다.

불교문화상품 공모 지금 도전해보세요

문화사업단, 12월 8~13일 접수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스님)은 7회 불교문화상품 공모전을 개최하고 오는 12월8일부터 1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부문과 일반인 및 디자인 전문가, 디자인 회사 등 일반(전문가)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일반부문은 불교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상품, 기념품으로 판매가 30만원 미만의 중고가 상품, 학생부문은 템플스테이, 사찰음식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상품, 기념품으로, 판매가 5만원 미만의 중저가 상품을 개발하면 된다.

일반 대상은 상금 1000만원, 학생 대상은 500만원이 지급되며 우수상 2명에게는 각 200만원, 장려상 4명에게는 각 100만원, 특선 6명에게는 각 50만원 상금이 수여된다.

이와 함께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200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200만원, 한국디자인기업협회장상 100만원 등 특별상도 마련돼 있다.

참가신청서 및 작품설명서, 템플스테이 및 사찰음식 로고, 사업단이 개발한 단청패턴 등은 불교문화상품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www.buddhistdesig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과는 오는 12월29일로 공모전 홈페이지나 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상식은 2015년 1월14일이며 수상작 전시는 1월12일부터 2월28일까지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사명호국광장에 쇠말뚝·페인트 낙서

부산불교연합회 발견해
의도적 모욕행위로 보여

10월 1일 말뚝 제거 등
호국광장 환경 정비 나서



사명호국공원 곳곳에 낙서된 십자가 모양의 붉은 페인트 자국(사진 왼쪽)과 쇠말뚝(사진 오른쪽). 누군가 의도적으로 훼손했다.

임진왜란 호국열사인 승려 사명대사를 기리는 부산 초읍 사명호국광장에 쇠말뚝과 붉은 페인트 자국이 곳곳에서 발견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수불)와 부산시설공단(이사장 박호국)은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박은 것 같은 말뚝과 광장 곳곳에 낙서되어 있는 붉은 페인트 자국을 9월 30일에 상당수 발견했다고 전했다.

부산 사명호국광장은 1820년 부산진 첨사 임형준이 사명대사 부산진성 축조에 대한 공을 기려 사명대사비를 설치하고 이를 일제강점기에 부산 좌천동의 석단 정공단으로 옮겨진 것을 부산불교계가 1981년 10월 어린이대공원에 사명대사비를 새로이 단장해 기틀을 마련했다. 이후 부산불교계는 추모재를 매년 봉행하고 2010년에는 사명대사비 중심으로 사명호국광장을 조성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이 널리 알려왔다.

또한 지난 9월 19일에는 사명호국광장에서는 사명대사 404주기 추모대재가 봉행돼 사명대사 추모는 물론 불교계의 화합을 도모하기도 했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는 "승려로서 호국에 앞장섰었던 위인을 기리는 곳에 말뚝을 박고 페인트를 뿌리는 등의 모욕행위는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는 부산시설공단과 함께 10월 1일부터 쇠말뚝을 제거했으며, 훼손된 광장의 환경 재정비를 진행했다. 부산= 김나영 객원기자

"세월호 특별법, 진실규명 의지 담겨야"

불교계, 法 여야 합의 관련 성명 잇달아

여야가 9월30일 타결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가 10월 1일 장두노미(藏頭露尾, 머리는 숨겼으나 꼬리는 숨기지 못하고 드러낸 모습)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의 독선과 새정치연합의 무능이 만들어낸 미흡하고 엉성한 법이라는 것이다.

이번 3차합의안은 특검 후보군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되 당초 유족의 추천과정 참여요구는 새누리당의 거부로 묵살됐다.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양보하는 대신 특검 추천 참여를 요구한 세월호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노동위는 "한국사회가 안전에 대한 총체적 문제를 밝혀내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진각종도 성명을 내고 세월호 특별법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의지를 담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정사)은 10월 1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여곡절 끝에 도출한 3차 합의안마저 빛을 바래 반쪽 합의가 되고 말았다"며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은 물론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담보할 수 있는 의지를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배현진 기자

"가톨릭 보호한 주어사, 사찰 원형 복원돼야"

조계종 제2교구신도회, 여주시청에 청원서 제출

조계종 제2교구신도회(신도회장 민학기) 9월 29일 여주시청, 10월 1일 경기도청에 주어사지를 원형 그대로 복원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여주시는 2012년 산북면 주어리에 위치한 주어사지를 문화재 제19호로 지정한 바 있으며, 가톨릭계가 이를 가톨릭 성지로 복원하려 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 불교계가 릴레이로 진행하는 기도법회를 위해 설치한 연등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제2교구신도회는 청원서를 통해 "주어사지와 천진암지는 모두 가톨릭 전래에 대한 조정의 탄압에도 불교와 스님들이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있게 배려하다 함께 희생당한 가슴시린 현장"이라며 "이런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후대에 전하는 것은 하나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신도회가 지적한 천진암은 가톨릭 성지로 조성되며 불교명칭이 빠지고, 암자 흔적이 사라졌다.

신도회는 "광주시 천진암과 같이 불교사찰의 흔적을 제거하고 오로지 가톨릭 시설만 신축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주어사를 가톨릭 강학 당시 사찰로 복원해 천주교와 불교의 화합의 상징으로 만드는 것이 불교계의 간절한 요청"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2교구신도회는 "향후 7월 6일 입재한 1000일 기도와 함께 다큐멘터리 또는 영화를 제작해 주어사와 천진암에 얽힌 역사를 국민 전체에 홍보할 계획"이라며 "절두산 가톨릭 성지에 옮겨진 해운대사 의징 스님비와 여주시에 보관된 부도탑부터 먼저 주어사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일 주 문



우물관리시스템 사례 발표

지구총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은 10월 13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리는 '소통과 나눔 파트너십 페어'에서 우물관리시스템 사례를 발표한다.



생명나눔 산사음악회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10월 11일 오후 3시 남양주 불암사에서 창립 20주년기념 생명나눔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02)734-8050



진각복지재단, 전체직원 연수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 회정 정사는 9월 23일부터 1박 2일간 대전 용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산하복지시설 전체 직원연수를 진행했다.



568돌 한글날 기념 토요법회

동국대 정각원 원장 법타 스님은 6월 4일 568돌 한글날을 맞아 티벳박물관장 현장 스님 초청 특별 토요법회를 봉행했다.



민추본 8차 월례강좌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지홍 스님은 10월 15일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8차 월례강의를 진행한다.



산스크리트 동영상 강좌 제공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최근 국내 대학 최초로 초급 산스끄리뜨 공개강좌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제공했다.

"가족지원 위한 불교 모델 개발"

김외숙
가족지원센터 초대센터장



가족지원센터 10월 2일 창립
불자가족 가정생활 역량 강화 목표
가족애착놀이 · 미혼모학교 등 진행

"보다 많은 불자들이 가족생활 역량을 높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이웃 가족들에게도 마음을 열고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불자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립된 가족지원센터 김외숙 센터장(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이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불교여성개발원과 (사)지혜로운여성은 2010년부터 △가족애착놀이 지도자 과정 △청소년 미혼모 학교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해오다 올해 2월 가족지원센터 창립을 발의했다.

가족지원센터는 10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창립식을 열고 가족친화적인 사회 만들기를 선포했다.

김 센터장은 "많은 불자들이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는 있으나 부처님 가르침에 기초해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이웃가족과 나누는 실천적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자가족의 가정생활 역량을 강화시켜 행복한 가족친화사회를 구현하고자 창립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가족지원센터는 △교육팀 △한부모지원팀 △문화팀 △운영팀 등의 조직을 갖추고 다양한 교육 및 문화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김 센터장은 "부처님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가정의 수행문화 정립, 결혼예비교육, 태교, 좋은 부모되기 등의 교육과 함께 가족생활교육 전문가를 양성할 것"이라며 "이밖에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등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펼치는 한편 가족친화적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성존중 문화, 공동체 돌봄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대학시절 서울대총불교학생회에서 개최한 봉선사 수련회에 동참하면서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광덕 스님과 각별한 인연이었던 그는 스님이 열반 하실 때까지 가르침을 받았고 현재도 광덕 스님이 창건한 불광사를 재적사찰로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다 2005년부터 불교여성개발원 자문위원을 맡아 활동해오다 지난 2월 가족지원센터장 소임을 맡게 됐다.

김 센터장은 "올해는 청소년 한부모의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도담학교를 후원하는 사업 진행과 함께 센터의 기틀을 잡는 데 주력했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 · 문화사업을 펼치고 한부모 가족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불교계 모델을 만들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역사깃든 절에 성보 한점 없는게 말이되나"

서산 부석사 총무 원우 스님



불상제자리 봉안위 조사단
3차례 대마도 현장 방문
왜구 서산 약탈 기록 확보

지난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에서 밀반입된 서산금동관세음보살좌상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문화재청이 지난 9월 10일 서산 부석사에서 봉안됐다 알 수 없는 경로로 일본 대마도로 건너갔던 불상 2점의 반출경위를 조사하는 위원회 구성 계획을 발표했다. 덩달아 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봉안위 소속 원우 스님(서산 부석사 총무)은 10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근거를 들어 정당한 소장경위를 밝히는 의무를 이행한다면 부석사는 불상의 일본 반환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왜구가 불상을 약탈해갔다는 관련 기록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이즈하라정에서 발행한 역사서인 〈아즈하라정지〉를 보면 "일본에 들어온 고려 초기 문물 중 불상은 약탈이 아닌가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것.

또한 〈대마의 자연과 문화〉라는 책자에는 "1375년 9월 왜구가 서산에서 약탈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도 지적했다.

모두 지난해 3월 발족한 봉안위가 세차례에 걸친 대마도로 현지 답사를 다녀와 확보한 자료다.

원우 스님은 "부석사는 창건 이래 한 번도 폐사된 적이 없지만 오래된 성보문화재가 한 점도 남아있지 않다"며 "사찰에서 공경과 예배의 대상인 불상을 교류품이라며 다 넘겨주는 것이 이치에 닿는가"라며 되물었다.

이어 "고려시대 당시 부석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다. 왜구가 출몰하면 관군이 출동하는데는 2시간이 넘게 걸렸던 반면 왜구는 10분내로 바다로 도망칠 수 있었다"며 당시 지리적 요건상 약탈이 쉬이 일어날 수 있었음을 강조했다.

대마도 관음사에 보관돼 있던 관세음보살좌상은 "1330년(고려 충선왕 원년) 영원토록 서산 부석사에 봉양, 공양하고자 서원한다"는 내용의 복장 조성문이 발견된, 제작 장소와 연대를 알 수 있는 몇 안되는 희귀한 고려 불상이다.

봉안위는 "대마도 현장조사 당시 관리나 주변 경계가 너무 허술해 조사단이 오히려 더 당황스러웠다"며 향후 일본에서의 문화재관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원우 스님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가 격이 맞지 않는 곳에서 출처도 모른채 방치되다시피 있었다는 사실이 애석하다"며 "이번 사안은 불법문화재 환수에 있어 정부 원칙을 세우는 근간이 될 것이다. 정부가 올바른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진각종, 제12회 한마음체육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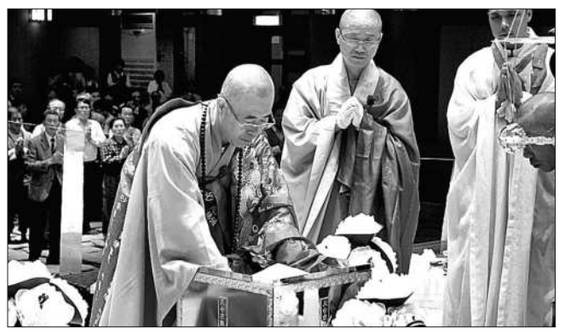
진각종 서울교구청과 총금강회 서울지부는 9월 27일 경기도 미사리 경정경기장 워밍업장에서 제12회 서울교구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신교도들의 화합을 도모했다.

이날 체육대회는 이날 체육대회는 대만다라(탑주 · 명선 · 혜원 · 덕화심인당), 삼매야만다라(밀각 · 무애 · 능인 · 장엄심인당), 법만다라(행원 · 남부 · 법륜 · 밀엄 · 방등심인당), 갈마만다라(유가 · 실상 · 관음 · 대원 · 안산심인당) 등 4팀으로 나눠 놀이 · 체험마당과 공연마당 및 장기자랑, 족구를 비롯한 체육마당 등을 진행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관문사, 옥불대보탑 복장 봉안

9월 30일, 경천사 10층석탑 양식 계승 발전



지난 5월 기공식을 마친 서울 관문사 옥불대보탑에 진신사리를 포함한 복장물이 봉안됐다.

관문사는 9월 30일 경내 4층 옥불보전에서 '옥불대보탑 복장봉안 법요식'을 봉행했다. 법요식에는 관문사 주지 춘광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종의회의장 문덕 스님, 감사원장 용암 스님 등 종단 스님들과 불자 2000여 명이 동참했다. **김주일 기자**

법륜 스님, 미국서 100회 강연



세계 100회 강연을 진행중인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의 36번째 강연이 9월 30일 미국 뉴욕주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열렸다. 법륜 스님은 8월 26일~12월 18일 유럽 미국 캐나다 등 세계 111개 도시를 돌며 115회의 순회강연을 진행한다. **정혜숙 기자**

제2회 원각서예대전 전시회



천태종(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9월 27일 오후 2시 단양 구인사 불교천태중앙박물관 컨벤션홀에서 제2회 원각서예대전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회 개막식을 봉행했다.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대상 수상자인 이이섭 씨와 최우수상 정승록 씨에게 상패와 상금을, 총무부장 월도 스님은 우수상, 교육부장 장호 스님은 장려상, 김창동 운영위원장은 특선 수상자에게 시상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남경중의학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한국캠퍼스 총장의 추천 입학제'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남경대학 한국캠퍼스와 함께 세계를 향한 날개짓을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 정부는 2014년 6월 15일 발표했다.

1 모집요강
- 한의학과 5년 – 40명
- 석사과정 3년 – 10명
- 박사과정 3년 – 10명
- 재경대학 4년 – 10명

2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사 1부
- 최종석적증명 1부(영문) • 여권용사진 10매

3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4년 10월 31일**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4 문의처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 팩스 : 02)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南京中醫學大學 1954
남 경 중 의 약 대 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

천상의 왕국을 찾아서, 부탄

행복한 나라 1순위 부탄,
부탄국왕조청 혜인스님과 함께

네팔



▲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기도드리는 신도들



▲ 룸비니동산에서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



◀ 룸비니동산 입구

◆ 날 짜 : 10월 예정
◆ 모집인원 : 선착순 20명



6포병여단 장병들이 조계종 군종교구가 국군의날을 맞아 마련한 자장면 공양에서 즐겁게 자장면을 먹고 있다.



송희섭 준장이 정우 스님에게 캐리커쳐를 전달하고있다.



K9 자주포 견학 후 여단 관계자들과의 기념사진



아이돌그룹 베스티의 공연은 큰 인기를 끌었다.



NS윤지의 공연과 열광적인 장병들의 환호 모습

걸그룹 공연, 자장면 공양… 병영 스트레스 '훌훌'

조계종 군종교구, 국군의 날 맞아 1000명 자장면 보시

"신병교육대에서도 스님이 주신 자장면을 맛보고 정말 힘이 났는데, 이렇게 자대에 와서 국군의날에 자장면을 먹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앞으로 부처님 법을 잘 따르며 군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66회 '국군의 날'을 맞아 새내기 군 간부와 병사 1000명에게 자장면을 보시했다. 이들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최근 잇따른 군사고로 인한 억눌린 감정을 모두 날려버렸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국군의 날인 10월 1일 찾은 곳은 경기도 연천의 6포병여단. 군혁신문화 주도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부대표창을 받기도 한 곳이다. 자장면 보시는 초급간부와 일병과 이등병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여러분들이 자장면을 평소 좋아하는 음식이라 생각해서 함께 하고자 왔다"며 "오늘 만나서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고 말했다.

자장면은 인근 중식 전문업체에서 만들어, 밖에서 먹던 것과 별반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다. 봉사에 나선 간부 부인들과 구룡사 신도들이 그릇마다 자장면을 넉넉하게 담았지만 힘든 군생활 중에 별미를 접한 장병들은 순식간에 먹어치우고 다시 길게 줄을 섰다. 이에 맞춰 취사장에서는 연이어 자장면이 나왔다. 6포병여단 호국범우사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는 비구니 호택 스님은 장병들의 식사 자리를 돌아다니며 따듯한 마음을 전했다.

이날 자장면 공양에서는 훈련병 시절 군종교구가 제공한 자장면을 자대 배치 후 다시 맛 본 병사도 있었다.

정연우 이병은 "5사단(신병교육대대)에서 자장면을 먹어 정말 좋았는데 또 6포병여단 와서 국군의 날을 맞아 먹을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며 "앞으로 부처님 법을 잘 따르며 군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육군우수표창 받은 6포병여단서 진행
NS윤지, 베스티 등 걸그룹 초청공연도
새내기 간부, 장병들 함께 '열광'

자장면 공양에 이어 6포병여단장 송희섭 준장은 새내기 간부 · 장병들과 병영문화의 변화와 혁신을 부대 장병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간부, 장병들과 함께 자장면 공양을 함께한 송희섭 준장은 "병영문화 혁신을 비롯해서 우리 6포병여단이 전국에서 제일가고 또 전군을 선도하는 부대를 함께 만들어나가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6포병 여단측은 장병들이 그린 정우 스님의 캐리커쳐를 정우 스님에게 전달했다.

이에 앞서 정우 스님과 군종교구 관계자들은 오전 10시 포병교육부대를 찾아 생활관에서 장병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정우 스님은 전역이 3개월 남았다는 김대환 병장에게 "3개월이 많이 남은 것 같아도 금방 간다. 매주 라면 1개씩 12그릇만 먹으면 된다"며 무탈한 군생활을 기원했다.

또 부대 도서관에서는 "40년 전 장병으로 군부대에 있으며 군법당과 함께 도서관을 만들기도 했다"며 책자 기증을 약속하고 사이버지식방에서 PC를 이용하는 장병들을 둘러보기도 했다.

생활관을 둘러본 정우 스님과 군종교구 관계자들은 6포병여단에서 준비한 K9 자주포 등 군장비 소개와 함께 운행 시연도 지켜봤다. 여단 측에서 K9 자주포 탑승을 권했지만 정우 스님은 "시동 한번만 켜도 국민 세금 몇십만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다"며 사양했다.

이날 위문행사는 오후에 들어 더욱 더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자장면 공양이 끝난 뒤 새내기 간부들과 장병들은 교육관에 모여 가수 NS 윤지와 베스티, 윙스, 포엘 등 걸그룹의 공연을 함께 즐겼다. 이날 공연에서는 열심히 응원한 장병에게 포상휴가가 주어져 더욱 열띤 응원이 펼쳐졌다.

무대에 나선 걸그룹들은 최신 인기가요를 장병들과 함께 부르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조병진 일병은 "우리 부대가 국군의 날 부대표창을 받은 것이 자랑스럽고, 오늘 행사로 진군 포병인으로서 큰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는 감사한 시간이었다"며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연천=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국군의날 맞아 군포교 후원 '눈길'

군종교구 천도재 · 봉은사 등 사찰 동참



이번 66회 국군의날을 앞두고 군 사기진작을 위한 불교계의 행사와 후원활동이 활발히 이어졌다.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9월 29일 육군5사단 광복통일사에서 원심원사와 공동으로 민 · 관 · 군 합동 천도대재를 봉행했다.

원심원사 등에서 온 불자들은 백마고지가 위치한 중부전선 최전방 부대인 5사단 법당 광복통일사에서 호국영령과 순국선열 및 군복무 중 순직한 영령을 추모하고 부대 안녕과 무사고를 기원하였다. 이번 합동 천도대재는 원심원사 주지 정오 스님과 김규선 연천군수, 6 · 25참전 유공자회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서울 봉은사와 김포 금정사도 군불교 활성화 및 군법당 불사 지원에 정성을 보탰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학)는 9월 25일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에 2000만원을 전달했다. 봉은사가 전달한 기금은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군종특별교구에 지정 기탁돼 교구 발전기금과 20사단 61연대 12전차대대 호국연화사 군법당 신축불사기금 및 군포교 활동 기금으로 1000만원씩 사용될 예정이다.

봉은사는 특히 호국연화사 법당이 열악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금 후원을 약정하고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금했다.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군종교구 발전을 위해 미력이나마 보태기 위해 기금을 지원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봉은사에서 힘 닿는대로 군종교구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 금정사(주지 명훈)도 9월 17일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 사무실에서 전달식을 갖고 군포교 지원기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금정사가 전달한 기금은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기금으로,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12사단 을지부대 신병교육대 법당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 세울 혁신적인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아이센스 탄생!

보고 · 듣고 · 배우는~
첨단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불교대학에서 의식을 공부하시는 주지스님,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 불경 해석 학습기기!

염불(念佛), 염송(念誦) 모음

▣ 염송경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불설약사여래본원경, 화엄경 보현행원품, 화엄경 약찬게, 초발심자경문, 무상계, 의상조사 법성게,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팔대참회문, 대불정능엄신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팔양신주경, 보왕삼매론

▣ 염송의범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 · 49재편, 시식 · 영반편, 장의편, 점안편, 이운편, 의식편, 기타편

경전학습기에는 영어 · 중국어 · 일어의 회화기능 외 여러가지 부가기능까지~

- 통역기능 : 기존 번역기와는 차별화된 120문장의 정확한 4개국어 통역기능까지
- 회화강좌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생활회화 강좌기능
- 전자사전 : 옥스퍼드, 동아프라임, 민중엣센스, 현대옥편, 수능 및 토플단어장 시중에서 25만원에 판매하는 전자사전과 동일한 컨텐츠 탑재
- 녹음기능 : 고성능 마이크가 내장된 선명한 음질의 녹음기능

신한M&B 경전학습기 사업부 02)701-6160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있습니다.
010-3400-6160

신행 단신

불교상담개발원, 관계 깨우는 의사소통

10월 16~18일 목동 국제선센터서, 교육원 연수교육 인증과정

불교와 심리를 활용한 소통과 치유 프로그램이 열린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10월 16~18일 목동 국제선센터에서 조계종 교육원 연수교육 인증과정 교육인 '나와 너, 관계를 깨우는 의사소통' 을 개최한다.

스님과 재가불자 등 6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정신과 전문의 최훈동 박사 겸임교수가 강사로 불교의 연기법과 심리학의 정신분석을 접목한 이론 · 실습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수업을 통해 고통의 본질에 대해 불교적, 심리적으로 짚어보고 그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면 심층의식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성찰하고 숙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후 관계에 관한 연기적 법칙을 명상을 통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계 자체도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는 것으로, 있는 그대로 두고 바라보는 가운데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생 상호간 실제 훈련할 예정이다.

불교상담개발원은 "강사의 전문성과 풍부한 임상경험으로 불교와 상담을 일상용어로 풀이해 명상지도자로서 매순간 교육생과 소통할 수 있는 깨어있는 강의가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737-7378 이나은 기자

'차이와 경계 넘어서는 지혜' 주제 강연

조성택 교수, 10월 7일 오후 7시 고려대서

원효 대사의 '화쟁(和諍)' 사상으로 현대사회의 치유를 모색하는 강연이 마련된다.

(재)플라톤 아카데미는 10월 7일 저녁 7시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조성택 교수(고려대 철학과)를 초청해 '차이와 경계를 넘어서는 지혜' 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강연에서 조성택 교수는 갈등과 불통의 상태에 있는 현대 사회를 직시하고 원효의 '화쟁' 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갈등의 새로운 인식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가능하게 만드는 '대화' 와 '경청' 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현대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좌는 현장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강좌는 SBSCNBC로 방송될 예정이다.

플라톤 아카데미는 "이번 강좌는 (재)플라톤 아카데미에서 기획하고 진행하는 인문학 확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잊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인 '나는 누구인가?' , '어떻게 살 것인가?' ,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에 대해 우리시대 최고의 지성들이 학문의 틀에 갇힌 인문학을 일상으로 불러내어 해답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자리"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3771-5885

이나은 기자

국제선센터, 생전예수재 · 선지식 법회

지현 · 법산 · 지안 · 용타 · 해남 · 암도 스님 법문

대한불교조계종 국제선센터(주지 탄웅, 이하 국제선센터)는 9월 윤달을 맞아 업장소멸과 무량공덕을 쌓는 생전예수재 49일 기도를 봉행한다.

국제선센터는 예수재 기간 동안 7인의 선지식 큰스님들을 초청해 법석을 마련한다. 9월 29일 기도입재를 시작으로 10월 5일 초재에는 혜거 스님(금강선원장)을 초청해 법회를 개최한 국제선센터는 △10월 12일 지현 스님(송광사 율주) △10월 19일 법산 스님(동국대 정각원장) △10월 26일 지안 스님(고시위원장) △11월 2일 용타 스님(행복마을 이사장) △11월 9일 해남 스님(통도사 율주) △11월 16일 암도 스님(前 조계종 포교원장)의 초청법문을 열 계획이다. 또한 11월 9일에는 보살계수계식을, 16일에는 개원 4주년 기념법회도 함께 진행한다.

국제선센터는 "불교에서 전통적으로 윤달이 되면 봉행했던 생전예수재 기도를 통해 살아 있을 때 미리 수행하고 공덕을 쌓아 복덕을 구족하고, 참회로써 업장소멸하여 극락왕생을 발원하게 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2650-2200 이나은 기자

포교사단, 팔재계 수계실천 결의다져

조계사서 9월 27~28일
포교사 품수식 및 대법회 봉행



포교사단(단장 곽명희)은 9월 27~28일 서울 조계사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전계사로 '팔재계 수계실천대법회' 를 거행했다.

전국 5천여 포교사 조계사 집결
860여 신규 포교사도 참여
부처님 출가 정신 되새기며
전법의지 다지고 실천 다짐

"신 · 구 · 의 삼업으로 인한 업을 모두 참회하오니 모든 허물 사라져서 몸과 마음 건강하고 위험원수 사라지고 선업의 이익 나타나소서. 스님들이시여. 저희들이 한마음으로 삼귀의와 여덟 가지 계를 받기를 원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계를 설해주십시오."

포교사들이 지계를 점검하고 전법의지를 다지고자 오계(五戒)와 오후불식과 향락과 몸 꾸미지 않기, 높고 넓은 침상을 쓰지 않기 등의 세 가지를 더한 팔재계수계실천대법회가 올해로 12회를 맞았다.

포교사단(단장 곽명희)은 9월 27~28일 서울 조계사에서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전계사로 '팔재계 수계실천대법회' 를 거행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포교부장 송묵 스님 및 교구본사 포교국장 스님들을 비롯해 서울 · 인천 · 울산 · 경남 · 충북 · 광주 등 10여개 지역의 4천여 포교사 등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최종합격한 일반 포교사 750여명과 전문 포교사 79명, 국제 포교사 28명 등 최근 포교사 고시 합격을 축하하는 자리도 열렸다.

행사 첫날에는 오후 5시 대의원총회를 시작으로 △입재식 △제8기 전문포교사 및 19기 신규포교사 품수식 △붓다로살자 동참선언 △8재계 수계식이 거행됐다. 둘째 날에는 촛불철야정진을 비롯해 새벽예불과 보살계 수계식이 이어졌다.

곽명희 포교사단장은 인사말에서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계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들은 종단의 커다란 인적자원"이라며 "사찰과 지역사회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실천하는데 훌륭한 리더가 되어주길 바란다. 계는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귀한 가르침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시민의식 실천운동을 펼쳐나가자"고 당부했다.

지원 스님은 법문을 통해 "급변하는 포교환경과 많은 포교손길을 요구하는 포교현장의 요구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포교사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다"며 "팔재계 수계산림을 통해 포교사 스스로 포교능력을 향상하고 서로 격려하며 전법의 길로 다함께 나가자"고 격려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포교사들이 하룻밤을 금식하면서 철야정진 팔재계 수행을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 분들이야말로 한국불교의 버팀목이라는 생각이 들어 큰 성원을 보낸다. 2003년부터 시작된 지계실천운동이 벌써 12년이 되었다니 이제는 포교사만의 행사가 아닌 범 재가불자의 운동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포교사는 앞으로 한국불교의 희망이다. 스님과 신도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불자들의 구심점이 되어 희망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불법을 방방곡곡으로 전파하여 이 사바세계가 정법으로 바로 서고 성실하고 건강한 사회로 변모시키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포교현장에서 열정과 헌신으로 불법 홍포에 앞장서온 포교사와 포교팀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총무원장상에는 개인부문에 정영균 포교사(광주전남)가, 단체부문에는 인천경기 호스피스 팀이 수상했다. 이밖에 60여 개인과 단체가 포교원장과 총재상, 단장상 및 공로상을 받았다.

한편, 신규포교사 품수식에서는 제19회 일반포교사와 제8회 전문포교사가 포교사의 다짐과 전문포교사결의문을 낭독하며 전법의지를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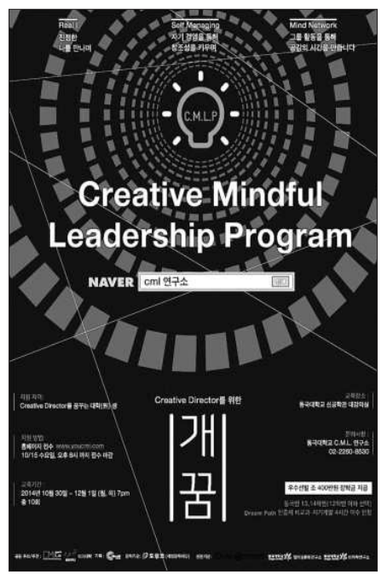
이어서 전국 포교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의 출가 정신을 따르기 위해 불살생과 불음 등 여덟 가지 계율을 받은 포교사들은 시민과 함께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이들은 조계사 일주문에서 시작해 청계천을 거쳐 다시 조계사로 돌아오는 시간 동안 국민의 행복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발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무의식 체험으로 참 나 발견하자"

동국대 C.M.L 연구소, 창의 인성리더십 교육 진행



동국대 C.M.L 연구소(소장 김애주)와 중앙대 의과대학(학장 홍창권)이 공동주관한 대학생 창의 인성리더십 교육 C.M.L.P (Creative Mindful Leadership Program)가 시즌2.5로 돌아왔다.

프로그램은 10월 30일~12월 1일 매주 월 · 목 오후 7시 10회로 진행되며 창의적 영감을 꿈꾸는 대학(원)생 들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삼성그룹의 후원으로 진행된 C.M.L.P는 2014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인성 3.0 대형사업에 선정돼, '무의식' 이라는 차별화된 소재를 교육에 접목시킨 교육으로 평가된다.

교육은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창조 전문가(Creative Director)를 양성하기 위해, '무의식과 창조의 연관성' '무의식 영역' 의 실제 체험 '무의식 에너지 생활 속 활용' 이라는 차별화 된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각 분야의 다양한 연사들의 체험 강연도 함께 된다.

10월 30일 김애주 동국대 교수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황수경 동국대 교수의 '마인드 에너지' △정효진 동국대 교수의 '프로젝트 미션' △김홍근 책임연구원의 '누가 창조하는가(Who creates)' △수불 스님의 'Who am I' 등의 과정이 진행된다. 또한 11월 14~16일 2박 3일 무의식 체험도 진행된다.

C.M.L 연구소는 "모든 창조는 인간의 내면 속 깊은 무의식에서 시작된다. '창조경제' , '창조융합' 등 창조에 대한 시대적 과제가 화두이지만, 정작 어떠한 방법을 통해 창조를 실현시킬지에 대한 근본적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다"며 "이번 과정은 틀에 박힌 강연이 아닌, 사고의 원리를 실제 '습득' 하고 사물의 다양한 모습을 객관적으로 '직관' 하며 새로운 가치를 '발견' 시키는 마음경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수료생에게는 계림장학재단에서 4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www.youcml.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2260-8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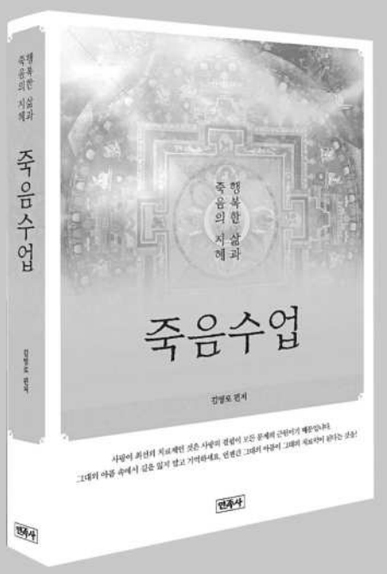
이나은 기자

괴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 염불 수행
근 · 현대 중국불교의 가장 뛰어난 스승의 한 분으로 추앙 받는 선화(宣化) 상인의 대표적인 염불 법문집



선화 상인 염불 법문
서방극락이 그대의 집
■ 정원규 · 이정희 옮김 | 변형 신국판 288쪽 | 12,800원
경전과 다양한 실화를 바탕으로 아주 쉽게, 염불 법문의 정수를 콕 집어 설한다.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염불이 삶과 죽음의 고통바다를 건너는 이치임을 깨닫게 합니다.
참되게 염불하면 우리의 마음에 불보살이 감응하여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반드시 아미타불의 극락정토가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삶과 죽음의 지혜
내일이 먼저 올지 내생(來生)이 먼저 올지는 누구도 모른다



뼈저린 아픔을 위로해 주고 치유해 주는 필독서!
죽음수업
■ 김영로 편저 | 변형 신국판 348쪽 | 15,000원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감동과 치유의 책
"필자도 2010년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때때로 눈물이 나지만 대신에 저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 머리말 중에서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분리수거 등 주민갈등 라디오로 풀어요”

성남시 마을라디오 청솔복지관 FM데이트

복지관 앞마당 스피커를 타고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이 주변 아파트 위로 넘실거린다.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진행되는 불교계 청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월도 스님)의 ‘청솔 FM데이트 방송’. 수신 범위는 성남시 분당구 청솔마을 아파트 6단지다.

마을주민 6명이 직접 DJ가 되어 곡 선정부터 멘트작성까지 책임지는 토착형 지역 마을라디오는 지난 7월부터 일주일에 세 번씩 방송되고 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은 발성법에서부터 대본 작성법까지 총 35회에 걸쳐 교육도 받았다.

프로그램 종류는 총 5가지. 음악을 들으며 삶을 이야기하는 ‘행복한 삶을 만나는 청솔월드’, 시와 책을 소개하는 ‘비와 맑은 바람’, ‘따뜻한 햇살’, 마을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언니에게 물어봐’, 유쾌한 오전 라디오 ‘너랑나랑’ 등이다. 한 프로그램당 1명내지 2명이 고정으로 투입된다. 지난 방송은 유튜브, 복지관홈페이지, 팟캐스트 등에서 들을 수 있다.

초보 DJ들이지만 녹음은 사양, 무조건 ‘생방’만 고집한다. 대본을 외워도 막상 마이크앞에 서면 말을 버벅이는 게 당연지사. 대본 읽기에만 급급했던 첫방송에 비춰본다면 이제는 점차 농담을 던질 타이밍이 보일 정도로 능숙해지고 있다.

방송을 하며 점차 예전의 ‘감’이 돌아온다는 이들도 있다. 희끗한 머리의 미중년 박완국씨는 왕년에 대천시내 음악다방에서 DJ를 했다. 맛깔나게 이야기를 한다 했더니 ‘너랑나랑’ DJ 정미영씨도 성남 라디오 방송 고정 게스트 출신이다.

청솔FM 데이트는 친숙한 이웃 이야기를 통해 정을 나누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 주민 DJ들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다.

정미영씨와 함께 화요일마다 너랑나랑을 진행하는 남궁민영씨는 청솔마을 통장이다. 분리수거 문제부터 크고 작은 주민간 분쟁을 생생히 옆에서 접해온 장본인인 셈. 갈등사례를 공론화하고 소통을 도모할 수 있는 장으로 라디오를 활용하고자 DJ에 도전했다.

교계 복지관서 운영… 총 5개 프로
지난 7월 개국, 1주일에 3회 방송
마을 주민 6명이 직업 DJ 맡아



청솔종합사회복지관 주민참여 라디오 ‘너랑나랑’의 진행자 남궁민영(사진 왼쪽)씨와 정미영씨.

“신청곡, 사연은 물론이고 마을 주민들을 게스트로 초대할 수 있어야 해요. 마을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원로 통장님을 초대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죠.”

저마다 의견들이 쏟아졌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시간을 내서 홍보하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주민 DJ들은 누구에게 먼저 다가가야 할지, 장소는 어디가 좋을지 서로의 생각을 나눴다.

이들이 마이크 앞에 서게 된 이유는 간단했다. 팍팍한 도시삶에서 가까이 사는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 최근 마을협동조합, 공동주거, 공동육아 등 마을공동체 사업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2013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한 주민제안이 1천9백여개에 달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공동체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이 서로 잘 알면 범죄 발생률도 낮출 수 있고 자녀 교육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완국씨 역시 “현대사회가 도시화 되면서 이웃들간에는 서로 벽이 생겨버렸고 인간성 또한 황폐화됐다”며 “라디오를 통해 닫힌 마음을 열고 서로 정을 나누다 보면 함께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을공동체 운동이 위기에 처한 현대 사회에 대한 대안에서 시작된만큼 청솔 FM 데이트가 ‘우리’ 마을 사랑방으로 자리잡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배현진 기자**

아이티 폐허에 희망학교 세우다

아름다운 동행, 9월 24일 헤르메 바야드 고등학교 완공식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지원해 아이티에 건립한 헤르메 바야드 고등학교 완공식이 9월 24일 진행됐다.

학교는 아이티 수도 포르토 프랭스에서 50여km 떨어진 남부 항구도시 자크멜시에 세워졌다.

350명의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규모며 교실 8동, 남녀 화장실 각각 한 동과 태양광을 이용해 지하수를 끌어 올리는 우물시설, 운동장 등이 마련됐다.

지난 2010년 아이티 지진 참사 당시 구호활동에 참여한 아름다운동행은 4억8천만원을 모금, 유네스코와 협력해 학교 건립을 추진해왔다.

공사 기간이 4년이나 걸렸던 데는 지진 이후 콜레라와 매년 반복되는 허리케인 피해, 불안정한 정세와 건축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재건복구 사업이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이날 완공식에는 자크멜 시장과 유네스코 관계자, 아이티교육부 관계자와 전 아이티 국회상원의장이며 현재 대통령 특별자문인 조셉 램버트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교육을 위한 훌륭한 공간을 마련해준 한국과 조계종에 입을 모아 감사를 표했다.

아이티 교육부 국장은 “아이티정부는 2014년 전반기 교육부 조직을 새롭게 정비함으로 교육 의지를 다잡았다”며 “헤르메 바야드 고등학교를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학교로 발전시켜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크멜 시장 역시 “지진으로 무너진 삶의 터전에서 학교 건립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준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아름다운동행이 9월 24일 아이티에 건립한 헤르메 바야드 고등학교

헤르메 바야드 고등학교 학생대표 또한 “조계종과 아름다운동행의 재정적 지원 및 여러 관련 기관들의 후원과 협력에 학생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학교를 잘 운영하는 일만 남았다. 이를 위해 아이티 교육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현지 완공식에 참석한 아름다운동행 박찬정 사무국장은 “반목보다는 화해, 미움보다는 사랑, 독점보다는 나눔, 대립보다는 공존을 우선시하는 지구촌을 만들 수 있는 지도자들이 헤르메 바야드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서 많이 나오길 기원한다”고 축사를 통해 말했다.

아이티는 지진 전과 후에도 여전히 최빈민국이다. 지진으로 인해 도심 속의 무너진 건물들은 아직도 곳곳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며 사람들은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주운 페트병과 유리병을 팔아 생활하고 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어르신 장기대회 ‘도전! 바둑왕’ 열려



제4회 울산노인문화제 어르신 장기 바둑대회가 9월 23일 울산중구노인복지관(관장 이임수) 1층 강당에서 열렸다. 〈사진 왼쪽〉 장기 바둑대회는 만60세이상 어르신 128명을 대상으로 16강 토너먼트로 진행됐다. 총 7시간의 경연 끝에 9명의 우승자가 결정됐다.

시상은 5급이하와 이상으로 나뉘어 우승, 준우승, 장려상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상장이 전달됐다. 바둑 우승은 김문호, 금태진 어르신이 장기대회 우승은 장광수 어르신 몫으로 돌아갔다.

어르신 행복나들이 봉사자 모집

궁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남화수)에서는 가을맞이 어르신나들이 봉사자를 모집한다. 10월 11일 인천 영종도로 떠나는 일자리참가자 어르신들을 인솔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어 10월 14일에는 사례관리자와 금식대상 어르신 73명이 경기도 안성 팜랜드와 남사당전수관으로 떠난다. 각각 따로 신청할 수 있으며 봉사자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02)2613-9367

불교호스피스협회 창립 5주년 맞아

10월 17일 기념식…신임회장에 능행 스님 취임



10월 9일 세계 호스피스의 날을 앞두고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창립 5주년 행사가 열린다.

행사는 10월 17일 오후 1시부터 울산 정토마을 마하보디교육원에서 진행된다.

호스피스로서 자비행을 펼쳐온 이들에 대한 봉사상 시상식과 함께 가정방문호스피스의 불교적 돌봄이란 주제로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세미나는 가정방문호스피스의 지역사회 운영 및 협력체계 방안, 종교인 관점에서 본 가정방문호스피스의 현실과 방향 중심으로 진행되며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실천가들이 현장 경험을 나눈다.

이날 창립식에서는 울산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의 능행 스님(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상임이사)이 지현 스님의 뒤를 이어 제2대 협회장으로 취임한다.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행복한 삶과 평온한 죽음을 돌보고자 2009년 조계종 포교원 산하 단체로 설립됐다. 전국 불교 호스피스 봉사단체와 협력네트워크 구축, 호스피스실천가 양성 및 지원 사업, 불교임종의식 연구사업과 임상사례 연구 활동, 학술세미나를 진행한다.

배현진 기자



복지관에 등장한 사자와 토끼

청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영학)에 난데없이 사자와 토끼가 등장했다. 지난 9월 27일 열렸던 나눔바자회에 복지관 청소년 봉사단원들이 인형탈을 쓰고 나와 행사 분위기를 톡톡 띄운 것. 행사는 지역주민 2천여명의 관심 속에 의류, 생필품 등 알뜰장터와 먹거리 마당, 타로, 룰렛 등 다양한 부대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판매 수익금은 모두 연말 결식아동 및 저소득 가정 50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에 쓰이게 된다. 청담종합사회복지관은 매년 바자회를 개최해 노숙인, 홀몸노인 등 지역 소외계층을 도와왔다. **배현진 기자**

대한불교원효종 승려의무금, 분담금 납부안내

2014년 9월 29일 중앙종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원효종 종도스님들께서는 착오없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승 려 : 의무금 월 일만원
- 주 지 : 승려의무금 포함 분담금 월 삼만원

문의처 : 대한불교원효종 총 무 원 02)735-0501~2
대한불교원효종 울산사무소 052)262-6857

대한불교원효종 중앙종회의장 태운
수석부의장 범일
차석부의장 상진
총무원장 향운

제2회
묘엄불교문화상 공모

고(故) 세주 묘엄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이사장 김용환)에서는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 표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 공모기간 : 2014년 10월 31일까지
■ 시상내역 : 2명 (또는 단체), 각 상장 및 1천만원 상금
■ 추천자격 및 선정기준
1. 불교문화, 불교실천, 불교학술 등의 분야로 나누고, 그것을 세분화하여 불교교육, 포교, 수행, 불교학술, 불교예술 등의 분야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의미 있고, 뛰어난 활동을 다년간 지속해온 결과, 불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로서, 그 활동으로 인해 최근 5년간 다른 기관(재단)으로부터 상을 탄 적이 없는 후보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2. 단체는 설립된 지 5년 이상, 회원 30명 이상인 곳이어야 하며, 근거자료와 함께 그 동안의 활동업적이 첨부돼야 한다.
■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
□ 접수양식 :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에서 다운로드 (cafe.daum.net/myoeom.org)
□ 접 수 처 : 묘엄불교문화재단 사무국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로 63번 길2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 문의 : 051) 510-2076 / 팩스 051) 517-7101
사무국장 010-9317-9199 / david1080@hanmail.net
□ 자세한 사항은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 참조
■ 수상자 발표
□ 개별통지 후 재단 카페에 공지
□ 시상식 : 2014년 12월 28일. 세주 묘엄 스님 추모 다례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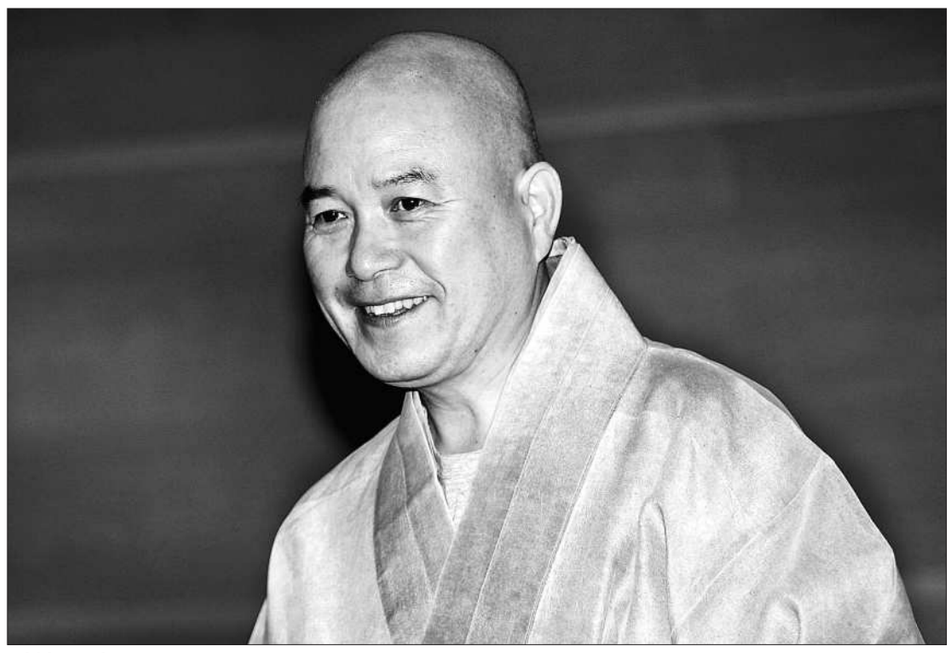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 사무국

연기적 사유와 공감… 바람직한 가족 형성 비결

(사)지혜로운여성 가족지원센터 창립기념 특별강연회

미산 스님(상도선원장)

불교에는 가정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 바탕과 실제적 행법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미산 스님은 10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사)지혜로운여성 가족지원센터 '부처님은 가정과 부부를 어떻게 보시는가' 를 주제로 창립기념 특별강연을 펼쳤다. 강연에서 스님은 '가족에 대한 불교적 이해와 실천' 이라는 주제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불교의 핵심 사상인 연기와 중도적 삶의 의미를 다루고, 일상에서 연기와 중도적 삶의 실천법을 설명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부처님이 가정과 가족을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것이 바람직한 가족 관계이며 부부 관계인지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경전을 통해 살폈다. 다음은 미산 스님 강연의 요지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미산 스님은 … 불교 명상 현대화, 학문과 수행이 결합된 생활 및 실천 불교 확산에 힘쓰고 있다. 스리랑카와 인도에서 불전 언어인 팔리어와 산스크리트어 문헌을 연구하고, 1992년 인도 뿌나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또 1999년 영국 옥스퍼드대 동양학부에서 '테라와다 불교의 찰나설, 그 기원과 발전' 논문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2000년부터 2년간 미국 하버드대 세계종교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했다. 이후 귀국해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과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 및 총장 직무대행 등을 거쳐 현재 서울 상도선원 원장으로 주석 중이다. **사진=박재완 기자**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다. 불교를 배우려면 부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가르쳤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현대인에게 가장 유용한 가르침은 연기(緣起)와 중도(中道)사상이다.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다. 깨달은 분의 관점을 두 가지로 정리해 말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부처님은 인생의 이치와 만물의 이법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연기법을 철저히 깨닫고 체화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있는 그대로 온전한 존재로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도 부처님이라는 것이다. 부처님은 붓다이고 붓다는 '깨달은 존재' 라는 뜻이다. 우리는 깨달은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불교다.

현대사회에서는 연기법의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을 철저히 하고 그것이 삼세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교리와 실천방법을 통해 전해야 한다.

연기법을 교리로 생각하고 개념화하면 어려워진다. 실제 경험하고 있는 현장에서 연기법을 몸으로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 삶 전체가 연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기법은 세 가지로 구성돼있다. 첫 번째는 원인이 항상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무수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원인과 조건을 통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인드라망처럼 계속 연결돼 삼라만상이 벌어지고 있다. 연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다.

연기법을 이해하고 실천 했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까.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삶, 함께 하는 삶이 이루어진다. 연기법을 자세히 이해하면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함께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는 개개인이 '나'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

부처님은 초기경전에서 '나' 에 대한 많은 법문을 하셨다. '나' 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일까?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은 시간에 의해서 형성된 존재다. 시간에 의해서 여기에 있게 된 존재라는 말이다. 부처님께서 얻으신 깨달음도 '나는 연기적 존재다' 라는 것이다. 바꾸어 얘기하면 '나는 오온(五蘊, 色、受、想、行、識)으로 연기한 존재다' 라는 뜻이다. 이 다섯 가지 연기로 있는 존재를 '나' 다 '인간' 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연기적 존재인 나를 시간의 관점에서 세심히 살펴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나' 라는 존재가 지구촌에 툭 떨어져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 주신 부모님과 거슬러 올라가면 조부모님, 그 위의 모든 조상님들이 있었기에 지금 '나' 라는 존재가 여기에 있게 된 것이다.

나로부터 20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약 2백만 명 이상이, 30대를 소급해서 올라가면 약 21억이 넘는 조상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엄격히 따져보면, 30대 앞에 계셨던 21억의 조상님 가운데 한 분만 계시지 않았더라도 지금의 나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역사의 모든 인물들이 직、간접적으로 나와 연관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분들 중에는 부처님과 예수님과 같은 위대한 영적 스승님이 있을 수도 있고, 인류의 문명을 질적으로 변화시킨 많은 성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존재도 공경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두 번째는 기쁨 가득한 공존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다. 연기법을 이해하고 체화하기 시작하면 기쁨 가득한 공존생활을 하게 된다. 아무리 내가 혼자 잘해도 이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변화 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조사와 보고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특히 인간의 무자비한 개발로 환경이 파괴되고 생태 교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큰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기적 사유를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인간들끼리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지구의 생명체들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면 사실 가정 문제도 근원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 환경, 인간과 더불어 많은 것들과 함께 했을 때, 우리가 연기법을 실천하는 길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네트워크 정보화시대다. 관계를 중요시여기고 관계를 통해 삶이 역동적으로 드러나는 시대다.

지능지수를 IQ(Intelligence Quotient)라 하고 감성지수를 EQ(Emotion Quotient)라 하듯이 정보화 사회에서 서로 공존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공존지수, 즉 NQ(Network Quotient)라 한다. 공존지수가 정보화 사회의 삶을 영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측면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불교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네트워크 시대는 연기법의 응용이 극대화된다는 의미다. 농경시대에 사용했던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는 속담보다는 네트워크 시대에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란 말이 더 설득력 있고 적합하다는 것이다. 즉, NQ시대의 생존전략은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가 아니라 '네가 잘 살아야 나도 잘 산다' 는 공존의 법칙이 유효하다.

'나' 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어
연기 이해 · 체험하면 만물에 감사
기쁨 충만한 공존생활 하게 해

철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저서 〈공감의 시대(The Empathic Civilization)〉에서 위기에 필요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그는 다윈의 적자생존이 아닌 공감하는 인간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경제사에 '공감' 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제시했다.

결론은 연민과 자비의 마음으로 공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정신이 전 세계에 확산되려면 명상을 통해 해야 한다.

행복한 가정 위한 부처님 가르침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가족 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부처님은 〈잡아함경〉에서 가족에 대해 "가족이란 식구들이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고 일할 때 같이 뜻을 모아 일하기 때문에 가족이라 한다" 고 정의를 내렸다.

가정사에 대한 가르침이 가장 많이 나오는 한역 경전이 〈선생경(善生經)〉 혹은 〈육방예경(六方禮經)〉이다. 빨리어 경전으로는 〈시갈로와다 숫따(Siggalovada Sutta)〉라 한다. 〈육방예경〉에서는 '육방' 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동방은 부모님께 절을 하는 것이요, 남방은 스승님께 절을 하는 것이며, 서방은 아내에게 절을 하는 것이고, 북방은 친지들에게 절을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하방은 하인에게, 상방은 수행자들에게 절을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우주 공간, 즉 동서남북과 허공의 상하, 6방을 향해 경건하게 절을 하며 다양한 인연들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육방과 관계된 모든 분들을 어떻게 받들어 모셔야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치셨다. 부처님은 자식이라는 존재는 부모의 부속물이 아니라 부모를 인연으로 태어난 독특한 인격 주체이므로 아버지의 엄격한 사랑과 어머니의 온화한 보살핌이 잘 조화를 이루어 자식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쳐서 독립시켜야 한다고 충고했다. 부처님은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멀리 벗어나게 한다. △선으로 인도해야 한다. △학업을 배우게 하고 기예(技藝)를 가르친다. △어울리는 짝을 구해 결혼시켜야 한다. △적당한 때에 가산을 상속시켜 주어야 한다 등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5가지 덕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첫째, 악으로부터 보호하라는 말씀은 자식이 나쁜 일을 하면 올바르게 하도록 꾸짖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을 한다. 그만큼 귀하다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쁜 일을 하게 되면 두 번 다시는 그 나쁜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혼을 내라는 것이다. 현대의 부모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다. 요즈음 부모들은 아이들을 귀여워만 하지 꼭 필요할 때 엄하게 꾸짖어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둘째, 가르치고 일러주어서 그 착한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착한 일이 무엇이다, 무엇이 착한 일이라는 것을 아이에게 일러주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모의 사랑이 자식의 뼛속까지 사무치게 하여 바르게 가르치고 아낌없이 주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덕목을 통해 진실과 사랑을 가지고 자식이 훌륭한 사회인이 되도록 돌보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이 바로 부모의 도리인 것이다.

또한 자식은 △부모님을 정성껏 봉양해야 한다. △부모님을 대신하여 집의 온갖 책임을 다해야 한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 △잘 받들어 편안하고 기쁘게 해야 한다. △위와 같은 효행을 잘 실천해야 한다. 등 5가지 덕목으로써 부모님을 섬겨야 한다.

이는 자식은 부모님을 존중하고 봉양하며, 전통을 계승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즉, 효행을 권하고 있지만 단순히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부모의 지중한 은혜를 생각할 때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식의 도리라고 하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쌍방적인 것이다.

부처님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베풀어야 할 덕목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를 업신여기지 말고 인격적으로 예우한다. △의식주(衣食住)의 걱정이 없게 한다. △다른 여인을 사모하지 않는다. △아내의 친족을 잘 보살핀다. △아내에게 장신구를 사 준다 등을 지켜야 한다.

또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이 밖에서 돌아오면 일어나서 맞이한다. △집안을 잘 정리하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 시중을 든다. △남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재산을 잘 관리한다. △다른 남자에 마음을 팔지 말고 남편에게 얼굴을 붉히며 대들지 말아야 한다. △남편이 휴식을 취할 때는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등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 얼마나 자상하고 구체적인 말씀인가. 오늘날 삶의 현실과 다를 수 있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속뜻은 가감 없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덕목들이다. 불교의 부부 윤리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부부간의 사랑과 화목과 존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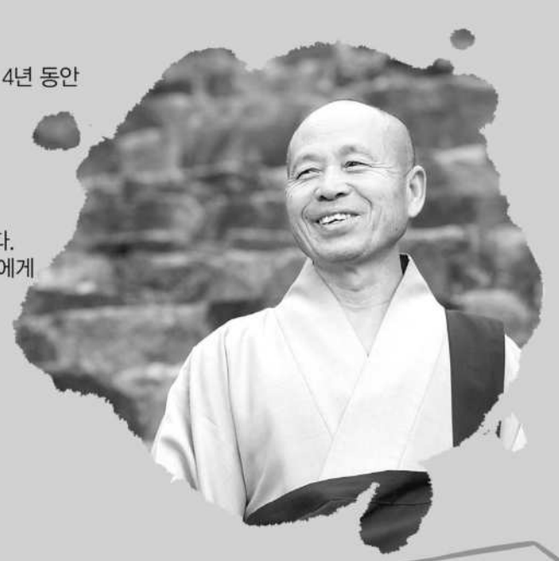
부처님께서는 부부를 인생의 길을 가는 도반(道伴)으로서의 동반자로 보았다. 그러므로 일방적인 헌신이나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 대해,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 대해 해야 할 도리를 쌍방적 형식으로 실천하도록 했다.

가족에게 지켜야할 덕목들을 말씀한 부처님은 수행을 통해 먼저 마음을 부드럽고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마음이 과거, 미래로 가지 않고 지금 현재 여기에 깨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집착하는 것을 내려놔야 한다.

이를 통해 지혜가 충만해 지면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부처님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고 힘이 생긴다. 매 순간 자애와 연민의 마음이 항상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자애와 연민의 마음이 먼저 일어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 충분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생길 때 부부와 부모 자식 간 행복이 넘치고 지구촌 전체가 행복으로 바뀐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의 시작은 나이고, 우리 가정이다.

화엄경 강좌 모집
원조각성 대 강백 큰스님 직강



귀의삼보하옵고
한국불교의 대 강백이신 원조각성 큰스님의 직강으로 그간 4년 동안 대반열반경을 마치고 다시 화엄경을 개설하였습니다.
〈화엄경〉은 화엄부의 대표적인 경전으로서 한국불교의 수행과 신앙형태에 영향을 끼친 경전입니다.
〈대방광불화엄경〉은 대승사상의 진수요 광대무변하게 우주에 편만해 계시는 붓다의 만덕(萬德)과 갖가지 꽃으로 장엄된 진리의 세계를 설하고 있는 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성큰스님께서 생전에 마지막 화엄경 강의를 통해 후학들에게 전수한다는 마음으로 화엄사상의 핵심만 정리된 내용의 대 강좌입니다. 먼저 법성게 화엄일승법계도, 핵심적인 게송과 화엄경약찬게, 입법계품의 53선지식, 십지품 등 화엄경요지를 요약해 강설하십니다.

• 강의일시 : 2014년 10월 21일 첫 강의 셋째주 화요일
매월 셋째주 오후 2시
• 장 소 : 동국대학교 (문화관2층) 학명세미나실
• 수 강 료 : 1년 스님 70만원, 재가자 80만원
• 대 상 : 비구, 비구니, 재가자
• 구비서류 : 이력서
• 접수기간 : 2014년 10월 20일까지
• 입금계좌 : 국민은행 390401-04-043930 (예금주 : 최재동)
• 전화문의 : 010-4242-7070 / 경남부산 전화문의 010-8563-9377 범철스님 / 사무장 010-5311-5150

주최 _ 동국대학교 정각원 원장 중화법타 합장 주관 _ 통화불교 전강원 경전연구회장 화영법경 합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7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10월 중
◆ 개강일시 : 2014년 10월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 2014년 10월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傳法至上은 불광운동 대변한 독특한 특징"

〈전법지상〉

불광사, 불광 창립 40주년 기념 세미나



9월 27일 열린 불광 창립 4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는 불광운동의 역사와 함께 방향 제시가 이뤄졌다.

잠실 불광사가 불광 창립 40주년을 맞아 9월 27일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창립자인 광덕 스님의 사상과 불광운동 40년을 돌아보고 미래 전법운동에 더 매진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은 " 전법사상이 잉태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불광운동의 사상적 원칙을 다시 점검하고 미래 전법비전을 다시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진 세미나는 광덕 스님의 초창기 불광운동에 대한 회고를 시작으로 근현대 발전상, 미래 발전방향 모색으로 진행됐다.

먼저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는 '광덕큰스님의 향기와 뜻을 기리며' 기조발제를 통해 자신이 직접 만난 광덕 스님을 회고했다.

방영준 교수는 "나이가 들수록 더 또렷이 기억난다"며 "광덕 스님을 미남 중의 미남였으며, 목소리는 청아한 서울말로 새소리 같았다"고 떠올렸다. 또 이론보다 실천을 강조하는 혁명가이자 회사를 경영하는 CEO의 모습을 지녔고, 기도를 강조해 이지적이기만 할 것이란 선입관을 깨뜨렸다고 고백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광덕 스님의 불광사상이 현대 한국불교의 대중화를 이끈 용성 스님의 대각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정희 서울대 강사는 "여러 문헌을 통해 볼 때 광덕 스님은 용성 스님의 사상을 높이 평가했고, 특히 대중포교를 위한 독립교당 설치와 경전의 한글화 등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덕 스님은 불교의 생활화와 교단의 조직화 등에서 훨씬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방영준 "광덕 스님 이론보다 실천 강조"
김정희 "용성 스님 대각사상에서도 영향"
김광식 "월간 불광과 불광법회로 대중화"
서재영 "불광운동은 구국구세 차원 운동"

김 교수는 "대중들이 삶 속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방안을 제시해 불교의 생활화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용성의 역경이나 저술활동에 비해 보다 발전된 면모를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식 동국대 교수는 소천 스님의 금강경 독송 구국운동에 참여한 광덕 스님이 그 실천성과 운동성을 반야바라밀운동에 투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운동의 근거조직과 대중화에 미진했던 점은 〈월간 불광〉과 불광법회를 통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용성 스님의 대각사상과 소천의 각 · 활동사상과 불광운동의 상관성이 그려져야 한다"며 "광덕 스님의 사상을 하나의 개념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서재영 불광연구원 상임연구원은 이에 대해 "불광운동은 전법지상의 이념을 실천하는 신행조직인 법등에 의한 자발적인 실천활동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며 "광덕 스님에게 전법은 단위 사찰이나 교단 차원이 아닌 구국구세의 개념으로 확장되며 전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공생공영으로 귀결된다"고 정의했다.

서 연구원은 "따라서 불광운동에 동참하는 불자들은 누구나 전법에 나설 의무가 주어진다. 이처럼 전법지상은 불광운동을 대변하는 가장 독특한 특징"이라고 말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불광운동은 한국불교의 오랜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그 것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러한 불광사상의 연구에 있어 그 실천에 대한 체험적 통찰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금 우리들에게는 광덕 스님과 같이 당대의 절망 속에 목숨을 걸고 광명을 갈구한 생존적 동기가 없으며, 동포구원이란 사회적 문제의식, 책임의식이 부족하기에 그 한계를 살피고 발전방향을 찾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미술연구 조사보고집 발간


고려불상으로 밝혀진 '덕수953' 불상

국립중앙박물관은 2012년부터 실시한 목조불상 조사사업의 결과와 2005년 이후 실시된 보존처리 내용이 담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불교조각 조사보고 Ⅰ'을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목조불상 5점과 소조불상 1점 등 개별 유물에 대한 실측도면과 X-ray 사진, 수종 분석과 연대측정, 성분 분석 등 상세한 조사 결과가 수록됐다.

특히 덕수 953번 목조관음보살좌상은 그동안 조선 초기 불상으로 알려졌으나 조사 결과 고려시대 목조관음보살상으로 밝혀졌다.

박물관은 "이왕가박물관이 소장하다 이관된 불상을 정밀하게 조사했더니 양식이나 제작 기법, 머리와 몸체에서 발견된 복장물, 탄소 연대 측정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고려 13세기 불상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려 목조불상은 안동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등 10점 정도만이 남아있다.

이 불상은 오른쪽 다리를 굽혀 세우고 왼쪽 다리는 아래로 내린 유희좌(遊戱坐) 자세의 목조보살상이다. 높이는 67.65㎝. 머리에서는 제작 당시 넣은 고려 시대 '대수구다라니경(大隨求陀羅尼經)' 판본이 발견됐다.

노덕현 기자

'불교문인 역할 기여' 불교문학심포지엄

한국불교문인협회(회장 선진규)는 10월 4일 서울 낙산묘각사 원통보전에서 제23회 불교문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현대문학사에 끼친 불교문인들의 역할과 기여'를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 허병식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연구원은 '불교문화사와 불교문학연구의 재인식' 발제에서 "불교문학이란 개념을 다시 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국문학자들이 주로 좁은 의미에서의 '불교 '문학' 에 주목했다면, 불교학자의 입장은 넓은 의미의 '불교' 문학 '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연구원은 "불교의 유산을 기반으로 삼은 현대문학에 대한 연구는 문화적 과거를 창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한국문화의 저력을 새롭게 확인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의 깨달음, 심리치료의 통찰' 포럼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10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의 깨달음, 심리치료의 통찰'을 주제로 10월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4월에 개최된 불교상담개발원 창립기념세미나 주제 '불교와 심리치료에서 본 소통- 수용, 경청, 공감'을 한 단계 더 심화한 '통찰'을 주제로 개최된다. 세미나 사회는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혜안 스님이, 첫 번째 주제인 '불교에서의 깨달음'의 발표는 글렌뮬렌법사, 토론은 조은수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맡았다. 두 번째 주제인 '깨달음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이해'는 이문성 융학파 정신분석가의 발표와 이중표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되며, 전체토론 좌장은 최훈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겸임교수가 맡는다.

노덕현 기자

남해군 고려대장경 판각유적지 복원 세미나

고산문화재단(이사장 영담)과 남해군(군수 박영일)은 9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남해군 고려대장경 판각 유적지 복원을 위한 정책개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가 '고려대장경의 가치와 유적지 발굴 · 복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이 '고려대장경판은 모두 남해에서 판각됐다', 김미영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조사연구원이 '남해군 고려대장경 판각지 유적 발굴성과와 향후 과제', 이원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이 '관광자원으로서 남해군 고려대장경 판각지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노덕현 기자

"韓中日, 상·장례 정부 지원" 한목소리

생사문화산업연구소 개소 기념 국제 학술세미나서


9월 25일 동국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상장례 사업현황과 불교계의 참여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문화산업연구소(소장 신성현)와 생사문화산업학과는 9월 25일 동국대 학명세미나실에서 '동아시아 상 · 장례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상 · 장례 산업을 주제로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는 최근 20년 동안 동아시아 지역 사회 변화로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상 · 장례 산업의 현황을 조망하고 중국과 일본의 상황을 들어 향후 과제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2000년 생사문화산업학과를 창설한 보광스님과 이명수 보건복지 국회의원, 동국대 장례비지니스를 수료한 프리드 박헌준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신성현 소장을 1부 좌장으로 중국의 왕부자(王夫子) 장사민정직업학원 교수가 발제했다.

왕부자 교수는 발제에서 중국의 장례산업은 1983년 이후 개혁개방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매년 사망자는 1000만 명에 달하고 있어 이 분야 산업의 향후 팽창성을 우려했다.

장사지역의 장례비용은 중국 특유의 체면과 유행 문화 등의 요인으로 한화로 약 2500만원 정도 많은 액수가 소요된다. 이에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 장례 정책이 있지만 아직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이노우에 하루요 동양대 교수는 '일본의 상 · 장례 비지니스의 현황과 과제' 발표에서 일본 사회의 전통 장례의례와 현대사회와의 괴리,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여파에 의한 장례의 개인화와 소규모화 등을 설명했다.

중국, 1983년 개방이후 발전
일본, 장례지도사 자격제 필요
한국, 예를 통해 유족 위무 해야

이노우에 교수는 "소비자 욕구 변화를 감안하여 상 · 장례산업 업자의 등급 부여나 장례지도사 자격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부에서 이범수 동국대 교수는 '한국상 · 장례 산업의 발전과 종사원의 역할' 발제에서 한국 상 · 장례 분야의 종사자의 직업윤리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상 · 장례 산업의 업무는 재화 창출을 최선의 목표로 하는 일반 산업 업종과 달리 '예'를 통해 고인과 유족을 위무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승현 동국대 연구위원은 '장례식장 종사자의 감염관리에 관한 연구'에서 장례식장 종사원들의 건강 보호를 강조했다.

남승현 연구위원은 "사망자 인수 시 감염주의 표시 부착과 시신 체액 관리 등이 중요하며, 개인 위생관리 및 예방접종, 감염관리 교육, 영안실 출입제한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동규 동국대 연구원은 '한국상조산업의 현황과 과제'에서 한국 상조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 결여 현상을 지적하고 상조회사 및 공제조합의 건전성 관리, 장례 상품의 차별화와 다양화를 통한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노덕현 기자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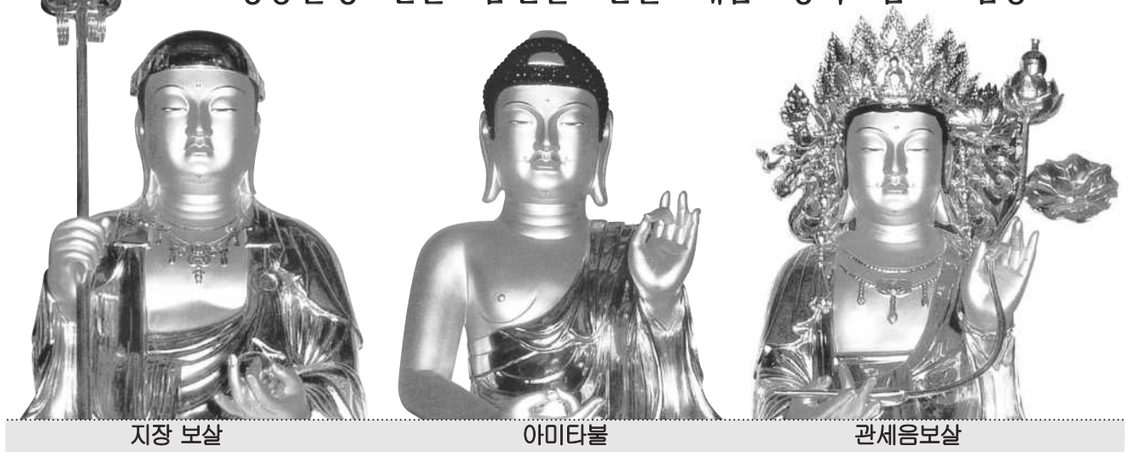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 - 중(흰옥) 가액 ₩6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광주불교계, 비영리지원단체 만든다

광주불교연합회, '빛고을 나눔나무' 11월 창립 예정

지역불교 최초로 불교공동모금단체가 발족한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 증심사 주지)는 지난 8월~9월 2개월 동안 광주지역 사찰과 신행단체를 상대로 부설기관단체인 '빛고을 나눔나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11월 창립대회를 개최한다.

'빛고을 나눔나무' 는 불교단체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로 광주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불교단체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사찰에서 불교단체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불교단체의 중요성은 향후 광주불교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다. 여론조사기관의 신뢰도 조사에서도 국민의 43.3%의 지지를 얻어 2위 종교단체(7.6%)보다 더 신뢰하는 곳으로 조사된 바 있다. 불교단체는 사찰에서 운영할 수 없는 다양한 NGO활동과 사회 · 문화 · 예술 활동 등을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기존 사찰의 역할을 보완하여 불자들의 다양한 종교생활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하지만 광주지역에는 50여개의 불교신행단체가 있지만 대부분 임의단체이고, 실무자를 고용해 사업성과를 내고 있는 단체는 10여개에 불과하다.

이에 빛고을 나눔나무는 불교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 지원단체의 역할도 맡는다. 기존의 불교단체가 포교와 고유목적사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확보하고, 기존 임의단체나 활동이 미약한 불교단체는 적극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지원방법을 계획한다.

11월 창립 앞두고 1080 발기인 모집

1사찰 1단체 목표, 단체설립 지원

내년 상 · 하반기 공모사업 예정



지난 2013년 12월 광주불교연합회가 지역 불교단체인 자비신행회와 공동으로 자비의 연탄나누기 사업을 진행하는 모습

또한 광주지역 사찰에서 불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1개 사찰 1개 단체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된다.

설립준비위는 창립취지문을 통해 "그동안 잠재되었던 광주 30만 불자들의 힘을 하나씩 발굴하고, 이를 엮어 다양한 불교시민단체가 육성되기를 위한 첫 사업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빛고을 나눔나무는 광주불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불사(佛事)라고 강조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 '빛고을 나눔나무' 문영배 기획팀장은 "하반기에 광주불교의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내년 상 · 하반기에는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팀장은 "공모사업은 불교단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한 방법으로, 상반기에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 관련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각 불교단체의 고유 목적사업을 위한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현재 빛고을 나눔나무는 발기인 1080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사회 구성을 위한 인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1월 초 광주불교연합회 정기 총회를 통해 설립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행복한 취업교실서 다문화의 꿈 키우다

호남지역, 다문화가정 취업 교육 높은 인기

착한벗들, 봉제분야 취업 프로그램

광주외국인센터, 희망멘토링 강의

호남지역 불교계가 다문화 가족들의 취업 교육에 나서고 있다.

전북지역 내 다문화가족을 지원해 오고 있는 (사)착한벗들(대표 회일)은 전주시 후원으로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전수해 주는 행복한 취업교실을 열어 결혼이주 여성들의 호응을 얻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2014 행복한 취업교실은 섬유산업이 발달한 지역적 특성과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환경에 맞추어 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한 봉제분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취업활동을 위한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이론교육과 더불어 10월부터는 ITQ한글자격시험반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봉제교육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은 총20명으로 이중 15명이 전 과정을 이수했다.

베트남 출신의 부이티짱(전주시 덕진구)은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되었는데 막상 배워보니 아주 재미있고 보람도 느꼈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배워서 봉제를 활용한 취업이나 부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취업을 원하고 있으나 언어나 기술이 부족해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다.

사)착한벗들 관계자는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원만히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며 "이를 위해 이후 봉제전문가과정을 신설하고 이를 이수한 결혼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봉제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다꿈틔움협동조합(가칭)을 설립,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착한벗들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로 구성된 행복나눔실천단을 운영하며 지역아동센타, 양로원, 장애인 자활 센타 등을 방문해 음식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확대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전북 최초로 지역 내 중도입국자녀의 교육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참좋은 벗들의 봉제교육 프로그램 모습


광주외국인센터 취업멘토링 강의 현장

이와 함께 광주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9월 13~27일 14일 동안 다문화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교육 '취업의 꿈을 이루GO' 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다문화가족의 근로자들에게 '희망 멘토링 캠프' 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들에게 특별교육과 함께 노동부 산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를 통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교육과정에는 △김혁주 송원대 박사의 '성공을 위한 출발' △김선구 광산구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의 '나의직업 도전하기' △정진희 마루복지상담센터 박사의 '나의 미래 스케치' 등이 진행됐다.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에서 8명의 상담요원이 1:1맞춤형 상담을 통해 다문화여성에게 이력서 쓰는 법과 자기소개서 쓰는 법, 직장에서 필요한 소통법 등을 교육했다.

취업교육에 참가한 베트남 출신 황완은 씨는 "이번 강좌가 저를 포함한 다문화여성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꼭 취업을 해서 스스로 돈을 벌고 싶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 35향토사단, 호국 충경사 낙성법회

최근 전주에서 임실로 부대를 이전한 전북의 향토사단인 육군 35사단이 군 법당인 호국 충경사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9월 27일 새롭게 단장한 호국 충경사 대웅전에서 열린 이날 법회에는 선운사 연수국장 법천 스님, 종광 스님, 혜도 스님, 무심 스님 등 선운사 대중스님들과 최창규 사단장, 서성문 대령, 손종수 중령 등 부대 관계자와 불자 장병 800여명이 동참했다.



법천 스님은 법문을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군 부대내 사고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지만 35사단내에서는 사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계율을 지키고 동료 병사들을 배려하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낙성된 호국 충경사 대웅전은 대지 5600㎡(1694평) 건평 961.9㎡(291평) 규모로 800여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요사와 현대식 편의시설을 갖춰 장병들의 신행생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군사회복지시설, '요리 쿡 조리 쿡'

고창군사회복지지설(관장 대원)은 9월 26일 복지관 '꿈꾸는텃밭' 앞에서 가족요리자랑 프로그램 '요리 쿡 조리 쿡' 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복지관 텃밭 사업의 하나로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원생이 키운 농산물을 가족이 함께 수확하여 요리함으로써 즐거움을 주고 요리자랑을 통해 식생활의 중요성 및 건강의식을 개선하고자 진행됐다.

어린이집 원생 34명, 부모 23명 총 57명이 참여한 이날 요리자랑은 꼬꼬마 김밥, 길쭉길쭉 떡꼬치, 세모 네모 유부초밥, 샌드위치 등 다양한 요리가 선보였다. 또 조리한 음식을 서로 나눠 먹으며 서로의 요리를 맛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요리왕에는 고구마 모듬을 선보인 김현우 가족, 한우빈 가족, 정가인 가족, 김아름 가족이 선정됐다. 이밖에 텃밭 활동사진 전시, 식생활개선 홍보, 가족과 함께하는 땅콩수확 등의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대원 스님은 "가족이 함께하는 요리도 의미가 있지만, 아동이 직접 키운 채소, 과일로 요리자랑을 진행해 더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

이상덕 씨는 "요식업을 하면서도 아이와 함께하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아쉬웠다" 며 "이번 요리자랑을 통해 아이가 키운 채소도 보고 요리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 좋았다" 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공주시사암연합회 백제 4대왕 추모 영산재

공주시사암연합회(회장 중하, 신원사 주지)는 제60회 백제문화제 영산대재 및 불교문화전을 9월 27일 금강신관공원 주무대에서 개최했다.

공주시불자연합회 김익희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영산대재에는 서울 봉원사 구해 스님을 비롯한 영산재 보존회회원들이 진행했다. 2부 법요식에서는 중하스님의 대회사, 오시덕 공주시장의 축사, 김익희 공주시불자연합회장의 봉행사가 이어졌다.

이어 공주사암연합회가 제작한 공주 寺址 순례 길라잡이 '잃어버린 깨달음을 찾아서' 책자 봉정식이 진행됐다.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은 법어에서 "오늘 이 자리는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영축산의 법석을 오롯이 이어가는 자리로서 불보살님과 천룡팔부 호법신중이 함께하고 있다" 며 "우리 불자들이 생명을 소중히 살피고 살리는 거룩한 공덕이 쌓여 성불의 큰 인연을 짓고, 시방의 유무주 고혼들은 극락왕생하고, 괴롭고 힘든 모든 중생들은 현세의 고통을 잊고 불 국토에서 기쁨과 안락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주시 연합합창단의 반야용선, 희망의 나라로의 축가와 불교전통무용 등이 이어졌다.

백제 4대왕 추모 영산재는 역대군왕과 나라를 위해 싸우다 산화해간 수많은 무명 장졸들의 영가를 천도하기 위해 백제문화제를 기해 공주시사암연합회가 매년 봉행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문화축제로 거듭난 통도사 개산대재

10월 2일 개산 1396주년 기념 영축문화축제 봉행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가 개산 1396주년을 기념해 영축문화축제를 10월 2일 봉행했다. 영축문화축제는 개산대재를 맞아 창건 대종사인 자장율사를 기리고 통도사의 창건과 앞날의 도약을 발원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펼쳐지는 연례행사다. 해마다 많은 신도들과 양산 시민들이 대거 참여해 지역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통도사는 통도사의 전통 맥을 계승한 역대 대덕스님들을 기리기 위해 부도전에 헌다를 올리는 '부도헌다례' 로 개산대재의 막을 열었다.

또한 경내 성보박물관에 모셔져 있던 괘불탱화를 통도사 고유의 전통의식으로 대웅전 괘불대 앞으로 이운해 개산대재일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이어진 개산대재 영축문화축제 법요식에는 육법공양, 헌향과 헌다, 자장율사 행장 소개 등의 순서로 자장율사의 업적을 기리는 의식이 봉행됐다. 또한 향후 통도사의 발전을 위한 영축장학금 총 5천 660만원이 본사 재적승 56명에게 전달됐다. 또한 양산시와 통도사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이들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되기도 했다.

주지 원산 스님은 봉행사에서 "오늘은 불지종가 국지대찰인 통도사의 창건을 기리는 날이다. 자장대사의 계율 정신이 이어져 오고 있는 통도사에는 강원, 율원, 선원, 염불원 등에서 각각 맹렬히 정진하고 있는 스님들이 있다. 앞으로도 자장대사의 투철한 지계정신을 지키고 역대 큰스님들의 청백가풍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개산 1396주년을 기념한 영축문화축제를 10월 2일 개최했다.

5세~13세 어린이 수계식도 가사 친견 1년에 한번 공개

고영립 통도사 신도회장은 "영축문화축제는 불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과 더불어 모두가 불법홍포와 깨달음의 길로 가는 여법한 축제이다. 이번 개산대재를 통해 불교의 가르침이 우리 삶 속으로 좀 더 친근하게 스며들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영축문화축제는 10월 1일~5일 다채로운 행사 및 체험 부스들이 준비된 가운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행사들이 마련됐다. 통도사는 작년까지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만발공양 및 위로공연 등으로 소외된 이웃과 어르신들의 표교에 진력했으나 올해부터는 5세~13세를 위한 어린이 수계식과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다문화 공연 등으로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사찰에 대한 친근감을 심어줬다. 이는 주지 원산 스님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유년기에 불교의 계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훗날에 신심 있는 젊은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양성되길 바라는 서원에서 추진됐다.

또한 경내 성보박물관에서는 개산대재일에 맞춰 석가여래와 자장율사의 친착 가사를 전시해 불자들이 친견할 수 있도록 했다. 통도사의 가사 친견은 1년에 한번 개산대재 축제 동안만 공개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연등 만들기, 차 명상 등 다양한 체험코너를 둘러보던 이은주(48) 신도는 "개산대재를 맞아 영축문화축제에 참여하게 됐는데 역시 불지종가 통도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도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어머니의 품과 같은 따뜻한 도량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통도사는 이번 어린이 수계식을 시작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포교 활동에 진력할 방침이다.

김나영 객원기자

소외된 이웃 생각하는 차담 '훈훈'

영도구불교연합회 및 신도회 하루찻집 한마음선원서 열어


부산 영도구불교연합회와 영도구불교연합신도회가 소외 이웃을 위한 일일찻집을 9월29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서 열었다.

부산 영도구불교연합회(회장 호법)와 영도구불교연합신도회(회장 김희윤)가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일일찻집을 9월29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에서 열었다.

'관음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 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운영된 이번 하루찻집은 한마음선원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밤9시 30까지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영도구신도회가 발족되고 처음 갖는 행사로 승가와 재가가 함께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영도구불교연합회장 호법 스님은 "영도구불교연합회와 신도회가 어려운 이들에게 회향하는 의미 있는 행사를 마련해서 기쁘다. 오늘의 하루찻집은 서로를 더 알아갈 수 있는 자리이자 소외된 이웃들을 생각하는 자리"라고 전했다. 이어 김희윤 영도구불교연합신도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무료급식 등에 쓰일 예정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는 불자님들과 스님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날 하루찻집에는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미룡사 회주 정각 스님, 태종사 조실 도성 스님,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 등 대덕 스님들이 대거 참석해 영도구연합회와 신도회의 자비행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수익금은 영도구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김나영 객원기자

금정중에 교육발전기금 6천만 원 쾌척

금정학원 신임 이사 발전기금 전달


부산 금정학원(이사장 홍선) 신임 이사 화랑 스님과 탄준 스님이 발전기금 총 6천만 원을 전달했다.

불교계 설립 학교법인 부산 금정학원(이사장 홍선)의 신임 이사 화랑 스님(동명불원 주지)과 탄준 스님(법해사 주지)이 금정중학교의 참된 교육을 위해 발전기금 총 6천만 원을 9월 29일 학교 측에 전달했다.

이사장 홍선 스님은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훈육하는 것이다. 이사로 활동하다 보니 학교들이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렇게 금정학원 신임 이사 스님들이 큰마음을 내서 기쁘다"고 전했다.

탄준 스님은 정진완 금정중학교장에게 5천만 원을 전달하며 "교육에 항상 뜻이 있었다. 앞으로도 큰 스님들의 뜻을 잘 따라서 청소년 교육 및 포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화랑 스님은 전달식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탄준 스님에 앞서 천만 원을 기부해 금정중학교 주차장 확장에 큰 힘을 보탰다.

이에 금정중학교장은 탄준 스님과 화랑 스님을 대신한 이사 정현 스님에게 감사패를, 이사장 홍선 스님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전달된 발전기금은 금정중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해외 인적 교류, 다양한 체험활동 등에 쓰일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범어사 부주지 범산 스님, 법륜사 회주 선래 스님 등 금정학원 이사들이 참석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은해사 템플스테이 수련관 개원대법회

지상 2층 규모의 다용도 시설 갖춰


은해사가 템플스테이 수련관 개원대법회를 9월 27일 열었다.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주지 돈관)가 창건 1205주년 개산대재, 템플스테이 수련관(관광문화센터)개원대법회를 9월 27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중앙종회의장 향적 스님, 용주사 주지 성월 스님 등이 참석했으며 은해사 조실 혜인 스님, 회주 법타 스님, 주지 돈명 스님 등이 참석했다.

사부대중 3천여명이 참석한 행사에서는 은해사 부도전, 조사전에서 개산조 혜철 국사와 역대조사 다례재 등을 거쳐 개관식을 가졌다.

관장 돈관 스님은 "은해사 템플스테이 수련관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계 여러 단체 및 신행단체를 비롯해 공무원, 군부대, 학교, 기업체 등의 단체 힐링 캠프 및 연수회를 적극 유치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템플스테이 개관으로 현대인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참 나를 찾을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주는 뜻 깊은 공간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격려했다.

'관광문화센터(템플스테이 수련관)' 는 연면적 654.54평에 2층 한옥 건물로 1층에는 사무실, 휴게실, 소강의실, 작은방 8개, 큰방 2개와 화장실, 샤워실을 갖추고 있으며 지상 2층에는 설법전, 원장실, 강사실, 다용도실을 갖추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환희불교복지대학 개강

9월 26일 환희노인요양원서

불교 호스피스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늘기쁜마을(이사장 지현)산하 환희불교복지대학(학장 지현)이 제32기 호스피스 교육과정을 개강했다. 9월 26일 환희노인요양원에서 개강식 및 특별강연회를 마련한 환희불교복지대학은 발원문 낭독, 인사말, 합창단 공연 등의 순서로 43명의 제32기 수강생들의 출발을 축하했다.

학장 지현 스님은 "평온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관세음보살이자 지장보살"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제32기 신입생들은 9월 30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매주 화 · 금요일 2시부터 3시간 동안 호스피스 실무 및 불교 교리 등 전문적인 불교 호스피스 수업을 2개월 동안 수강하게 된다.

김나영 객원기자

선지 스님 대구불교사원주지聯 12대 회장 취임

9월 26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서 이취임식


선지 스님 회장 이취임식 장면

대구 통천사 주지 선지 스님이 9월 26일 인터불고호텔 별관에서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 제12대 회장 겸 (사)마하야나불교문화원 제9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대구불교총연합회 회장 성문 스님과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 이재근 신도회장, 이계영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총장 등 지역기관, 단체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해 취임을 축하했다.

선지 스님은 취임사에서 "원로 대덕스님들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아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열과 성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는 이취임식에 앞서 쌀4천400kg을 지역무료급식소와 사회복지시설 15여 곳에 전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단, 1번의 기도로
당신의 사주를 확 바꿀 수도 있다

NAVER DAUM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약사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중생제도하실 분
모든 기술 전수. 서울, 경기지역 포교원 원장님 모십니다.
최면술 / 퇴마술 / 기공술 / 자극요법술 전수생 모집 중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빙의 퇴마 최면연합회본부
경남 양산시 원동면 내포음달길 19

대한불교 약사불종 약천암
자연치유원

천혜의 자연환경
토곡산의 정기로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부산역 상담센터
상담 / 문의 1899-8108. 010-9229-3801

가을이 기다려지는 문수보살 상주 도량

기도사찰을 찾아서

② 고창 문수사(문수도량)



신비로움을 간직한 문수사 숲길과 불이문. 문수사는 조선시대 불교서적이 발간될 정도의 대찰이었다. 지혜를 얻는다는 문수신앙의 상징으로 근현대 정관계 인사들도 많이 찾은 곳이다.



문수기도의 성지인 문수전 전경.



청량산 자락의 문수사는 가을에 더 아름답다.

지난 밤 내린 비로 인해 기온이 뚝 떨어졌다. 가을의 문턱에선 나무들의 가을 준비가 부산하다. 여름 동안 짙푸른 신록을 뽐내던 문수사 단풍나무들도 가을 옷을 갈아입을 준비를 마쳤다.

문수사가 자리한 청량산은 문수산이라고도 불린다. 이웃한 전남 장성에서는 축령산 혹은 취령산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축령산이나 취령산은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던 영축산에서 따온 이름이고 청량산이나 문수산은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도량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청량산은 해발 620m 남짓한 작은 산이지만 노령산맥의 중심부에 있어 남으로는 전남 영광, 동으로는 장성, 북으로는 정읍의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다. 때문에 산 정상에 서면 서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빼어난 장관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곳에 자리한 문수사는 오대산 상원사, 울산 문수암과 더불어 자장율사가 창건한 우리나라 3대 문수도량으로 꼽힌다.

643년 자장율사가 창건했다고 사적기는 전한다. 자장율사는 당나라 유학 중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귀국길에 이곳을 지나다가 산세와 수세가 중국의 청량산과 닮아 있어 문수산 기슭의 암굴(暗窟)에서 7일 기도를 올리던 중 문수보살이 땅 속에서 솟아오르는 꿈을 꾸고 그곳을 파보니 화강석의 장대한 문수보살상이 나왔다. 여기에 그 화강암을 둘러쌓아 문수전을 만들고 절을 지어 문수사라 일렀다고 전해진다.

조선 초기 대찰 면모 곳곳서 드러나

고구려, 백제, 신라가 대립하던 시기에 신라스님이 백제 땅에 절을 창건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지만 당시 전쟁으로 피폐해진 삼국의 사람들은 무엇보다 문수보살의 지혜가 절실하였을 것이고 문수보살의 지혜를 염원한 이들에 의해 문수신앙이 활발하게 일어났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문수사는 고려시대 이전의 역사는 전해지지 않아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축령산문수사 중건사적' '문수사 한산전 중창상량문' '축령산 문수사 내원초 창상량문' 을 통해서 조선시대의 역사는 알 수 있다.

이 사적기들을 종합해보면 1607(선조40)년 에 중건했다고 하나 자세하지 않고 1653(효종4)년 성오대사와 상유스님이 대웅전을 중판함고 동시에 대웅전의 삼존불을 조성하고 명부전, 시왕전 단청불사를 했다.

그 후 1764(영조40)년에는 신화, 쾌영 두 스님이 선운사로부터 이주하여 중수하고 양진암도 대웅전을 중수하면서 창건했다고 한다.

그 후 1835(현종1)년 당시 문수사 주지였던 우홍스님이 2차 중수하였고 1876년 고창현감 김성로의 시주로 묵암스님이 중수했다는 기록이 있다.

문수사에서 발간한 1411(태종11년)에 간행된 '대전화상주심경' 과 1424(세종6)년에 간행된 '영가진각선사증도가' 와 1534(중종29)년 에 간행된 '법화영험전' 의 목판본이 발간된 기록으로 보아 숭유억불정책으로 불교가 쇠퇴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지방 산골 사찰에서 불교관련 서적이 발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조선 초기 문수사의 규모가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청량산 닮은 곳에 자장율사가 창건
숭유억불 시대에도 불교경전 발간한 곳
신비로운 분위기 풍기는 단풍나무 숲 유명

이를 증명하듯 문수사 건너편 계곡너머에는 2곳의 부도밭이 존재하고 있어 당시 많은 스님이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상징하는 문수보살의 영험에 힘입어 과거에는 일반인들도 각종 고시 공부를 위해 고창은 물론 영광, 장성, 정읍등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 문수사를 찾았다고 한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정 · 관 · 재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유명 인사들도 이곳을 거쳐 간 이들이 많다고 전한다.

원숙한 아름다움의 단청과 단풍 '일품'

좁다란 절 마당으로 들어서면 대웅전, 명부전, 만세루, 금륜전이 ㅁ자 모양으로 서로 마주보고 서 있다. 동쪽을 바라보고 서 보이는 대웅전은 예전엔 화려한 빛을 보였을 빛바랜 단청이 원숙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대웅전 뒤편의 문수전은 친근하고 후덕한 얼굴의 문수보살상이 남쪽의 문수산 정상을 바라보고 서있다.

둥글고 소박한 모습의 문수보살은 스님의 형상을 하고 있다. 여느 문수보살이 어린 동자의 모습이나 보살상을 하고 있는 모습과 달리 스님의 모습과 영락없이 닮아 있다.

문수전 뒤편 단풍나무 숲속에는 자장율사가 기도했다는 자장굴이 지금도 남아 있지만 안전사고를 우려해 지금은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대웅전 앞마당 문수전 가는 길에는 지혜의 물을 상징하는 맑은 샘물이 흐른다. 문수보살의 지혜를 상징하는 용지천이다. 이 샘물은 사시사철 일정한 수량을 유지하고 한겨울에도 어김없이 흘러나온다.

사실 문수사는 문수보살보다 단풍으로 더 유명세를 타고 있다.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웃의 선운사, 내장사, 백양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100~400년생 단풍나무 수백 그루가 자생하는 군락지이며 2005년도에 천연기념물 제463호로 지정된 아름다운 곳이다.

일주문에서 문수사 경내까지는 걸어야 제격이다. 걷다보면 만나는 아름드리 아기단풍나무들과 800m에 이르는 숲길은 진초록 단풍이 비 냄새와 나무냄새가 섞여 어느 향수보다도 더 향기로운 냄새로 유혹한다.

종교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열린 마음으로 걷다보면 거기서 만나는 아름다운 풍광과 문수보살의 지혜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마음을 열고 나무들과 서로 교감하고 사색하며 걷다보면 세속의 번뇌는 사라지고 새털같이 가벼워진 머릿속은 문수보살의 지혜로 가득 채워진다.

고창 문수사=조동제 전북지사장

주변 둘러볼만한 곳

▲선운사

선운산도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백제 위덕왕이 창건한 선운사는 보물 290호인 대웅전과 보물 279호인 금동보살좌상 등 19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축령산 휴양림

전북 고창과 경계를 이룬 축령산(621.6m) 일대에는 4~50년생 편백과 삼나무 등 늘 푸른 상록수림대 1,148ha가 울창하게 조성되어 있어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독립운동가였던 춘원 임종국 선생은 6?25동란으로 황폐화된 무입목지에 1956년부터 21여 년간 조림하고 가꾸어 지금은 전국최대조림 성공지로 손꼽히고 있다. 편백나무는 스트레스를 확 풀리게 하는 피톤치드라는 특유한 향내 음이 있어 삼림욕의 최적의 장소로 널리 홍보되어 특히 국 · 내외 단체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유명하다.

축령산 입구 괴정 마을에는 민박촌과 관광농원이 조성되었고, 산 중턱에 40여명의 동자승들이 수도하는 해인사의 진풍경, 산 아래 모암마을에는 통나무집 4동이 있어 체험하고 체류할 수 있는 관광을 즐길 수 있고, 휴양림을 관통하는 임도를 지나가면 태백산맥과 내 마음의 풍금을 촬영하던 금곡영화촌이 연결되어 있다.

인터뷰 – 문수사 주지 태효 스님

"기복 아닌 참 문수신앙 정립에 나설터"



태효 스님은 단풍나무 숲 지킴이로 더 이름이 알려져 있다. 문수사 단풍나무 숲이 2005년 9월 문화재청에 의해 천연기념물 463호로 지정되기까지 태효 스님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고기를 구워먹는 사람들과 나뭇가지를 꺾어가는 사람들 틈에서 단풍나무를 지키기 위해 멱살을 잡힌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8년간의 노력 끝에 2005년 단풍나무 숲을 문화재청으로 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받았다. 지금도 고창사람들은 문수산의 등산로를 개방하라고 아우성이지만 스님은 등산로를 개방하지 않고 있다. 덕분에 문수산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원시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스님은 "숲에 불이라도 나게 되면 100~400년 된 노거수들이 모두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며 숲을 찾는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도 고창군에서 사륜오토바이 체험장과 펜션을 건축하려다 스님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스님은 아울러 "지역의 또 다른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 숲의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발전을 위해 행정과 교감을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관음, 지장신앙에 밀려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문수신앙을 확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단지 입시 기도나 시험 합격 기도에 국한된 문수신앙이 아닌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고 지정한 깨달음을 향해 가는 구도자로서의 문수신앙 재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진신사리서 옛 구법승 자취를 보다



신성민 기자의 중국 실크로드 불교 유적 순례기

① 서안 법문사

중국 서안(西安)의 옛 명칭은 장안(長安)이다. 일반적으로 실크로드의 시작점을 서안으로 잡는다. 중국의 특산품인 비단이 이곳을 기점으로 서양에 전해졌다. 실크로드는 불법 전파의 통로이기도 했다.

서안에서 시작된 실크로드를 수많은 동북아 구법승들은 인도로 가는 길로 활용했다. 지금은 키르기스스탄까지 5500km의 고속도로가 놓였지만 옛 구법의 길은 험난하기 그지 없었을 것이다.

문헌에 따르면 740명의 구법승들이 불법을 구하기 위해 인도로 떠났고, 생환해 돌아온 구법승은 63명, 전체의 8.5%에 불과하다. 공부를 마치고 나이가 들어 돌아오지 못한 구법승들을 감안해도 실크로드를 통한 구법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인지 실크로드로 이어지는 중국 곳곳의 도시에는 대규모 불교 유적이 많다. 중국 서안도 마찬가지다. 서안에는 법문사를 비롯한 대자은사, 흥교사 등 대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법문사는 당대(唐代)부터 부처님 진신사리를 공양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법문사는 서안에서 서쪽으로 1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현재 법문사는 매우 크게 중창돼 있다. 본래 사찰 규모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기 위한 현대적 보궁이 추가로 마련됐으며, 그 규모는 매우 웅대하다. 법문사 주차장에서 내려서 법문사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운행하는 차량으로 이동해야 한다. 물론 걸어서도 갈 수 있다. 다만 더운 볕을 이기고 대리석에 올라오는 열기를 참으며 30여 분 이상을 꼬박 걸어가는 고행을 참을 수 있다면.

차량으로 이동하는 길 옆에는 대형 불보살상들이 조성돼 있다. 현재 법문사를 살펴보면 사찰보다는 커다란 현대적 불교 공원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현재 중국이 불교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법문사의 옛 사격 이외의 화려한 현대 시설은 새롭게 불사한 것으로 어마어마한 정부 투자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의 정치 체계상 정부에 종교가 예속돼 있어 이 같은 현대 시설이 정부의 세력 과시용으로 보여지는 느낌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반대로 살펴보면 법문사는 예로부터 중국 황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법문사가 건립된 시기는 공식적으로는 후한 시대(147~189)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고 있지만 그 연원은 아쇼카왕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부왕의 신임을 받지 못했던 왕자 아쇼카는 101명의 형제 중 99명을 살해하며 왕좌를 차지했다. 이후 대제국을 세운 그는 수많은 살생에 대해 참회하고 불교에 귀의했다.

이후 아쇼카왕은 제3차 결집을 후원했으며, 중국에 스님을 보냈다. 스님들은 부처님 진신사리 19과를 가지고 중국에 왔지만 당시 불법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었다. 결국 스님들은 훗날을 기약하며 사리를 시안 인근인 성총에 묻어두고 그곳에서 수행하다 입적했다. 이후 안식국의 왕자이자 동아시아의 걸출한 역경가였던 안세고가 중국에 들어와 서안 성총에 머물렀다. 그러던 중 안세고는 오색 광채가 북두칠성까지 뻗어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자리를 파보니 7개의 푸른 벽돌에 쓰인 산스크리트 문장과 함께 진신사리가 있었다. 그 사리 중 부처님의 손가락 사리를 모신 곳이 법문사의 전신인 아육왕사(阿育王寺)다.

법문사의 최고 전성기는 당나라 때이다. 당시에는 5000명의 승려가 수행을 했으며 30년에 한번 씩 부처님 진신사리탑을 개방

부처님 지골사리 봉안처로 유명세
1987년 진신사리탑 보수공사하며
사리 발굴… 2005년 한국서 전시
唐代 황실 주도로 사리공양 활발
"신라 구법승 참여 있을 것" 추정



1. 법문사 진신사리탑. 1986년 반파된 탑을 해체 보수하던 중 탑 아래에서 지하궁이 발굴됐으며, 이 안에서 지골사리 4과 등 국보급 문화재 300여 점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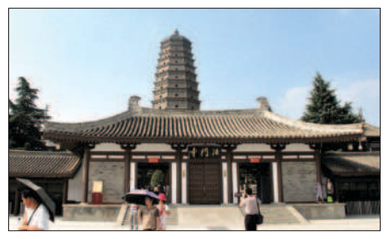
새롭게 만들어진 법문사의 보궁. 멀리서도 그 위용이 대단하다.



부처님 지골사리. 당나라 시기에 가장 많은 공양이 이뤄졌다.



법문사 일주문 앞 향로에서 향공양을 하고 있는 중국불자들.



법문사 입구 전경. 멀리서도 진신사리 탑이 보인다.

했는데 그 때마다 풍년이 들고 사람들은 화목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법문사에서 황제가 있는 시안으로 지골사리를 이운할 때면 그 길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심지어 황제도 엎드려 절을 올렸다고 한다. 하지만 당나라가 패망하면서 법문사는 쇄락의 길을 걷는다. 또한 1568년 지진으로 인해 진신사리탑은 무너졌다. 1579년에 이르러서야 현지 사람들의 불심으로 성금이 모연돼 탑이 중건됐다. 이 때 건축된 것이 8각 9층 전탑(벽돌탑)이다.

영욕의 세월을 견뎌온 법문사를 현재의 대찰로 발전시킬 수 있던 것은 바로 부처님 지골사리 때문이다. 최고 전성기 시절 법문사의 사리공양은 유명했다. 북위부터 당에 이르기까지 황제의 부처님 지골사리의 영봉은 9번 이뤄졌으며, 그 중 7차례가 당나라 시기 법문사에서 봉행됐다. 그만큼 지골사리 참배는 일반인들에게는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귀중한 행사였다.

하지만 당나라 황제 의종은 법문사 진신사리탑 지하에 지하궁전을 만들고 그 안에 지골사리를 봉안하고 지하궁전은 밀봉해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다. 그 후 부처님 지골사리는 전설로 전해져 중국인들에게 내려왔다.

지하궁전의 존재가 드러난 것은 최근에 와서다. 1976년 장마에 조금씩 붕괴되던 진신사리 전탑은 1981년 8월 폭우로 한쪽이 무너져 내렸고, 결국 중국 정부는 1986년 탑을 완전 해체하게 된다.

해체와 함께 발굴을 시작한 중국 정부는 탑 아래 지하궁전을 발견하게 된다. 이곳에서는 전설로 내려 온 지골사리 4과와 함께 백옥으로 정교하게 만든 아육왕탑, 금으로 만든 봉진신보살(捧眞身菩薩), 중국 여황제 측천무후의 자수치마, 온갖 금관과 은곽, 비취색 자기, 금으로 만든 석장(錫杖) 등 300여 점의 문화재가 쏟아졌다.

중국은 이곳을 1급 문화재로 지정하고 대대적 보수를 거쳐 1988년 진신사리탑을 중건하고 박물관 등을 새로 지어 일반에 공개했다. 2005년에는 법문사의 지골사리가 한국으로 봉송돼 서울과 부산에서 전시되기도 했다.

당시 조계사에서 이뤄진 봉안식에서 故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진신사리는 부처님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친견하면 마음에 신심이 절로 나고 또 모든 업장을 녹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며 "한중 양국의 우호증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대에서도 진신사리를 봉송해 친견하게 하는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듯 최고 전성기 시절 법문사 사리공양에 구법승들의 참여는 없었을까? 이를 증명하는 기록은 현재까지 나오지 않지만 아예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이르다.

전중배는 회당학보 10집에 기고한 '당대(唐代) 한 · 중 불교교류' 제하의 논문에서 법문사 사리공양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했을 구법승들을 추정했다.

전중배는 측천무후 당시 이뤄진 법문사 사리공양회를 주목했다. 측천무후의 두 번째 사리공양회를 주도한 것은 법장과 문강스님이다. 특히 법장 스님은 구법승이자 우리나라 화엄종 시조인 의상 스님과의 교우가 두터웠는데 둘은 지속적으로 서신을 교환했으며, 의상은 당으로 가는 승려 효충을 통해 금을 보내기도 했다.

전중배는 "의상과 법장의 지속적인 교유관계 속에서 당대의 불구와 불교의식이 신라에서 계속적으로 전해졌다"면서 "〈불조통기〉에는 850년 신라의 승려가 법문사 탑을 도굴하려다 실패했다는 내용이 있는 등 9세기 중엽까지 신라 불교계에 법문사 사리의 명성은 널리 알려져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엔닌(圓仁)의 〈입당구법순례기〉에는 법문사 사리공양 행사에 장안에 체류하고 있던 구법승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종남산 일대에서 수행하고 있던 한국의 구법승들의 참여와 참배도 쉽게 이뤄졌을 것이다.

험난한, 어쩌면 돌아오지 못할 구법 여정의 시작. 당나라 시기 구법승들은 법문사의 지골사리를 보며 무엇을 느꼈을까. '법을 위해 자신의 몸을 잊는다'는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정신을 다시 새겼을까. 하늘로 뻗어있는 탑신을 보며 가늠해볼 뿐이다.

motp79@hyunbul.com

이 기사는 조계종 교육원 연수교육의 협찬으로 격주 연재됩니다.

영산불교 현지사 영산불교대학 -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로 불교이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다

21세기의 나란다 불교대학 '영산불교대학', 560명 불자들이 신심(信心)과 정견(正見)을 연마하는 한국 최고의 불교교양대학



영산불교대학 수업장면

■ 2014년 입학생 560명 감로의 정법으로 신심을 불태우다 : 최고 교수진의 열강, 불자들의 열화같은 호응

영산불교대학은 많은 불자들의 요청에 의해 2010년 3월에 개교한 이래로 해마다 불자들의 열화같은 호응과 성원으로 매 학기마다 수강하는 불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제주분원에서 불교대학을 개원하였고 2014년부터는 국내외의 불자들의 요청에 의해 통신강좌도 개설하였습니다. 현재 등록하여 수강하고 있는 학생 수는 560여 명에 달하고 앞으로 2~3년 내에 1000여 명의 불자들이 공부하고 수행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불교대학으로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영산불교대학에서는 불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과목과 정법에 정통한 우수한 강사진의 열강을 통해 방대하고 심오한 부처님 법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세계불교를 이끌어갈 수준 높은 불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 세계 어느 불교대학에서도 배울 수 없는 불법의 정수 : 세계불교를 쇄신시킬 정법의 가르침

영산불교대학은 〈아함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등 경전 학습을 기초로 해서 두분 큰스님께서 저술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1,2〉에서 밝힌 우주적 진리인 신불교 교학을 체계적으로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32상 80종호를 갖춘 빛의 인격체로서 시공과 유무를 초월한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신다는 부처님 실존론 ▶인간의 본체이며 윤회주체인 인간 영혼체의 깊은 비밀과 실체를 밝힌 인간 본체론 ▶사후에 가는 지옥 · 천상 등 윤회세계와 극락 등 해탈세계의 실존과 정확한 실상을 밝힌 윤회 · 해탈론 ▶인간과 우주만물 탄생의 지고한 비밀을 인류사상 최초로 밝힌 우주론(공아자성기론) ▶불보살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정통수행법인 타력중심의 팔정도칭명염불 수행론 등입니다. 특히 불과를 증득하신 두분 큰스님께서 전하는 부처님세계의 소식과 부처님 말씀을 불자들에게 생동감 있게 전해드립니다.

■ 영산불교대학의 교육목표 : 세계불교를 이끌어갈 신심과 정견을 갖춘 불자 양성

지금의 세계불교는 부처님의 '무아론(無我論)'을 잘못 해석하여 인간본체인 영혼체의 존재도 나아가 부처님의 실존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불보살이 되는 정통수행법도 없는 3무불교(三無佛敎)로 왜곡되고 왜소화되어 버렸습니다. 영산불교에서는 2000년 이상 왜곡되어온 이 무아론을 바로잡아, 무아는 인간 영혼체를 부정한 교설이 아니라, '현상계의 나(我)의 실체없음'과 '나(我)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야 함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불자 여러분들에게 '영혼체 윤회론'이라는 신교설을 불교사상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부처님의 실존에 대해서 기존 불교의 추상적인 '불신론(佛身論-삼신론)'을, 불과를 증득한 두분 큰스님의 수행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쉽고 구체적으로 강의합니다. 이를 통해 부처님께서 '무아속 절대계(연화장세계)'에 여여히 계심을 증명하여 불자들의 신심을 증장시키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종(禪宗)의 영향으로 '마음이 부처'라는 잘못된 교설에 익숙해져 있고 또 방대한 8만장경의 숲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우리나라 불자들에게 영산불교대학은 정견과 신심을 확고하게 정립해드립니다. 영산불교대학을 통해 우리나라와 세계의 불교를 이끌어갈 수준 높은 불자들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2013년 4학년 졸업식

■ 2600년만에 내리는 감로의 정법 : 완성된 만자(滿字)의 가르침

초기불교는 부처님 재세시의 직접 교설을 담은 아함부 경전의 가르침으로서 생천(生天) · 해탈(아라한) 중심의 기본 가르침이고, 〈열반경〉에서 말하는 반자(半字)의 가르침입니다. 대승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구도에 따라 사바세계에 몸받아온 붓다의 화신들께서 쓰신 대승경전 중심의 가르침으로서, 초기불교 보다 한 차원 높지만 불완전한 가르침입니다. 영산불교 신불교는 현지사의 광명만덕 · 자재만현 두분 큰스님께서 불과를 증득하시고 부처님 보신불이신 노사나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수받아 펼치는 21세기 지금 이 시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세계불교계의 왜곡되고 왜소화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대승경전에서 미비된 교설을 보완한, 삼계를 벗어난 보살 붓다됨을 목표로 하는 완성된 만자(滿字)의 가르침입니다. 불자 여러분! 영산불교대학에서 우주적 진리인 신불교의 만자의 가르침을 만나보십시오.



졸업식 장기자랑

출가 : 청정한 수행의 길, 윤회생사를 벗어나는 길
지금 현지사로 젊은 인재들이 출가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참선수행을 열심히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지사를 만난 이후 염불이 정법임을 알았습니다."
– 대성행자 (00승가대학 졸업)



"저는 현지사의 스님이 되는 길이 윤회를 벗어나는 길임을 확신합니다."
– 원오행자 (고려대 영문과 졸업)



"어렸을때 부터 출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뤘습니다."
– 자성행자(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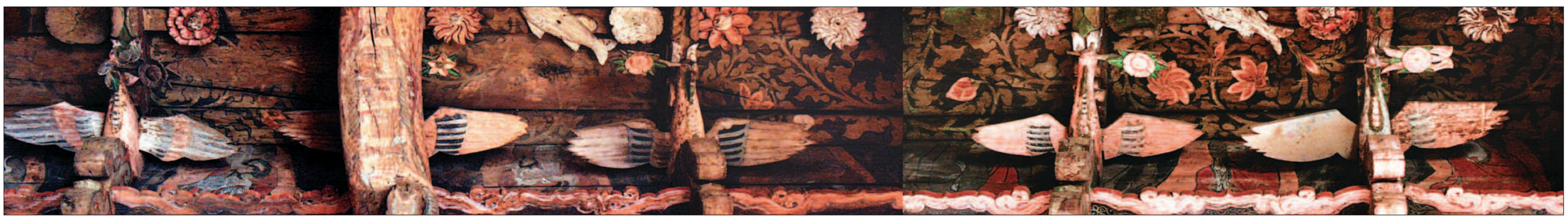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젊은이들 속에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정말로 행복해 지는 길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 혜주행자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한영통역과 졸업)

영산불교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현지사 영산불교대학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

화엄의 꽃 절집 천정
〈12〉 정족산 전등사 대웅보전

예악의 조화로움과 중도의 멋 '물씬'


대웅보전 천정 좌우 빗반자에 장엄된 조형들. 커다란 민화병풍을 펼친 듯하다. 꽃가지를 문 봉황과 연꽃, 물고기, 넝쿨문양 등으로 생명의 에너지가 넘쳐난다. 사진 아랫 부분의 횃대 모양의 가로대는 공간에 흐르는 신령한 기운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영기문이다.

전등사 대웅보전은 3×3칸 장방형 건물로, 17세기 중엽의 장엄양식을 갖춘 전등사의 중심건물이다. 내부구조는 내4출목 위 내목도리 위에 상벽을 올린 후, 천정을 가설한 구조다. 천정양식은, 외진주 영역은 두 칸의 널판으로 사방벽면을 두른 빗반자이고, 내진주 영역은 평행 우물천정이다. 내부장엄은 고색창연함으로 고전의 우아함과 섬세함, 아름다움이 빛난다. 불단과 닫집, 천정장엄 등에 두루 간직된 고색의 색조가 고요의 두터움과 차분한 분위기를 풀어내서 내면의 깊이로 이끈다. 그 가운데 정중동(靜中動)의 기운이 흐른다. 〈채근담〉에서 이르기를 정(靜) 가운데 동(動)이 있음이 참된 정(靜)이라 하였다.

횃대를 닮은 연속 영기문 건축장치

내4출목으로 솟구쳐 오르는 첨자와 살미는 온통 신령함으로 가득하다. 건축구조를 이용해서 공간에 흐르는 신령의 기운을 절묘하게 운용했다. 계단처럼 층층이 오르는 첨자의 끝은 상벽(上壁)이다. 상벽에는 혜가단비도를 비롯해서 총 22체의 나한도를 베풀었다. 맨 위 첨자와 상벽의 경계에는 보기 드문 건축장치가 마련되었다. 횃대를 닮은 좁은 폭의 널판이 사방으로 가설되어 있다. 부석사 조사전 내부장엄에서 이와 유사한 건축장치를 만날 수 있다. 널판은 단순한 경계의 가로막이 아니다. 넝쿨형 식물에서 새싹이 피어나는 연속문양의 장엄이다. 내부에 신령과 생명력의 기운을 굽이치게 하는 뜻밖의 창의적인 장치다. 이것은 안동 봉정사 대웅전 영산회후불벽화에서 벽화 테두리에 영기문 넝쿨을 베푼 원리와 다르지 않다. 그것은 사방 테두리 내부에 흐르는 신성과 거룩함, 진여법계를 드러내는 고요한 상징이다.

꽃을 문 19개체 봉황, 신령의 법계

상벽으로 툇아 오르는 살미의 끝은 봉황으로 반전시켰다. 그것은 사찰장엄에서 흔한 법식이다. 그런데 날개를 활짝 편 봉황들은 한결같이 꽃을 물고 있다. 서수(瑞獸)의 기상이 순하고 다정해 버렸다. 꽃을 문 봉황의 도상은 이례적이다. 통도사 대웅전 불단에서도 꽃가지를 문 봉황의 도상을 만날 수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삼족오나 주작이 붉은 열매를 물고 있는데, 그 열매는 주작이 곤륜산의 약수를 건널 때 입에 무는 '사당' 이라는 열매이지만, 본질은 대자유의 여의보주다. 거룩함과 신령함의 기운은 형상이 없는 형이상학적 추상이다. 용과 봉황, 기린, 현무 등은 그 기운의 심미적 형상화에 다름 아니다. 본질은 형상 너머에 있다. 꽃을 물었든, 열매를 물었든, 보주를 물고 있든, 형상은 달리 표현되더라도 담긴 본질은 같다. 그것은 우주법계에 흐르는 생명력과 신령의 기운이다.

대웅보전에는 닫집에 있는 두 봉황을 포함해서 총 19 개체의 봉황이 날개를 펴고 있다. 법계에 충만한 영기의 세계가 장관을 연출한다. 표현의 변주가 다채로와 인상적이다. 닫집에 있는 두 봉황은 늠름하며 눈에서 뿜어 나오는 기상이 주위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에 비하면 나머지 봉황들은 순해 빠졌다. 북서쪽 천정에 있는 봉황은 백조처럼 아예 제 얼굴을 깃털 속에 묻었다. 조형에서 장단과 긴장의 고저를 맺고 푸는 발상이 대단하다. 용의 표현에서도 마찬가지다.

대립면을 상생관계로 담은 미의식

내부의 신성불가침의 결계(結界)는 용과 봉황의 집단성으로 그 의지를 드러냈다. 대웅보전 내부는 용과 봉황의 세계라 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용 역시 대웅보전 안팎으로 존재성을 드러냈다. 건축의 사방 처마 밑에, 네 모서리 귀공포에, 불단 하층 둘레에, 닫집에, 대들보 위 충량에, 천정에 저마다 다른 표정, 형태, 크기로 표현하고 있다. 표현방식이 놀랄만치 다양하고 풍부하다. 특히 불단 아래와 충량의 용은 일반적으로 용이 주는 긴장감을 재치로 살짝 비틀어서 입가에 웃음기를 번지게 한다. 어떤 용은 총명해보이고, 득의가 느껴지는가 하면, 어떤 용은 어리숙하고 멍청하며 장난기가 가득하다. 긴장과 이완의 대립면을 유기적인 상생관계로 반전해 한국 고유의 미의식을 드러냈다 그것은 한쪽으로 지우치거나, 모나지 않는 삶의 품성이 구현된 중도의 가치라 할 것이다. 고(苦)와 낙(樂)의 양변을 다 취하고 여읠 수 있는 궁구에 이르러서야 우러나오는 득의의 경지다.

조형의 채색원리에서도 중간톤의 색채로 중도를 추구하고 있다. 대웅보전 내부에서 우러나는 차분한 분위기도 채도와 명도를 여읜 색채 에너르기의 적멸에서 얻어지는 심리적 안정감이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미의 중도적 가치를 실현하는 안목이 차물을 우러내 듯 은연중에 드러나게 하는 비범한 데가 있다. 민화나 분청자기에서 묻어나는, 고졸함에 깃든 수승함이라 할 것이다.

채도 명도 여읜 색채 에너르기의 적멸 천계는 '검을 현(玄)' 이 아닌, '가물 현' 건축 받치는 力士, 고구려 벽화에도 나와 연화문 가운데 卍자, 석가모니불 상징

빗반자엔 민화병풍을 펼쳐 놓은 듯

전등사 대웅보전의 아름다움은 빗반자에서 두드러진다. 빗반자는 생명력으로 넘쳐난다. 꽃가지를 문 봉황과 연꽃, 물고기, 넝쿨문양 등으로 생명의 에너지가 넘쳐난다. 커다란 민화병풍을 천정에 펼쳐 놓은 듯 하다. 하지만 화폭의 프레임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자유로움의 바탕에 신묘함을 펼쳐 놓았다. 그것은 우주만유의 생명력의 세계이며, 대자대비의 법계다.

바탕은 검은 천계다. 하늘은 '검을 현(玄)' 이 아니라, '가물 현' 이다. '가물 현' 은 가물거리듯 아스라한 현묘함이다. 텅 비어 있는 듯 하면서도 기(氣)로 가득 차 있는 현묘함이다. 검은 바탕에 나선형으로 뻗어나가는 넝쿨문양은 그 생명력의 파동 에너지를 드러낸 것이다. 생명의 본질은 물이다. 물의 위대함은 인류의 시작에서, 삶이 있는 모든 곳에서 설파되고 강조되었다. 물은 물리적 육체의 생명력이다. 만유는 물을 통해 생명을 유지한다. 영혼의 생명력은 무엇인가? 부처께서 설하신 진리 법이 곧 번뇌의 불을 끄는 생명력이다. 일승법의 진리는 물의 자비력을 갖추었으니 감로수라 부른다. 외진주 빗반자의 세계는 그 실상을 불립문자로 직지(直旨)한다. 법이 구족한 자비력을 물고기와 연꽃이 피어 있는 물의 생명력으로 표현하고 있다. 현묘한 불가사의의 법계에서 온갖 생명들이 길러지고,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불단이 색채나 조형에서 서민적이며 민화풍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갖췄다면, 닫집은 귀족적이며 궁중화원풍의 엄격한 절제미를 갖췄다. 일종의 미학에서 예악(禮樂)의 구현이라 하겠다. 지나친 절제와 긴장은 경직되어 아와 타가 분리되고, 배타적인 경향을 가진다. 음양의 원리처럼 한쪽을 강하게 하였을 때, 다른 한쪽은 부드럽게 처리하여 조화로움과 균형을 꾀한다. 외진주 영역의 빗반자는 민화를 보듯 고졸하고 풍부한 이야깃거리를 담고 있다. 하지만 우물천정의 내진주는 기학적인 문양으로 엄격하고, 높이에도 차등을 두어 위계를 드러냈다. 불단과 닫집, 내진주와 외진주 영역의 천정장엄에서 예악의 조화로움과 중도의 멋이 빛난다.

내진주 천정문양, 봉정사 대웅전과 닮아

천정의 내진주 영역은 엄숙하다. 문양은 관념적인 연화문 형태를 갖추었다. 24칸의 우물칸을 배열한 낮은 곳엔 6엽연화문을 시문했다. 문양의 가운데엔 석가모니불을 상징하는 卍자를 넣고, 6엽에는 '옴마니반메훔' 의 육자진언을 새겼다. 그 보다 조금 높게 경영한 중앙칸의 6칸 우물천정엔 붉은 바탕에 밀교적 오부오불(五部五佛)의 꽃을 금니로 그려 넣었다. 두 가지 조형원리는 안동 봉정사 대웅전 천정의 문양과 고스란히 닮았다. 오부오불은 금강계만다라의 도상으로 중앙에 법신불인 비로자나불이 정좌하고, 그 사방에 아축불, 보생불, 아미타불, 불공성취불의 존상을 표현한 법계 만다라이니, '불신보변시방중(佛身普遍十方中)' 의 극적인 구성이라 하겠다.

추녀 밑 나부상은 건축 받치는 力士

하지만 전등사 대웅보전 장엄에서 보다 극적인 장면은 내부 곳곳에 낙서처럼 새겨진 사람의 이름과 추녀 밑의 나부상에 있을 것이다. 추녀 밑의 나부상은 조형을 해학적으로 풀어 놓았을 뿐, 본질은 하늘을 떠받친 그리스 신화 속 아틀라스와 같으며, 고구려 벽화고분 장천1호분과 삼실총 등에서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역사상과 동일한 모티브다. 중국 전한시대 마왕퇴 1호분 벽화에 등장하는 역사(力士)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한결같이 거의 옷을 벗은 몸으로 건물을 떠받치고 있다. 건축 곳곳에 건축의 신화적 소재들을 다양하게 구사해서 건축의 서사와 깊이를 더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약사전과 대웅보전 내부 곳곳은 마치 한 당대의 지역인명사전의 한 페이지를 보는 듯 하다. 벽면과 기둥은 물론이고, 벽화와 천정의 문양 위에도, 심지어 닫집 속 용의 보주에도 어김없이 이름 석자들이 새겨져 있다. 조선말 병인양요 등 서구열강과의 전쟁에 나서는 조선병사들의 절절한 심정들이 그대로 각인된 흔적이다. 부처님의 가피에 생명을 의탁한 심정을 헤아려 보면 이름 석 자에 남은 운명의 무게와 두려움, 간절함들이 만감으로 교차한다. 한 시대 사람들의 행렬이 육필로 남긴 마음의 화석이라 할 것이다. 불전 건축에 부처와 법과 사람의 마음이 씨줄 날줄로 엮이었으니 그에 저민 무늬를 굽이굽이 펼치면 세간의 가엾음과 눈물을 보게 될 것이다.



노재학 불교미술사진작가


내진주 영역의 천정장엄 문양. 안동 봉정사 대웅전 문양과 고스란히 닮았다.


전등사 대웅보전 내부천정.


윗줄은 처마밑, 대들보 위의 용과 닫집의 봉황. 가운데 줄은 불단 하단에 배치한 용의 다양한 표정. 아랫줄은 추녀 끝에서 지붕을 받치고 있는 나부.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도모집

종 정 명진 석법운 대종사


종 정
명진 석법운 대종사

귀의 삼보하옵고…
새로운 불교, 혁신적인 종지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석가세존으로 부터 법맥을 이어온 저희 종단은 구태불교를 개혁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불교세계를 염원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은 본 종단과 함께하실 제방의 청정승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원로의장 보 운
원로총무 수 덕 원로위원 해 산
원로위원 월 각 원로위원 혜 담
원로위원 홍 원

총무원장(대행)
행정원장 도 경 사정원장 법 륜 문화원장 진 송
교육원장 청 담 포교원장 동 화

총 무 원
총무부장 (대행) 재무부장 월 산
교무부장 선 각 문화부장 한 담
규정부장 혜 오 법규위원장 설 산
신도회장 조태흠 사업부장 이재철

종 무 원
경북1종무원장 월 정 경북2종무원장 성 덕
경북4종무원장 해 산 대구2종무원장 해 산
대구1종무원장 광 덕 경기종무원장 원 담
충북종무원장 계 현

- 응공조계종 창종 3주년 기념법회 -
● 일시 : 불기 2558년 (2014년)
11월 11일 (화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 입종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 반 명함판 사진 3매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호 동명사 ☎ 054)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4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 (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삼독심’은 버릴 것이 없다

업의 당처가 빈줄 알아야한다 ②

실에 있어서 우리가 본래의 내의 그 자체성, 다시 말하자면 눈이 있는 자리, 눈은 보는 걸 뜻하는 건데 나중에 가서는 소명하게 압니다. 듣는 그 자리를 소명하게 알면은 망상과 망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모르면, 이것이 어떤 반연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진짜와 같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회(화)를 내보세요. 부회 낼때는 부회나는 것이 진짜에요. 그것도 우연히 반연에 의지해서 경계에 닿질리는 그 마음이 자기 마음하고 잘 안 맞단 말이죠.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지, 반연에 의지해서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지, 본래 어디 망상이라는 것이 또렷하게 있어서 성내는 것이 아니고 또렷한 자리가 있고 웃는 것이 또렷한 자리가 있어서 거기서 나온 건 아니거든요.

실로 나중에 가서는 아까 반야경에 읽었습니다만도 눈 귀 코 혀 몸 새김 거님도 없다는 이것이 부처님 말씀인데 실로 나중엔 납득이 갑니다. 아, 그렇구나 납득이 가게 되는데 실로 우리는 하나의 반연에 의지해서 좋다 나쁘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연에 의지해서 사실로 우리의 자성을 망쳐버립니다. 자성을 망친다는 건 내 부처를 자살시키는 거나 꼭 한가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로 해서는 이렇게 쉬운데 좀체 이놈이 잘 안 돌아섭니다. 암만 봐도 ‘내’ 거든요. 내 몸뚱이 이거, 자꾸 스스로 변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암만 봐도 내거라. 그러나 사실 아는 사람의 분수로 봐서는 암만 생각해도 내 것이 아니거든요. 지멋대로 변하는 거라 말이죠. 그리고 이거 자체성이 없는 것. 또 망상 망념을 일으킨다 해 봅시다. 설혹 일으킨다 해봤든 그 어떤 반연에 의해서 그래서 성을 냈다 웃었다 할 따름이지, 본래 어떤 성내는 무엇이 있는 것도 아니라. 그것도 없는 거라. 실에 있어서는. 그러니 요 대목이 말은 극히 쉬워도 극히 어렵습니다.

사실로 요 문제를 딱 해서, 여러분들이 알긴 알아요. 여러분들이 실감있게 딱 알아서 나중에 가서는 망상 분별도 내가 쓸 수 있어. 어떨 땐 망상도 한 번 부려 보는 거라. 알면서. 어떨 땐 분별도 부려 보는 거라. 알면서. 이렇게 될 때까지는 말이죠 참말로 상당히 수양을 해야 합니다. 수양 안하면 안 됩니다. 이 불법은 수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 공부하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가 절에 많이 다녔다 이거 다 그 생각 치워야 됩니다. 내가 책도 많이 봤다 그 생각도 싹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공부를 한다는 이런 견지 밑에서 나간다면은 절에 있어서 한 일년 이년 다닌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몇 번 이래 듣는 것이 일년 이년 다니면서 공부할 때보다 그거보다는 훨씬 속 빠릅니다.

실로 나는 내 마음을 찾아야겠다, 진심을 찾아야겠다, 참말로 마음 찾아야 되겠다, 내가 삼독심을 버려야겠다 이래 하지만은 삼독심, 어떻게 버릴 겁니까. 왜 그러느냐. 반연에 의지해서 임시로 지가 만들어냈는데 삼독심이 어디 있을 턱이 있나요. 없는 건데 허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듯이 일어나는 것인데 나중에 구름 사그라지면 그것도 없어지는 건데 어디 가서 삼독심 찾을까요? 또 그러면 우리가 진심을 찾을라고 해 봅시다. 삼독심을 버릴라 해도 안 되지만은, 버릴 것이 없거든. 공연히 반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삼독심인데 버리긴 뭘 버려요? 버릴 것이 어디 있나요? 반연을 일으키지 않으면 삼독심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 **‘진심 구하기’는 허공 잡겠다고 말 타고 달리는 것과 같다**
> **물거품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삼독심은 그 자리에 없는 것이다**
> **이 도리를 알면 법 굴리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또 진심을 찾을라고 해봅시다. 어떻게 찾는다는 말이에요? 실은 찾을라는 그놈이 진심인데 그걸 놔두고 어떻게 찾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젭니다. 오래 듣던 분들은 만날 하는 얘기 같지만 말이죠. 우리가 기초로 우리가 들어갈 때는 이거부터 확연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진심 못 찾습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찾는다는 겁니까. 빛깔도 소리도 없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찾는다는 겁니까. 어디 있길래. 허공을 걷어잡을라고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이나 꼭 한가지라 말이에요. 어디 가서 진심을 찾을 거요. 그러면 버리자 말이여. 어디 가서 진심 버릴 거요? 뭘 걷어잡고 진심 버릴 거요? 자 그러면 마음자리가 없느냐. 마음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네. 내가 마음을 맨날 쓰고 있네. 잘 쓰고 못 쓰는 그것만 다를 뿐이지 마음 늘 쓰고 있잖아요? 또 마음을 안 쓸 때는 또 없어. 아무 생각도 않을 때는 아무 것도 없어. 자, 이거 마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러나 저러나 허공을 찾는 사람과 허공을 뛰쳐날라는 사람과 꼭 한가지거든요. 그 사람은 허공 속에서 허공을 찾는 거여. 또 허공 속에 앉아서 허공을 버릴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우리는 마음속에서 마음을 또 찾으려 하고, 마음속에서 마음을 버리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도리부터 확연히 알아버려야, 이걸 알면은 사실 공부 반 이상 된 거나 한가집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법을 굴리게 되는 겁니다. 얘기하는 자체가 내 자신이 법을 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허공을 버릴라 하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탐심이니 진심이니 치심이니 삼독심, 버릴라 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일으켰다 없앴다 지 마음대로 하는 건데, 원래 삼독심이 그 자리에 무엇이 있다면은 그것도 버릴 필요가 있겠어요. 버리지도 못하겠지만 삼독심이 어디 있나요?

삼독심도 그 자리엔 없는 것이거든. 하필 삼독심이 있어요. 탐진치, 뭣을 버린단 말입니까? 물거품처럼 일어났다가 없어졌다 일어났다가 없어졌다 하는 건데 버리긴 뭘 버린다 말이에요? 차라리 버린다면 눈을 버린다는 말이나 꼭 한가지라 말이죠. 그러하니 꼭 허공을 버릴라 하는 사람이나 허공을 걷어잡을라 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둘이가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허공을 피할라고 했는데 허공을 피할 수가 있느냐. 허공을 잡을라고 했는데 잡을 수가 있느냐. 만날 허공하고 같이 있는데 하나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망상을 방하착해라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하니 우리의 마음자리 이 자리도 사실로 먼 곳도 아니고 가까운 것도 아니거든. 왜 그러느냐. 멀다 하면 끝없이 먼 거라. 우리가 마음을 찾아 나서면 허공 전체를 뒤져도 마음 못 찾아. 왜 그러느냐. 찾는 그놈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야 잘 했든 못 했든 찾는 그 놈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 찾는 거예요.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惡에도 善에도 사로잡히지 말자

14-2 십념(十念)

그러므로 이 둘 다 참된 그 자리란 것이 워낙 하나뿐이지 그것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경을 원성실성(圓成實性)이라고 한다. 원만하게 알이 통통 찬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참된 그 자리를 알았다, 바로 그런 자리다. 그래서 알았다는 이 자리에서는 즉 한다는 염을 버리고 오직 한 가지의 진리성만을 나타낸다.

공상역공에서는 참된 진리의 중도(中道)를 설명한 것이고 공공역공은 현실에 즉해서 중도의 원리를 말한 것이고 소공역공이라는 데서는 참된 것도 진리도 현실도 모두 다 아니면서, 이렇듯 모두 다 아닌 그것이 완연히 우리에게서 파악되어지고, 실상인즉 그 내용은 한 군데도 기울어진 것이란 없고, 또 그 꼭 들어맞는 중이라는 것도 없는, 가에도 중간도 아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편벽된 자리에서 섰거나 혹은 이것이 꼭 옳다는 그런 자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닌, 그러면서도 오히려 참된 중도(中道)의 진리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원효대사의 이 철학은 그냥 논리만 따져 나가서는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알기 어려울 것이므로 다음에 예를 들어 풀이해 본다. 불교의 계율에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술이라면 나는 기어이 마시지 않는다. 술 먹으면 좋지 않은 일이 많다. 술에 취하면 항용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 아니 할 일을 저지르고 생떼 부리고 하는 것, 모두 안 될 일이 아니냐. 이것은 속에,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중도의 뜻을 말하는 얘기다.

다음은 술이란 왜 먹어선 안 되느냐? 술은 마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방면으로 정신을 흐려 놓아 혼란에 빠뜨려 자칫하면 큰 실수를 저지르게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질없이 낭비를 하게 되어 가정생활에 파탄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일쑤다. 이것은 진리의 내용을 밝히어 설명한다. 나는 술을 안 먹으니까 이것이 꼭 옳다. 너는 술에 취해 있으니까 기어이 안 된 일이다. 이렇듯이 술 안 먹는데에 얽매어 가지고 술자리 같은 데서 탕탕상을 치며 그만 내다던질 듯, 그런 짓 하면 못쓴다고 술 먹는 사람에게 대해 마치 싸움을 걸 듯 덤벼든다. 그릇된 일 하는 사람보면 기어이 저는 옳고 그 사람은 나쁘다고 규정짓는다. 선(善)을 내세워 싸움하려 들고 나는 이 만큼이니 옳다고 하는 이런 것도 딱한 일이다.

그렇다고 나쁜 일을 해도 괜찮다는 소리가 아니라, 악이건 선이건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이다. 차라리 악을 잘 이해하여 때로는 그 효용성을 이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나 또는 우리 국가사회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충무공(忠武公)과 같은 행동으로 사람의 생명까지도 뺏어가며 대의(大義)를 지킨다는 그런 생각도 해 봐야 한다.

또 이른바 악이라는 것 가운데에 드물게 선이 있을 수도 있고 흔히 우리 주변에는 번지레하게 가장 위선(僞善)이 보

> **‘악’ 속에 ‘선’ 있을 수 있고**
> **‘선’에서 위선 찾을 수 있다.**
> **중생 건지기 위해 국가 위해**
> **악을 잘 이해하고 그 효용성도**
> **이해할 줄 아는 지혜 필요**

인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의 유명한 문학 작품으로 춘향전(春香傳)이 있는데 춘향이는 기생의 집에 태어났다는 것. 천한 기생질 하던 월매의 뱃속에서 났다는 것이 어찌 반드시 나쁘다고만 할 수야 있는가. 미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연꽃과 같이 툭 트인 인물이 나올 수도 있고 금지옥엽으로 자라난 임금이며 왕비며 하는 이들 중에도 해괴한 일이 생겨나고 또 별별 잡보가 다 있는 법이다.

이런 사리(事理)를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는 그 자리를 일컬어 이변이불착중(離邊而不着中)이라고 한다. 치우침도 없고, 중간도, 잡스런 것도 없는 그 오롯한 진실성을 가르쳐 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불 생활 하는데 있어서도 이것 저것 잡념이 많으니까, 업장의 소멸을 위해 무엇보다도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자. 이것은 공상역공(空相亦空)이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극락세계에 가고 대자 대비에 접한다. 비록 하품, 하생일지라도 필경엔 상품, 상생으로 올라 우리는 왕생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나무아미타불하자. 이것은 공공역공(空空亦空)이다. 극락세계에 가거나 왕생을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왕생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중생에게로 나와 대자 대비를 베풀고 극락엘 갔다, 중생에게로 왔다.

사바가 곧 극락이고 극락이 곧 사바일 수 있는 이것은 소공역공(所空亦空)이라 한다.

진(眞)도 아니고 속(俗)(현실)도 아닌 한군데 치우치는 일도 없고, 그렇다고 중도(中道)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진리의 생활을, 그러니까 보은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이 참된 염불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 염불이란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어떻게 어려운 것을 다 할 수야 있으랴. 여기에 좋은 방법이 있다. 그 어려운 것을 다 자꾸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온전한 생각으로 그냥 염불만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저 나무아미타불이라고 부르면 다 되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 무거운 바윗돌을 두 사람이 목도를 한다고 하자. 그들은 목도를 해 돌을 옮기면서 연방 영치기 소리를 낸다. 돌을 메고 가는 데에도 무척 힘이 들 텐데, 또 입에서 소리를 낸다면 더욱 지칠 것이다. 옆에서 보아도 땀을 뻘뻘 흘리며, 짊어질라, 소리 낼라 힘을 배로 쓰는 것 같다. 목도하는 데에만 집중해야 할 힘이 두 갈래로 분산될 것만 같다.

실지로 물리 현상으로 본다면 틀림없이, 에너지의 발산이 어깨와 입으로 두 갈래로 분산되는 것이리라. 그런데도 ‘영치기 영차’ 소리를 낼라치면 피로한 줄도 모르고 새 힘이 솟아 나와 그들의 목도는 흥겹게도 그 소리를 맞추어 돌을 거뜬히 옮겨 가는 것이다. 이를 군호 맞춘다고 한다. 그런데 이 군호라는 것이 이를테면 진언인 셈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부산 동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불교학 야간반 모집

모집대상 : 남녀노소 누구나
담임교수 : 민지효 스님

◆개강일시 : 2014년 10월 29일 오후 7시
◆수 강 료 : 1기분 5만원
◆수강내용 : 사찰의 구조와 기본예절,
불교란 무엇인가,
스님들과 같이 하는 불경(동음창화)
기본염불 : 천수경, 반야심경, 종송,
칠정례, 향수해례, 사성례, 법성게,
약찬게, 발원문 등
염불하면서 내몸 치료하기 : 힐링치료
수행과 기도 위빠사나 천도재 등

◆접 수 처 : 부산 동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전화 051)200-3244 / 팩스 051)200-3420
이메일 : ysm7487@lycos.co.kr
민지효 스님 : 010-4466-3575
주소 : 부산 사하구 사리로 55번길 16 (괴정동)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찬불가 보급 삼매경 빠진

육화림 (찬불가 보급 모임)



육화림은 … 2008년부터 매년 20~25곡의 신곡을 담은 〈신작찬불가〉 악보집 무료 발간과 '신작 찬불가 발표회'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신춘음악회 마음을, 보람을, 기쁨을 함께', 봉축기념음악회 '음악으로 빛나는 룸비니의 찬가' 공연, KBS홀 아름다운 마음을 위한 울림 '2008 불교합창 페스티벌', 인도네팔 8대 불교성지 '불교문화예술인' 구법순례 등의 공연을 가져왔다. 오른쪽부터 육화림의 집행부를 맡고 있는 성악가 한정일, 정민수, 박경태 씨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불교 합창단들이나 불자 음악가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많지 않아요. 또 찬불음악을 작곡했다고 해도 발표할 무대가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면 매년 찬불음악을 만들고 발표 무대를 만들어 불교음악인들의 축제를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모임이 육화림입니다. 지난 시간동안 많은 고비를 넘겼지만 매년 한 권의 무료 악보집 발간과 발표회 공연은 반드시 지키고 있죠. 또한 신인 작곡가들과 프로 작곡가들의 곡을 고르게 분배해 인재를 양성하고 찬불가 보급에 앞장설 수 있는 모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육화림의 총무를 맡고 있는 성악가 한정일 씨는 육화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불교음악공동체 육화림은 2008년 불교음악인들이 모여 찬불가 보급을 위해 만든 단체다. 조영근, 김회경, 황학현, 한정일, 박소림 등 국내 실력파 불자음악인들이 결성한 육화림은 지난 6년 동안 6권의 앨범과 6번의 신작찬불가발표회 공연을 통해 그 이름을 알려왔다. 초창기 5명의 멤버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14명으로 회원수가 늘었다. 현재 활동 회원으로는 강유정, 고일언, 김정자, 김재일, 문정란, 박경태, 박정향, 서근영, 정민수 씨 등이 합류해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회원들이 활동하며 찬불 음악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불교음악' 공동체를 꿈꾸다

9월 30일 햇살 좋은 초가을 오후 육화림의 집행부를 맡고 있는 성악가 한정일, 박경태, 정민수 씨를 만났다. 이들을 통해 그동안 육화림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가야할 길에 대해 얘기하며 불교 음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불교음악공동체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육화림은 창립 당시 불자 음악인들의 친목 모임으로 시작해 불교음악의 발전을 위해 좀더 뜻 깊은 일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한정일 씨는 설명한다. "육화림은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로 일컫는 사부대중에 사미 사미니까지 모두 합친 육부 대중들이 숲을 이룬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교음악공동체라는 수식이 붙은 만큼 비영리단체로 불교음악의 보급을 위해 힘쓰고 있죠. 모든 회원은 공동대표이고 다만 2년에 한번씩 집행부를 뽑아서 실무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또한 모든 안건은 만장일치제로 결정할 만큼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의견을 소중히 여겨요. 특히 신입회원들을 선발할 때는 구성원들 모두가 동의를 해야 하니 검증된 회원만이 육화림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 **불교음악인들 축제의 장 펼치고자**
> **작곡가 성악가 등 모여 2008년 결성**
> **창립 후 무료 〈신작찬불가〉집 발간**
> **사찰합창단 10팀 선정 매년 발표회도**
>
> **동요 오페라 뮤지컬 등으로 장르 확장**
> **전통과 현대 아우르는 다양한 음악으로**
> **시대와 호흡하는 음성 포교 '발원'**
> **10월 18일 오후 5시 강남구민회관서 공연**

회원들 대부분이 음악대학 학사 및 석박사 출신의 전문가로 현재 작곡가 성악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물론, 사찰 합창단의 지휘자로 불교음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실력과 신심을 겸비한 육화림의 가장 큰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신작 찬불가의 보급이다. 1년에 20~25곡의 신곡을 작곡해 악보집을 발간 전국 사찰에 배포하고 있으니 불자들에게 최첨단 찬불가를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다.

악보집에는 기존 유명 작곡가는 물론 신인작곡가까지의 신곡을 포함해 신인과 프로가 함께 곡을 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두가 함께하는 불교 음악 공동체를 지향하는 만큼, 기존 유명 작곡가 선생님들의 참여는 물론 신인 작곡가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대학원을 갓 졸업한 젊은 음악가 등 신인들의 곡을 실어서 그들에게 창작 의욕을 심어주고 있죠. 가사 역시 스님과 시인들의 가사가 절반이라면 나머지는 사찰 합창단 단원 중 공모를 통해 가사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선발된 가사들은 불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쓴 내용이라 가슴 속에 큰 감동을 주는 가사들이 많아요."

이처럼 육화림은 신인 음악가들의 등용문이 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창작활동에 관심은 있지만 기회가 없었던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도 육화림의 창립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악보집에 실리는 곡들은 모두 보시로 제공받고 있으니 불자 음악인들의 열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3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불교음악인들이 참여, 불자음악안들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고 있기도 하다. 정민수 씨는 그래서 육화림은 모두가 함께 불교 음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불교 음악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매개차라고 강조한다.

"모두가 오랫동안 불교 음악을 해오신 분들이라 불교 음악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세요. 제가 최연소 회원이지만 어린이합창단부터 시작해 현재 어린이 합창단 지휘까지 맡고 있으니 오랜시간 불교음악에 매진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불교음악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분들의 모임이 육화림이기도 해요. 각자의 일들이 있지만 기획사를 통하지 않고 예산편성부터 악보집발간 또 공연무대까지 일일이 회원들 손을 거쳐서 이루어내고 있어요.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죠. 모두가 재능보시를 하며 즐겁게 일하고 회원들끼리 서로 격려하며 찬불가를 알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중과 숲을 이루고자

육화림은 지금까지 '신춘음악회 마음을, 보람을, 기쁨을 함께', 봉축기념음악회 '음악으로 빛나는 룸비니의 찬가' 공연, KBS홀 아름다운 마음을 위한 울림 '2008 불교합창 페스티벌', 인도네팔 8대 불교성지 '불교문화예술인' 구법순례 등의 공연을 통해 다양한 무대를 만들어왔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육화림이 여는 가장 큰 공연은 바로 '신작 찬불가 발표회'다.

한 해 동안 만들어진 곡을 각 사찰 합창단이 곡을 선별해 나누고 매회 공연 무대를 만들어 발표회를 갖는 것이다.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의 사찰 합창단 10여 팀이 참여하는 육화림 '신작 찬불가 발표회'는 이제 불교 합창계에서는 꽤 유명한 공연이 되었다. 또한 전국 합창단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력을 가늠할 수 있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고 있다고 정민수 씨는 말한다.

"현재 참여 합창단 중 절반이 지방에서 오고 있어요. 6, 7월경 신곡이 발표되면 인터넷 다음 카페 '찬불소리'에 악보를 공지하고 합창단들의 신청을 받죠. 현재는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찰들이 많아 그 중에서 10팀을 선정해 2곡씩 팀공연을 하도록 해요. 이 자리는 전국 사찰합창단의 실력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신곡을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있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사찰 합창단들이 매우 주목하는 행사가 되었어요. 이 자리에서 그 해의 악보집을 배포하는데 지난해에는 인쇄한 천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불음포교 공동체

권이 모두 동이 날만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제주도 팀들이 비행기를 타고 참여할 만큼 큰 열의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올해에도 역시 제주도 연꽃합창단, 제주도 연합합창단 등이 참여 한다. 이들은 발원(박이제 작곡)、목련화(이순희 작곡)와 내 마음에 피어난 꽃(조영근 작곡)、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조영근 작곡) 등을 각각 합창할 예정이다.

"매년 객석이 꽉 찰 만큼 굉장한 큰 호응을 얻어요. 처음에는 조계종 문화부의 도움을 받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공연을 시작했는데 객석이 모자라 2012년부터는 공연장소를 강남구민회관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연 장소 구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종교음악이라는 이유로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공연장은 모두 거부당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구한 강남구민회관 공연장은 500객석이 꽉 찰 만큼 열의가 대단해요. 관람객 중 절반은 지방에서 오시는데 특히 제주도 합창단들의 열의가 대단해요. 지난해에는 단체로 1박 2일을 서울에서 머물며 공연할 만큼 큰 열의를 보여주셨어요."

지금까지 120곡이 넘는 곡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곡을 발표했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곡은 강주현 작곡의 '마음', 박이제 작곡의 '부처님을 따르면', 강영화 작곡의 '내 인생의 부처님' 등이다. 특히, '마음'은 별도의 음반이 만들어질 만큼 그 호응이 컸다고 한다.



육화림은 매년 전국 사찰 합창단 10팀을 선정해 신작찬불가 발표회를 갖는다.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전국사찰합창단이 오르고 싶어 하는 무대로 불교음악인들 사이에 주목받고있는 공연이다.



무료배포 악보집 〈신작찬불가〉는 신인 작곡가와 프로작곡가를 골고루 등용해 찬불음악의 다양화를 추구한다.

시대와 함께하는 불교음악을 위해

육화림은 '우리 불교음악을 종합공연 예술로 창조, 발전시켜 나가고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에게 새로움을 선사하고 싶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불교음악을 하는 모든 이들의 고충이 그렇듯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한다. 또한 종교음악이 갖는 한계성을 극복해야 하는 여러 난제들도 있다고 박경태 씨는 말한다.

"사실 초창기에는 회원들이 사비를 털어서 사업을 진행할만큼 회원들의 열의가 대단했어요. 집행부들은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면서 모든 일을 하며 늘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렇게 노력한 결과 현재는 후원구조가 확립되어 악보집을 내고 공연하는 정도는 무리없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목표가 불교음악의 다양한 레퍼토리를 관객들에게 전하는 것인만큼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이에 육화림은 매해 한두곡의 동요를 포함시키는 등 장르의 영역을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신흥사 어린이합창단이 '산 따라 물 따라', '마음의 창문을 열어요' 등의 곡으로 무대에 오른다. 앞으로 육화림은 합창곡에만 국한하지 않고 독창, 오케스트라, 찬불동요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창작하는 것은 물론, 기존 합창곡을 새로운 장르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히트곡들을 모아 음반을 발매하는 일도 꼭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정일 씨는 이런 작업이 작곡자나 회원들 또 불자들 모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며 장기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다짐한다. "그동안의 히트곡들을 모아 음반을 제작하거나 공연실황을 음원으로 만드는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음반과 악보를 같이 발매할 수만 있다면 불교음악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반이 나오면 음원 사이트 등에서도 저희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 음반 작업도 꼭 필요한 일 중 하나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형편이 여의치가 않으니 점차적으로 예산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사실, 불교음악에 관심이 있어도 악보 하나 구하기 힘든 현실에서 육화림이 꾸준히 찬불악보집을 무료로 배포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민수 씨는 앞으로 찬불가도 꾸준히 발전해 찬불악보집을 서점에서도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고. "사실, 찬불가는 악보 구하기가 힘들어요. 서점에 가도 기독교 음악의 악보는 빼곡한데 찬불가는 코너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25개 교구본사 불교용품점 어디에도 찬불악보집을 파는 곳은 없어요. 찬불가가 판매용 악보로 발매된 경우는 이진구 선생님의 '낮은 목소리' 하나인데 그마저도 찬불코너가 없으니 기독교 음악으로 분류돼 진열될 수밖에 없었어요. 앞으로 찬불음악에 대한 인식이 확대돼 불교음악도 서점이나 불교용품점에서 악보를 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정일 씨는 앞으로 찬불 음악이 불교 정신을 담아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흡수해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한다. "찬불 음악의 정의를 내리는 것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요. 범패 등 전통불교음악에서 온 것만이 찬불음악이고 서양음악에서 오면 찬불음악이 아니다 등 찬불 음악의 범위를 두고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죠. 하지만 저는 불교 정신이 살아 있으면 찬불음악이라고 생각해요. 불교정신을 불어넣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시대와 호흡할 수 있을 때 불교 음악도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육화림은 장기적으로 뮤지컬, 오페라 제작 등 찬불가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확보, 비영리 법인단체 등록 등 가야 할 길이 멀다. 한정일 씨는 앞으로 차근차근 이 길을 밟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한다. "욕심을 내지는 않아요. 저희가 회원들의 자비를 털어 악보집 발간과 발표회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후원을 받아 이 일을 해나갈 수 있으니 많은 발전을 이룩한 거죠. 현재는 발표회 참가 단체들의 참가비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법인등록 등을 통해서 후원체계를 만들고 또 후원자들에게 연말 정산을 해드릴 수 있을 만큼의 규모 있는 단체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꿈입니다. 물론 현재의 일에 충실하면서 앞으로 차근차근 육화림의 규모를 키워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올해 육화림 신작 찬불가 발표회는 10월 18일 오후 5시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서 공연은 갖는다. (010)8782-7338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전법일기

새싹 불자의 신심

오래전 일이다. 어린초등학생이 겨울방학동안 약천사에서 기도하겠다며 왔다. 불사초기 때라 제법어수선하기도 한데 단 한번 새벽예불에 빠진 적이 없었다. 심지어 사중일이 바빠 도와주다가도 사시불공 때가 되면 여지없이 기도하러 가야한다며 법당으로 가버리는 것이었다. 너무 당돌한 모습에 조금은 어이없기도 했다.

도무지 저 어린 것이 뭘 알아서 기도 할까? 신심이라는 말의 의미라도 알고 있는 것일까? 이런 저런 생각하던 사이 방학이 끝나서 기도도 마치고 돌아가면서 말했다. 자기도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바로 출가하여 스님이 되겠다고 했다. 어린치기가 너무 귀여워 꼭 출가 할 거지 하면서 약속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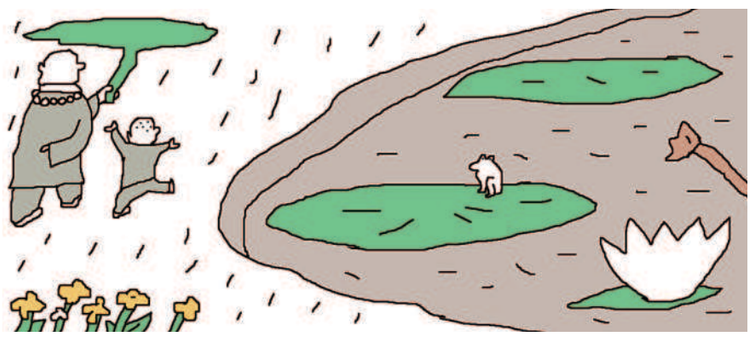
한참의 세월이 흐른 12월 어느 날 그 어린보살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꼭 한번 보자고 했다. 어느 찻집에서 만난 어린보살은 벌써 고등학교 졸업을 막 앞두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며칠 후면 수업을 종강한다고 하면서 바로 출가하겠다고 했다. 너무 놀라 바라보니 '예전에 약속 했잖아요.' 라고 단박지게 말했다.

갑자기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어리둥절했다. 참으로 기특하기도 하고, 놀라웠다. 그 긴 시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신기하게까지 느껴졌다. 덕담을 나누며 쌀쌀해진 날씨에 목도리를 선물했다. 갑자기 '내가 스님이 되도 성원스님을 만날 수 있는 거지요?' 하고 했다. 쫌 어이없는 질문에 '비구니 스님이 되는데 어떻게 비구스님을 만날 수 있지' 하며 놀렸더니 금세 눈물을 글썽였다. 너무 당황해서 엄마보살이 달래주기도 했었다.

어린보살은 그 길로 바로 입산 출가하였다. 고등학교 학업만 마치고 졸업도 하지 않은 채 출가해버렸던 것이다. 출가 후 지금까지 정말 출가자로써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른 승려로서의 길을 걷고 있다. 신출가(身出家)보다 심출가(心出家)를 더 중요시 가르치는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나의 도반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 출가인연을 바라보며 내가 가졌던 수많은 관념들을 깨어졌다. 무엇보다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대해 너무 소홀 했고, 무심한 삶의 모습을 바꾸기로 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 자신도 초등학교시절 가졌던 마음을 지금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 확실 한 것은 확고한 신심은 지식적 토대 위에서 정의되고 확신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불교전법에 있어 청소년, 특히 어린불자의 포교가 이웃종교에 비해 너무나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어린이는 우리들의 미래라고 한다. 지금 우리불교계는 유지원 때부터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아기들에게까지 불어 넣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백기라도 들고 있는 듯 방치하는 모습이다. 지금 철없이 어린이들이 부르고 따르는 종교적 분위기를 방치하는 것이 미래불교가 이 사회에 차지할 비중이라는 생각을 하면 아찔하기도 하다.


그림 · 박구원

한때, 큰스님들은 어린이포교와 학생포교를 위해 신명을 다하는 열의를 보이셨다. 하지만 지금의 불교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개인의 수행적 진보와 더불어 대중들과 함께하는 삶의 가지를 출가초기라도 강하게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대승은 수행의 완성 후 대중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다. 대중 속에서 대중과 함께 자신을 탁마하고 열반의 꽃을 피워야 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이웃을 향해 보내는 한 번의 따스한 눈길과 손길이 밝은 불교의 미래를 여는 초석이 될 것이다.

쌀쌀해진 가을 날씨다. 누군가와 따스한 손을 나누어 잡기 참으로 좋은 계절이다. 이왕 손을 잡으려면 아무것도 가지지도 쥐어지지도 않은 어린아이의 작은 손을, 이 계절 온 마음 다해 잡아주자.



성원 스님 (제주 약천사 주지)

중요무형문화재 제126호
조선시대 수륙재의 전통을 계승한
진관사 국행수륙재

600년 역사의 진관사 국행수륙재는 왕실과 백성 그리고 생명있는 것과 생명없는 것에 이르기까지 불법의 은혜로움이 미치기를 기원하였던 전통적인 불교의식입니다.

49일간 봉행되는 진관사 국행수륙재에 동참하시어 선망 부모님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시고, 나와 나의 부모, 가족, 그리고 뭍 생명들에게까지도 환희로운 부처님의 가피가 전해질 수 있도록 간절한 원을 세우시어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칠재 회향 1부 2014. 10. 11(土) 오전 10시 ~ 오후 5시, 설정 큰스님 법문 (오후 3시 30분)
2부 2014. 10. 12(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전화 문의 02)359-8410

* 행사 관계로 경내 차량진입이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신내역 3번출구 하나은행 앞 진관사 셔틀버스 상시 운행)

진관사 국행수륙대재에 내리는 산화락(散花落 ; 꽃비)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
| 주관 | (사)진관사국행수륙재보존회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TV,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 · 사)진관사 국행수륙재보존회

인등 불사와 법당 장엄을 한 번에...
면 자체 발광 성불원 LED 인등





발명특허
발명특허번호 제10-1350047호

•성불원 인등 확대 모습
•법당 크기에 따라 2가지 크기 선택 가능합니다. 불화 자체가 장엄하게 빛을 발합니다.

성불원 LED 인등의 특징
1 기존의 인등과 달리 월등한 밝기로 법당 전체가 장엄됩니다.
2 LED만의 저렴한 전기료와 긴 수명으로 누구나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원하시는 어떠한 배경 불화로도 제작 가능합니다.

수미단, 닫집, 영단, 법상, 경탁 등 법당장엄 일체 제작
각종 법당불사 컨설팅 해 드립니다.

성불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전화 011-276-5251. 010-6857-0108

無碍 양학모 합장 인사 올립니다

美 루이지애나 주에 萬佛 조성된다





'리엔 호아 반 펫(Lien Hoa Van Phat) 사원' 건축 현장(사진 좌) 뒤편에 마련된 야외 법당(사진 우). 이곳에는 매주 베트남계 불자 4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법회가 봉행되고 있다.

베트남 불교계 '리엔 호아 반 펫' 사원 건축 중
올 연말 완공 … 베트남 불교문화의 중심로 발돋움

미국 루이지애나 주의 테리타운(terrytown)에 만불(萬佛)이 조성될 예정이다.

타임스 피카윤〈Times-Picayune〉지는 "테리타운의 스텀프대로(stumpf Blvd.)에 베트남불교계 '리엔 호아 반 펫(Lien Hoa Van Phat) 사원이 건축 중"이라며 "10,000기의 불상을 조성해 걸프 해안가에서 가장 큰 사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반 펫(Van Phat)은 베트남어로 만불(萬佛)을 뜻한다.

타임스 피카윤지는 리에 호아 반 펫 사원의 건축위원회 노리스(Norris) 위원의 말을 인용, "약 6,690㎡ 대지에 높이 16m의 불상 10,000기가 조성된다"며 "이는 휴스턴과 플로리다 사이에서 가장 큰 불교 사원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사원은 현재 기초공사를 마친 상태다. 건축 부지에 15m 쇠말뚝을 박은 후 2m 두께로 시멘트를 붓고, 땅을 평평하게 다지는 과정은 끝났고 현재 철강 구조를 설치하는 과정이 한창이다.

"허리케인의 영향권인 테리타운의 특성상 초속 약90M의 바람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힌 홍 쿠안(Hong Quan) 씨는 "건축 자재 대부분도 베트남에서 직수입하고 있다"며 "10,000기의 불상 역시 현재 베트남의 불교공예가에서 의뢰했고, 사원에 들어갈 가구 역시 베트남을 방문해 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쿠안 씨는 리엔 호아 반 펫 사원의 건축과 디자인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사원 설계에 따르면, 리엔 호아 반 펫 사원의 외관은 어두운 갈색 벽돌로 마감되고, 빨간색과 노란색 타일로 마무리될 지붕 모서리에는 황금용이 올려진다. 또한 스님과 불자들의 안식처가 될 사원 내부는 대리석으로 마감한다.

또한 연꽃 모양의 연화대에는 304cm 높이의 금불상이 주불로 봉안되고 주변 벽면에는 높이 20cm의 소불을 조성, LED 조명을 설치할 예정이다.

"건축 비용은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의 베트남 불교계에서 대부분 조성했고, 홍 쿠안 씨처럼 베트남계 건축 · 인테리어 전문가들이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다"고 전한 노리스(Norris) 위원은 "루이지애나와 뉴올리언스의 베트남계 미국인들 대부분 70년대 전쟁 이후 이민한 이들"이라며 "이들은 미국에서도 베트남 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데 큰 가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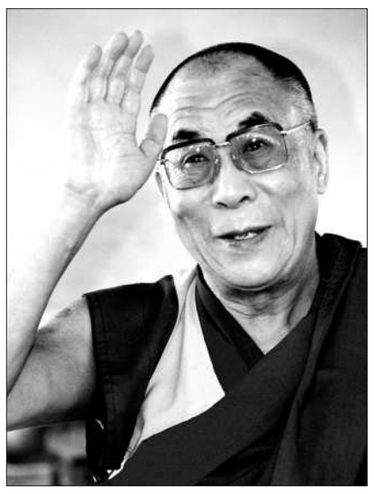
틱 구엔 탐(Thich Nguyen Tam) 스님은 "리엔 호아 반 펫 사원은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의 베트남 불교계 문화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베트남계 젊은이들에게 불교는 물론 베트남의 전통을 가르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스 피카윤지에 따르면 베트남 불교계는 리엔 호아 반 펫 사원의 건축 기간 중 건축 현장 뒤편에 야외 법당을 설치하고 틱 구엔 탐(Thich Nguyen Tam) 스님의 집전으로 매주 한차례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법회에는 매번 400여 명의 불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달라이 라마, 망명 생활 청산설 제기

외신들 "중국 정부와 대화 순조롭게 진행 중"



티베트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사진 왼쪽〉가 인도 다람살라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티베트로 귀국할 수도 있다는 설이 제기됐다.

미국의 소리(VOA)는 9월 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 타임스를 인용하며 "중국 티베트 자치구 우잉제(吳英杰) 당 부서기가 중국 중앙 정부와 달라이 라마 대표간의 대화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달라이 라마에게 중국 산시(山西)성의 불교 성지 우타이산(五臺山) 순례가 허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VOA는 "우 부서기는 달라이 라마가 우타이산 순례 기간에 중국 지도자와의 회담에서 망명을 끝내고 귀국을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달라이 라마가 귀국하려면 티베트가 중국 일부임을 인정하고 '분열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조건을 내걸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소식통들은 달라이 라마와 중국 당국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달라이 라마는 먼저 중국 도시들을 방문한 후 우타이산 성지 순례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고위 간부가 그의 중국 방문 기간 동행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우 부서기가 9월 24일 티베트 수도 라싸(拉薩)에서 달라이 라마 특사와의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티베트 망명 정부(CTA)가 반박함으로써 달라이 라마의 방문설이 불투명해지기도 했다.

인도 다람살라에 있는 CTA의 롭상 상가이 총리는 10월 초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티베트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당국과 공식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지금 현재 중국 지도부와의 공식 접촉이나 대화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달라이 라마는 9월 참석한 독일과 인도 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선의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9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회의에서 "중국 측과 공통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불교가 중화문화 진흥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타이산 성지 순례 희망을 표시했다.

또한 지난 9월 18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 회의 개막식에서 시 주석은 전임 지도자보다 실용적이고 개방적이라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사찰 건립 모금 위한 자선걷기대회

10월 12일 미국 콜로라도서… 상도 빨리 사원 건립 목표



상도 빨리 사원의 조감도

세계 평화 자비 · 지혜 증진을 모토로 건립 중인 상도 빨리 사원을 돕기 위한 자선걷기대회가 10월 12일 전 세계적으로 펼쳐진다.

현재 부다가야, 런던, 몬트리올, 버몬트 등에서 팀이 구성돼 있으며 이외 누구라도 가족, 친구, 직장동료들과 팀을 이뤄 참여하고 기부할 수 있다. 모금 목표액은 7만 5천달러(한화 약 8천만원)다.

상도 빨리 사원은 달라이 라마의 스승이며 자애롭고 영감 넘치는 불교스승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화를 주었던 딜고 키엔체 린포체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건립되는 사찰이다. 티베트 불교의 뛰어난 지도자 파드마삼바바에게 봉헌된 것으로 그의 활동 지역이었던 '구릿빛산(Copper-Colored Mountain)을 뜻한다.

콜로라도 남부 상그레 드 크리스토산의 해발 2830m 높이에 건립되는 빨리 선원은 태양광 발전 등 자족적 시스템을 갖추도록 설계됐다. 걷기 대회 일정은 아침 8시에 시작돼 오후 5시에 참가자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딜고 키엔체 린포체가 입적한 날인 10월 12일에 열리는 걷기 대회에는 모든 계층의 참가자들이 참여해 자비의 마음을 나눌 계획이다.

주최측은 "대회 동참은 기부 여부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파키스탄 5C 사원 유적 발견

페사와르 국립박물관 조사 · 발굴팀 밝혀



페사와르(Peshawar) 국립박물관 조사 · 발굴팀이 주목한 파키스탄 첫 사원지 전경

파키스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원 유적이 발견됐다.

돈〈Dawn〉지는 페사와르(Peshawar) 국립박물관 조사 · 발굴팀의 보고서를 인용, "카이베르 파크툰크와(Khyber Pakhtunkhwa) 주의 소도시 마르시에 있는 자말 카르히(Jamal Garhi) 유적지에서 5세기경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원터를 새롭게 찾았다"며 "이는 파키스탄 불교사에 가장 오래된 사원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자말 카르히 유적지는 간다라미술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만큼 조사나 발굴 프로젝트가 다양하게 진행되는 곳으로, 스투파와 법륜 등을 비롯해 돌로 쌓아올린 건물의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

페사와르(Peshawar) 국립박물관 측은 "이번 조사 · 발굴에서 파키스탄의 첫 사원 유적을 찾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우선 첫 사원 유적으로 추정되는 곳에 대한 보존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자말 카르히 유적지는 1848년 영국 고고학자 알렉산더 커닝햄(Sir. Alexander Cunningham)에 의해 발견됐고, 2012년 후비샤(Huvisha, A.D. 158~195년) 왕의 통치기에 사용된 동전이 처음 발견되면서 세계 고고학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오종욱 편집위원

인도, 제4회 불교 콘클라베 개최

23개국 200여명 참석… 인도 불교관광 패키지에 주목

인도 불교유산의 가치를 조명하는 제4회 불교 콘클라베가 9월 26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됐다.

인도 관광부는 "이번 '불교 콘클라베'는 불교의 기원인 인도를 알리고, 불교의 진면목을 알고자 하는 관광객의 여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이를 위해 불교유적이 많은 비하르와 우타르프라데시 주정부와 공동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 뉴스〈Zee News〉지에 따르면, 이번 불교 콘클라베에는 23개국 200여 명이 동참, 인도 관광부로부터 불교유산을 보존하고 개발하는 데 쏟고 있는 인도 정부의 노력과 그 결과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한편 비하르와 우타르프라데시 주정부에서 내놓은 '패키지 관광 프로그램'에도 호응했다.

"이번 불교 콘클라베는 국내 · 외 관광사업자 간의 프리젠테이션, 패널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고 전한 인도 관광부는 "비하르와 우타르프라데시 주정부에서는 '인도 불교유산'이라는 주제의 전시회도 마련해 이목을 끌었다"며 "이밖에도 안드라프라데시, 아루나찰프라데시, 아삼, 차티스가르, 구자라트, 히마찰프라데시, 카르나타카, 마디아프라데시, 마하라슈트라, 오리사, 라자스탄, 시킴 등 10여 개의 주정부도 부스를 설치해 관광 패키지를 소개했다"고 전했다.

인도 불교유산 관련 관광패키지를 소개하는 '불교 콘클라베'는 지난 2004년 보드가야에서 처음 마련된 이후 나란다(2010년)와 바라나시(2012년)에서 각각 열렸다.

오종욱 편집위원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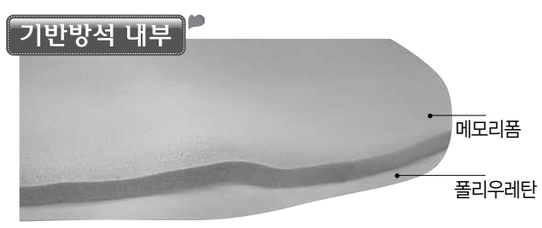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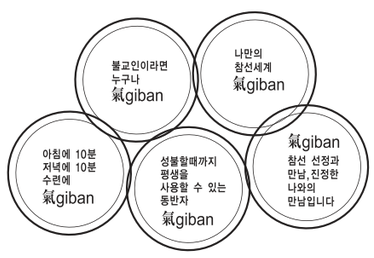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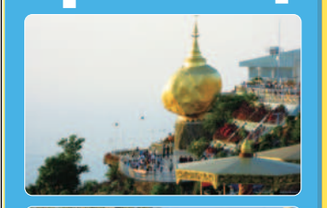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www.hyunbulshop.com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마하연 투 어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상품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 인도

▶ 인도 & 네팔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 인도 & 네팔 7대성지 11일 요금문의
뉴델리 – 바라나시 – 사르나트 – 보드가야 – 나란다 – 라즈기르 – 바이샬리 – 쿠쉬나가르 – 룸비니 – 스라바스티 – 럭나우 – 상카시아 – 아그라

– MAI 미얀마 항공 취항 기념 단 한번의 기회

▶ 만달레이 / 양곤 5일 10월 26일 95만원
▶ 만달레이 / 바간 / 헤호 / 양곤 10월 28일 ~~특가 249만원~~ ➡ 169만원
▶ 만달레이 / 바간 / 양곤 5일 10월 27일 105만원

– 국적기 직항 KOREAN AIR ASIANA AIRLINES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짜익티오 7일 요금문의

–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 전통불교 완전일주 8일 요금문의
갈레 – 누와라엘리아 – 담불라 – 벤토타 – 시기리야 – 아누라다푸라 – 캔디 – 콜롬보 – 뉴델리 – 폴론나루와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 – 상담문의 (수속대행)

중국 4대불산
▶ 구화산 & 보타산 (지장도량&관음도량) 6일 요금문의
▶ 보현도량 (아미산) 5일 요금문의
▶ 문수도량 6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순례 5일 요금문의

태국 방콕 / 파타야 5일 요금문의
캄보디아 / 씨엠립 5일 요금문의
북유럽(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스웨덴) 9일 요금문의
동유럽 3개국 9일 요금문의
서유럽 4개국 8일 요금문의
미서부 7일 요금문의
하와이 5일 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마하연투어 공통사항
① 모든경비 포함 ② 모든 상품 품격 진행
③ 타여행사 비교 필수 ④ 2억원 여행자 보험 가입

찬덕연등의 기술을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기업 보련기획

보련기획은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품전선과 LED전구를 사용하여 직접 시공 관리합니다.

자동 연등 승강 장치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



인등시공




만 월 등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 받습니다.



공 단 등



영 가 등

바 림 등



2015년 달력 접수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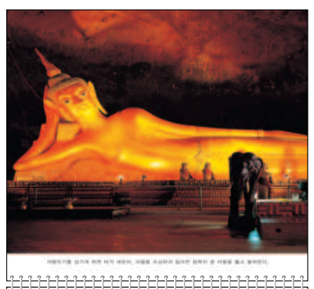


규격 : 15호 국6절 13매(305×308㎜)
29호 12절 13매(257×263㎜)

보련기획 H·P 010-9446-1862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since1973
2015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주) 아트지 · 스노우지로 제작 !! 좋은 종이 가장 싼 제조원가 가격으로!!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송정리 364-2)
TEL.(051)515-8888 인터넷전화. 070-7425-0518 FAX.(051)508-0101 H.P 011-554-2988
◆ 농협 : 0515-8888-09 ◆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


















• 12절(벽걸이형 小)달력
삼천부 이상 @ 800 원
이천부 이상 @ 900 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cm × 26.5cm

• 6절(벽걸이형 大)달력
삼천부 이상 @ 1000 원
이천부 이상 @ 1100 원
• 200부이상 @1,200원
• 규격 : 30.5cm × 31cm

미니달력표지
•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 탁상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금띠지 등표
• 정 가 1,000원
• 200매 이상 @700원
• 규격 : 3.5cm × 70cm
만사대길 • 소원성취 • 학업성취
사업성취 • 삼재소멸 中 택 1
상단 뒷편에 양면테잎으로 되어 있어 원하는 곳 어디든 쉽게 부착가능하며 하단부분은 생,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 수첩달력 200부 이상 @ 650 원
• 100부 @800원 • 매수:18장
• 규격 : 9.5cm × 13.4cm

• 미니달력 200부 이상 @ 450 원
• 100부 @600원 • 매수:16장
• 규격 : 8.9cm × 9.5cm

이승의 감로수 씻어내고 정토에 왕생하소서

故대원화 정옥녀 선생추모음악회' 10월 14일 공연

흰나리 꽃

들녘에 흰 나리꽃 한송이/ 곱게 피어 그 향기 그윽하려나/ 오늘 그 꽃잎을 접고/ 홀연히 이승을 떠나니 오호 오호라/모진 비바람 불어 닥치고/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가녀린 줄기로 곧게 서서/ 한결 같은 믿음과 정진으로/ 굳건히 견디며 꽃을 피우고/ 그 향기 고루 베풀더니만/ 어이 그리 서둘러 떠나시었소/ 왕생길이 그리도 급하시었던가/ 흰나리 꽃 쓰러진 들녘에 서서/ 사무치는 이 마음 어찌 달래나/ 이승의 한 감로수로 씻어내고/ 부디 정토에 왕생하시어/ 윤회 전생 해탈하시고/영원토록 미타 품에서 만복을 누리시라

작사가 반영규 거사가 故정옥녀 선생의 49재를 위해 작시한 '흰나리꽃' 에 작곡가 김만석 씨가 곡을 붙여 초연되는 무대가 마련된다. 일생을 불음홍포를 위해 헌신하다 타계한 '故대원화 정옥녀 선생추모음악회' 가 10월 14일 오후 7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열린다. 정옥녀 선생은 청룡사 마야 합창단을 창단하는 등 한국 불교음악 1세대를 이끈 장본인이다. 이에 청룡사 마야합창단은 38주년 기념음악회와 더불어 올해로 사갑(死甲)을 맞는 정옥녀 선생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마련했다.

이번 음악회에는 법운 스님(청룡사 주지)과 작곡가 정부기 교수의 작품을 중심으로 무대를 꾸몄으며 불교전문 연주단체인 바라오페라단이 함께 협연을 펼친다. 이번 공연의 지휘를 맡은 이준형 씨는 그녀가 한국 불교음악을 이끈 1세대라고 강조한다. "선생님께서는 깊은 신심을 바탕으로 청룡사 합창단을 창단하고 이끈 것은 물론 미국 카네기홀에서도 찬불공연을 올리는 등 불교음악의 현대화를 이끈 1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룡사 합창단은 도선사 조계사와 더불어 가장 오래된 불교합창단으로 불교음악 발전에 많은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바라오페라단과 청룡사 마야합창단이 주최하는 '故대원화 정옥녀 선생추모음악회' 가 10월 14일 오후 7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열린다.

불교음악 1세대 정옥녀 선생
사갑 맞아 추모 음악회 마련
49재 추모시 '흰나리꽃' 공연도

특히, 이번 음악회에서는 작사가 반영규 거사가 작시한 '흰나리꽃' 이 공연돼 주목된다. 흰나리꽃은 정 씨의 49재에서 반 거사가 바친 헌시에 김만석 작곡가가 곡을 붙여 이번 무대에서 초연된다. 반 거사는 정옥녀 선생이 불교음악에 일생을 바친 열정적 불자 음악인이었다고 강조한다. "정옥녀 씨는 40년 전 삼보법회 청년회 회원으로 찬불가를 배웠죠. 이때 합창단이 오늘날 사찰 합창단의 효시가 되었어요. 이후 김용호 선생에게 사사를 받고 죽는 날까지 불교음악을 위해 헌신한 불자입니다. 특히 90년대에 함께한 창작국악교성곡 '불밭에 피는 꽃' 공연은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불밭에 피는 꽃' 은 지장보살의 전생담을 교성곡으로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공연 팀들이 직접 중국 구화산까지 김교각 스님의 흔적을 찾아 순례 여행을 다녀온 후 만든 공연이다. 반영규 거사가 작사하고 김회경 씨가 작곡한 곡을 국립극장에서 공연했는데 당시 정옥녀 선생은 지휘를 맡았다고 한다.

바라오페라단과 청룡사 마야합창단이 주최하는 이번 공연은 소프라노 김양희, 테너 이준형, 김성녀 등이 출연한다. (02)2612-0609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故 정옥녀 선생은

故정옥녀 선생은 1954년 8월22일 서울에서 출생해 고려대 경영대학원과 영국 옥스포드대학 경영대학원을 수료하고 중앙대 예술대학원서 지도자 과정을 수료했다. 故김용호 선생에게 음악이론과 지휘를 사사하고 故김규환 선생에게 작곡을 사사했으며 지소영 선생에게 발성법과 음악이론을 사사 받았다. 이후 1976년 청룡사 마야합창단을 창단하고, 심장병 어린이 돕기 자선음악회, 청룡음악제 광명시민 위안의 밤, 청룡음악제, 2002년 4 · 8 연등축제 연합지휘 등 2002년까지 불교행사 및 연주회를 850여 회 개최했다. 2006년에는 미국 국무성 초청 대한불교관음종 세계평화기원대법회 합창단을 지휘했으며 같은 해 (사)삼보불교음악협회 포교대상을 수상했다. 2006년 9월 30일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강렬한 몸짓언어로 '佛像' 풀어내

〈불상〉

국립현대무용단 '불쌍' …
10월10일~11일 국립극장서

국립현대무용단의 '불쌍' 이 10월10일~11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무대에 오른다. 동양적 세계관을 현대무용과 라이브 디제잉, 설치미술, 영상을 통해 현대적으로 풀어낸 이 공연에는 설치작가 최정화, DJ 소울스케이프, 패션디자이너 임선옥 등 국내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최고의 무대를 펼친다.

'불쌍' 은 안애순 예술감독의 대표 레퍼토리 작품으로서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트 서밋 인도네시아 2013' 의 초청공연으로 현지 관객의 기립박수를 받은 바 있다.

국립현대무용단은 "동양의 대표적인 상징이자 종교적 아이콘인 불상은 그 기원지를 떠나 시간과 장소를 유동하며 변형되고 소비된다. '불쌍' 은 동양의 것도, 서양의 것도 아닌 정체성을 알 수 없는 불상의 모습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에 걸쳐 있는 현대인들의 문화적 취향을 드러낸다. '불쌍' 의 무대는 다양한 이미지들이 더해지고 다시 무너짐을 반복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한다" 고 설명한다. 강렬한 무용수의 움직임과 사운드, 그리고 이미지가 서로 충돌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변종되는 장면은 지속적으로 문화의 유입과 변화 속에 놓인 우리의 현실을 보여준다. 그래서 공연은 선택이 아니라 무방비로 문화의 침범에 노출되는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한다.


국립현대무용단의 '불쌍' 이 10월10일~11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무대에 오른다.

국립현대무용단의 예술감독인 안애순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패션과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패션디자이너 임선옥의 무대 의상, 최근 국내외 개인전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설치예술가 최정화의 불상 오브제와 총천연색의 화려한 소쿠리가 어우러진다. 여기에 힙합과 라운지, 소울 음악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DJ 소울 스케이프의 라이브 디제잉과 키치적인 영상들이 더해진다. 예술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이들의 협업은 무용수들의 유희적이고 즉흥적인 움직임과 만나 독특하고 강렬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입장권은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이다. (02)3472-1421

정혜숙 기자

꽃비 내리는 극락세계 화폭에 펼쳐

통도사성보박물관,은해사 괘불탱화전 내년 4월 22일까지

통도사성보박물관 제31회 괘불탱화 특별전에 '영천 은해사 괘불탱화' 가 내년 4월 22일까지 전시된다.

은해사 괘불탱화는 1750년에 보총, 처일 등 2명의 화승에 의해 그려졌다. 61~64cm 내외의 비단 9조각을 이어 붙여 총고 1,167cm 화고 471.85cm의 거대한 화면에 입상 형식의 여래를 그렸다. 화면의 상부와 좌우 녹색 변에는 범자를 적어 넣은 주색 원문을 일정한 간격으로 그리고 각 원문마다 한 자씩 적은 글자는 상부 15자, 좌우 각 33자로 구성했다.

화면 상부에는 화려한 보개장식이 영락을 늘어뜨리고 화려한 색조의 극락조 3조가 하늘을 날며 그 아래로 붉은 꽃송이의 산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중앙의 본존 여래는 두 개의 연꽃 위에 두 발을 내딛고 서서, 오른손은 아래로 늘어뜨리고 왼손은 가슴 아래에 대어 손바닥을 위로 향하고 있다.

권속을 대동하지 않고 본존 여래만을 단독으로 등장하는 단순한 형태로 이러한 불화는 대개 영산회상의 석가모니불로 인식되어 18세기에 유행했던 형식이다. '은해사 괘불탱화' 는 주존의 구성과 배치, 상호나 의습문양, 연못 위에 두 발로 서있는 장면 등은 같은 해에 제작된 '은해사 대웅전 아미타 후불탱화(1750)' 와 동일한 양식이다. 은해사 괘불탱화는 여기에 주존 아미타불만을 분리하여 독존상으로 도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해사 괘불탱화는 기존의 영산회를 위한 괘불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정토왕생과 보다 밀접한 아미타불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055)382-1001

정혜숙 기자


영천 은해사 괘불탱화

취운향당, 20주년 특별전시

10월 12일까지 울산 중강갤러리서

한국전통향가 취운향당(대표 능혜 스님)이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특별 전시회를 마련했다. 10월 12일까지 울산 중강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 향과 다양한 향 도구들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향의 역사와 유래, 전통향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현대인들의 삶과 문화를 윤택하게할 침향발효차를 소개한다. 또한 향과 향로, 향 도구, 침향과 각종 향원목, 침향비누 등을 선보인다. 한편, 취운향당 침향발효차 감로다반은 차 관련 제품으로 스위스 영양학회지 〈NUTRIENTS〉에 국내 최초로 등재된 바 있다. (054) 933-6371

생전예수재 장엄 안내문



귀의삼보하옵시고!

가람수호에 정진하고 계시는 각 사암 대덕큰스님 법체 존안하시옵니까.

소승은 대구시내에서 불교의식 및 범음, 범패교육원을 개설하여 불교의식을 지도하고 있는 원장(동현)스님입니다. 올해 소승이 4년마다 돌아오는 윤달이 들어있는 갑오년을 맞아 예수재 장엄일체를 제작하였습니다.

부족하나마 50년을 불교의식을 해온 것을 토대로 의식에 밝은 스님들의 고견을 얻어 장엄을 준비하였습니다. 처음예수재를 올리시는 각 사암 스님들을 위하여 올바른 재단 설치와 번 설치 순서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예수재장엄 구입방법은 전화로 접수하여 주시고 받으실 주소와 사찰명,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물품대금은 선결제입니다.
통장 입금 확인후 3일 이내에 택배로 배송해 드립니다.

- 물품구입처 : 대구불교 의식 범음,범패 교육원
- 계 좌 번 호 : 대구은행 508-11-906861-6 (예금주 : 주동주)
- 예수재 의식을 집전하실 스님도 알선해 드립니다.

대구불교 의식 범음,범패 교육원장 석 동현 합장

동현스님 장엄 (생전예수재)

상표출원번호
제 40-2014-0040849호

1 대번


2 상단,중단,하단 위패


3 시왕단


4 26위판관 / 37위귀왕


5 사자단


6 고사단


7 영단


8 금란방, 정제소


9 예수시왕도량


10 일백사위 사화


• 주소 : 대구시 수성구 범물2동 871-1번지 • 문의처 : 전화 053)781-4200 / HP 010-2547-4200

문화

30년전 여대생 찬불가수 스님으로 다시 무대에

천재일우 콘서트 여는 백석사 주지 수월 스님



수월 스님의 반야심경 콘서트 '천재일우'가 10월 15일 저녁 7시 부산 KBS홀에서 열린다. 여대생 가수는 이제 수월 스님이라는 이름으로 30년전 그때의 노래를 다시 부르며 무대에 오른다.

출가후 30년 만에 음반 발매
찬불가 판소리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 공연 무대에 올려
10월 15일 부산 KBS홀서 공연

30년전 동국대 철학과에 다녔던 여대생은 반야심경에 곡을 붙인 노래로 화제를 모았다. 6년 동안 세 장의 찬불음반을 냈고 그때마다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또 한달 가량 진행했던 장기 공연은 연일 만석을 이루며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던 어느날 홀연히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출가를 했다. 그렇게 선방수좌로 보현암 불영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행을 하는 동안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어느날 스님은 뒷산으로 포행을 갔다가 산천초목이 노래를 들려달라는 소리를 들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잊혀졌던 음악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났다.

여대생 가수는 이제 수월 스님이라는 이름으로 30년전 그때의 노래를 다시 부르며 무대에 오른다. 수월 스님의 반야심경 콘서트 '천재일우'가 10월 15일 저녁 7시 부산 KBS홀에서 열린다. 스님은 이번 공연에서 예경제불가, 백년을 살지라도, 발원문, 판소리 '발심수행장', 자기, 그 누가, 나, 오소라, 작은 접시, 부처님 마음, 뮤지컬 '님의 침묵', 우리말 반야심경 등을 공연한다.

"유학생활을 하고 돌아와 출가를 결심하고 해인사로 출가를 했죠. 누구에게도 제가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어느날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생각에 선방을 나와 포교당을 열고 지난해 음반을 내게 되었죠. 물론 신디사이저로 편곡했던 당시의 곡들을 클래식으로 편곡해 대중들이 편하게 듣고 따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뮤지컬 '님의 침묵'은 30년 전 공연 당시 매우 화제가 되었던 공연이었죠. 그때의 대본을 수정해 지역 음악인들과 함께 새로운 무대를 보여줄 것입니다."

30년 전 여대생에서 수월 스님으로 노래를 부르게 된 스님의 소감은 어떨까? "오랜 시간을 쉬었다가 노래를 부르려고 하니 너무 힘들었죠. 하지만 세상에 100% 좋은 일도 없고 또 나쁜 일도 없잖아요. 예전에 제 목소리가 카랑카랑한 고음의 느낌이라 듣기에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대중들이 따라 부르기에 좋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살아온 세월만큼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목소리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좀더 편하게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스님은 당시 동국대 철학과 학생으로 작곡가 유승엽 씨의 공연을 보러갔다가 1984년 데뷔 음반을 내기에 이르렀다. 당시 우리말로 푼 '반야심경'은 세간에 화제를 모았다. 각종 일간지에서 유명 작곡가가 곡을 붙이고 대학생이 부른 이색적인 종교음악이라는 타이틀로 비중 있게 다뤄질 만큼 주목을 받았다. 이후 2집에서는 법정 스님 〈진리의 말씀〉 중 10편을 뽑아 곡을 붙였는데 그 중에서도 등불, 백년을 살지라도 등은 크게 화제가 되었다. 3집은 수안 스님의 시에 곡을 붙인 '오소라'로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모았다고 한다.



천재일우 공연 포스터

"텔레비전 뉴스와 4대 일간지에 소개가 될 만큼 대대적인 관심을 모았어요. 불자뿐만 아니라 비불자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정도로 주목을 받았죠. 찬불가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오소라'는 제가 출가한 후에 드라마 주제곡으로 사용될 만큼 인기를 모았다고 해요. 특히, 제 음반은 해적판이 나올 정도였는데 당시 해적판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증거였죠.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가 음악으로 불교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현재 부산 BBS에서 '물 같이 바람 같이'라는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스님은 아직 불교음악이 대중들을 감동시키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며 아쉬움을 토로한다. "방송을 진행하며 다양한 음악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찬불가 중에 귀가 번쩍 뜨이는 곡은 아직도 많이 없는 듯 보여요. 음성포교는 부처님 말씀을 쉽게 알린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죠. 또한 음악은 대중을 하나로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포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불자 비불자를 떠나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불교음악이 아직은 없는 것도 사실이죠. 앞으로 좋은 곡들을 만들어 대중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스님은 대중들에게 불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공연도 기획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부처님의 뜻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공연을 만들고 싶어요. 이번 공연은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사정상 하루밖에 공연을 올릴 수가 없어요. 앞으로 다양한 장르의 곡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곡들을 만들어서 전국 각지를 다니며 장기 순회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인연 닿는대로 좋은 공연을 만 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051)930-9933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내일 아침 어찌 다시 험한 세상 밟으랴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㊴ 직지사 ㊦



직지사로 들어가는 '동국제일 가람 황악산문'. 김종직은 직지사에서 소나무 · 삼나무 숲에 자신의 선비정신을 빗대어 시를 지었다.

푸른 소나무 같은 선비정신

점필재 김종직의 시는 한가한 선비들의 절 나들이 풍경이다. 훈훈한 바람에 보리가 익어가는 4월쯤이 시간적인 배경이다. 제목에 언급 되었듯이 그 나들이 길의 주역에는 군수가 끼어 있다. 직지사가 속해 있는 김천 지역의 군수와 어울리는 지인들일지니, 고위급의 행차다. 그래서 스님은 손님을 맞이하고 새벽에는 죽을 쑤어 바친 듯하다.

선비들에게 절에서의 하룻밤은 풍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만, 그 속에 고매한 정신의 탐구가 있으니 놀이가 전부인 것만도 아니다. 특히 김종직은 직지사에서 가까운 선산에서 아버지 김숙자로부터 글을 배우며 자랐다. 김숙자는 고려 유학의 맥을 이은 길재선생의 제자다.

아무튼 김종직은 이날 직지사에서 어릴적 글 읽던 추억을 떠올리며 여전히 무성한 소나무 삼나무 숲에 자신의 선비정신을 빗대고 있다. 30년 전의 글 읽던 학동이 이제는 한 시대를 풍미하는 대학자가 되어 소나무 같은 기상을 떨치고 있음이다.

동화십재구미진(東華十載久迷津)
금일선방안각건(今日禪房岸角巾)
상후오비혼탈엽(霜後烏[翍]渾脫葉)
월중앙와점생린(月中鴦瓦漸生鱗)
전반향세한경촉(篆盤香細寒更促)
불탑등혼연어진(佛榻燈昏軟語眞)
만이석천청불매(滿耳石泉淸不寐)
명조기내답홍진(明朝其奈踏紅塵)

10년 동안 동화에서 오래 길을 헤매다가
오늘날에 선방에서 각건이 비스듬하네.
서리 뒤의 오비는 잎이 모두 졌는데
달빛 속의 원앙와는 차츰 비늘을 번득인다.
전반의 향이 쇠잔하여 찬 밤을 재촉하고
불탑에 등불이 어두운데 부드러운
말이 진정이네.
귀에 가득한 돌샘물 소리 맑아
잠 못 들거니
내일아침에어찌다시험한세상을밟으랴.

〈속동문선(屬東文選)〉 제8권에 전하는 이 칠언율시(七言律詩)의 제목은 '숙직지사여선원동부(宿直旨寺與善源同賦)'이다. 조위(曺偉 1453~1503)의 작품이다. 조위는 김종직과도 상당히 친교가 두터웠다. 그는 7세 때 이미 시를 지어 주위를 놀라게 했으며 성종 때 실시한 사가독서(賜暇讀書)에 첫 번째로 선발되기도 했다. 사가독서란 임금이 직접 명하여 휴식을 취하며 독서에 전념토록 하는 일종의 특별휴가 제도로 상당한 학문과 문장의 성취를 이룬 유망주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영광이기도 했다. 조위는 국문학사적으로 최초의 유배가사의 효시로 꼽히는 '만분가(萬憤歌)'를 지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인물이다.

직지사의 밤풍경 그리고 깨우침

시를 보면 조위는 친근한 김선원이라는 사람과 함께 직지사에 와서 묵으며 시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 김선원이 어떤 인물인지는 김종직의 〈점필재문집〉 제1권에 나오는 '죽은 친구 김선원 보에 대한 애사(亡友金善源甫哀辭)'를 통해 알 수 있다. 글에서 김종직은 어릴 때 김선원과 더불어 황악산 능여사(能如寺)에서 함께 글을 읽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능여사(암)는 직지사에 딸린 암자였으나 6.25때 불타 없어졌다.

아무튼 조위는 김선원과 함께 직지사를 방문해 유숙하며 이 시를 지었다. 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통해 조위는 상당히 불교에 호의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첫 구절 '10년 동안 동화에서 오래 길을 헤매다가'라는 표현은 유학의 길에서 오랜 시간을 헤매고 다닌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여간 당당하지 않다. 동화(東華)란 유학을 하는 관료라는 의미다. 당나라 때 한림학사(翰林學士)가 처음 임명될 때에 동화문(東華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동화'는 유학자의 등용을 뜻하는 말이 되었다.

유학의 길을 떠돌다가 직지사로 온 시인이 직접 참선에 들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함련과 미련에서 시는 선방에 앉아 수행하는 자의 눈으로 전개된다. 서리 뒤에 나뭇잎이 다 지고 원앙처럼 암수가 어울려진 기왓장은 달빛을 받아 물고기 비늘처럼 번들거린다. 그렇게 밤은 깊어 그윽하게 타들어 가는 향이 더욱 밤을 재촉하고 탑의 등불도 어두워지는 시간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점점 부드럽게 다가오는 것이다. 말하자면 모종의 깨우침이 다가오는 것이다.

그렇게 직지사의 밤이 깊어 새벽을 향해 가는데, 돌샘물 소리 가득한 직지사의 밤 풍경 속에서 조위는 내일 아침 다시 번뇌로 들끓는 세상으로 갈 일이 까마득하기만 하다.

이월금릉설반소(二月金陵雪半消)
신파명옥출송교(新波鳴玉出松橋)
우연승흥래유처(偶然乘興來遊處)
계영천운만학요(桂影穿雲萬壑遙)

이월의 금릉 당 눈은 반쯤 녹았고
새 물길 옥 같은 소리로
소나무다리를 흐르네.
우연히 흥겹게 놀 곳을 찾아오니
계수나무 그림자 구름을 뚫고
골짜기 가득 노래 소리일세.

16세기의 문신으로 벼슬이 부제학에 이르렀던 이정(李楨 ?~?)의 문집 〈구암선생문집(龜巖先生文集) 제1권 속집에 전하는 칠언절구다. 제목은 '유직지사 정미(遊直指寺 丁未)'로 되어 있으니 정미년에 직지사에서 묵으며 쓴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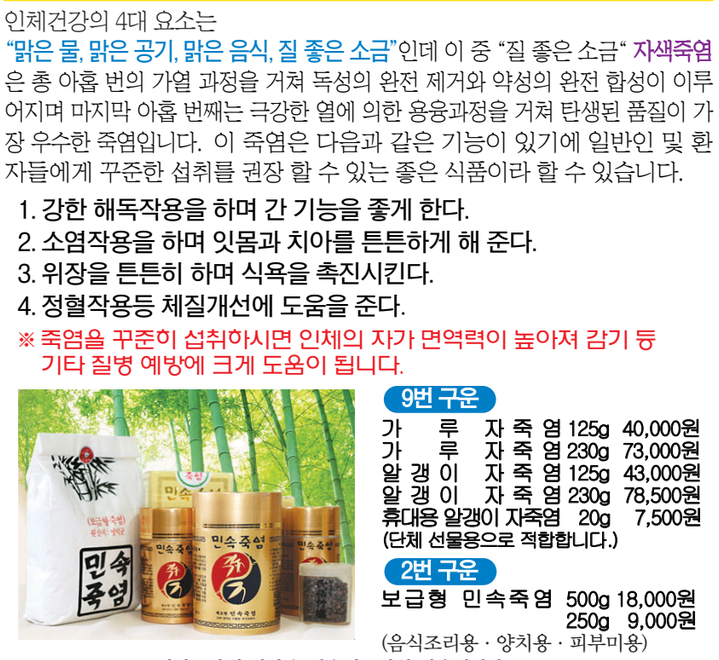
계절적인 배경은 2월이다. 아직 추운 때인데 직지사가 있는 금릉 땅에는 눈이 반쯤 녹았다는 서술로 시가 시작된다. 봄이 가까이 왔음을 암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곧바로 시냇물이 풀려 소나무 다리 아래로 옥구슬 같은 소리를 내며 흐른다는 표현이 나오니, 눈 녹아 흐르는 물소리로 청각을 자극한다. 물론 '눈이 녹은 물'은 무명번뇌를 버린 뒤의 깨달은 경지를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흥겹게 놀 만한 곳을 찾아 온 풍류를 내비치며 직지사 계곡의 봄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 즉 본래불성을 향해 곧바로 손가락을 가리킨다는 직지사. 진리의 원음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수행의 역사로 이어온 직지사에서 선비들은 자신의 '그릇'에 알맞은 나름대로의 견처(見處)를 확보했을 것이다.





환인동 요가마을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24 ~ 9/3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제1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모과나무
3	사찰의 비밀	자현	담앤북스
4	이것이 깨달음이다	백창우	김영사
5	사랑이 온다(화해와 치유의 힐링 그림편지)	이영철	해조음
6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7	그저 인간이 되고 싶었다	홍일	불광출판사
8	불교 인식론과 논리학	카츠라 쇼류	운주사
9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법보신문 연재 카툰)	김재일	책앤
10	흔적 없이 나는 새(전심법요)	수불	김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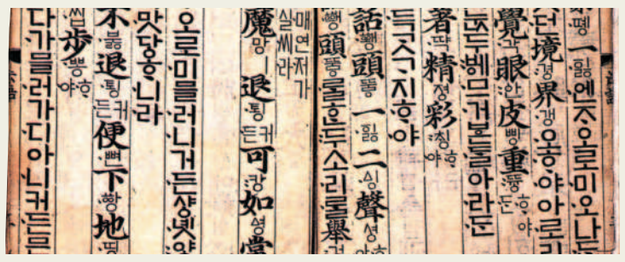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신미대사가 한글 자모 만들어”… 새 주장





천강에 비친 달
정찬주 지음
작가정신 펴냄
1만5천원



“신미대사가 세종대왕의 초빙을 받아 집현전에 참석하게 되었다. 신미대사는 모음과 자음을 범서(梵書)에서 착안하여 훈민정음을 마무리 지었다.”

지금까지 한글(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창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소설가 정찬주가 소설 〈천강에 비친 달〉을 통해 세종과 함께 한글을 창제한 것은 집현전 학사들이 아니라 당시 범어(梵語)에 능했던 신미대사였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소설은 신미대사가 세종의 명을 받아 비밀리에 훈민정음 28자를 만들어내는 역사적 비밀을 파헤친다. 서두는 복천사에 전해지는 〈신미당 수암 대선교종사 실기〉 중 훈민정음 창제에 관한 기록이다. 소설은 〈조선왕조실록〉, 〈사리영응기〉 등 문헌에 남아있는 기록들을 바탕으로 그 동안 역사에서 사라졌던 ‘신미대사’ 라는 인물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소설이 주장하는 신미의 역사적 존재가 사실이라면 ‘한글 창제’ 라는 어마어마한 역사에서 ‘신미’ 라는 이름을 왜 볼 수 없었던 것일까.

소설은 조선시대 세종 2년(1420), 흥천사에서 열린 원경왕후의 4재에 참석한 세종과 사미를 갓 지난 신미가 만나면서 시작된다. 그날 신미는 스승 함허의 지시에 따라 염불을 외우게 되는데, 어머니 원경왕후를 떠올리며 슬픔에 잠겨 있던 세종은 맑고 청아한 신미의 염불 소리에 위로를 받는다. 그로부터 두 달 뒤, 세종은 이른바 ‘대장경 외교’ 에 관한 지혜를 구하기 위해 함허와 신미를 은밀히 궁으로 부르는데, 이때 신미는 임금인 세종에게 모든 백성이 〈대장경〉이나 유가의 경전을 볼 수 있도록 한자가 아닌 우리 글자를 만들어달라고 청한다. 이후 세종과 신미는 비밀리에 우리 글자를 만드는 일에 착수한다.

세종이 즉위한 지 19년(1437)이 되는 초가을, 신미는 대자암에서 세종이 알려준 글자 원리를 가지고 범자의 자음과 모음처럼 가획(加劃)을 해가며 글자를 연구한다. 때문에 저자는 “한글 28자는 절에서 태어난 것이다.”고 말한다. 세종 20년(1438) 신미의 나이 36세가 되던 해, 세종은 신미가 자유롭게 궁궐을 출입할 수 있도록 신미를 집현전 학사로 제수하지만 유신들의 질시와 끈질긴 모함으로 신미는 집현전을 떠나 정음청(正音廳)이라는 임시 관청에서 연구를 계속하게 된다. 1438년, 우리 글자 28자가 완성되고, 신미는 처음으로 〈원각선종석보〉를 우리 글자로 언해하여 출간한다. 이것은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 사실을 집현전 학사들에게 공개하기 5년 전의 일이었다.

소설에서 세종은 신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그의 이름을 기록할 수 없었다. 우선 ‘숭유억불’ 이라는 건국이념이 ‘신미’ 라는 ‘불명(佛名)’ 을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허락하지 않았고, 명나라를 섬겨야 하는 조선에서 한자가 아닌 다른 문자를 생각한다는 것은 ‘반역’ 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미 자신도 보이는 것에 미련을 두지 않았기에 ‘신미’ 라는 이름은 찬란한 역사에 남지 않았던 것이다.

소설은 최근에 발견된 〈원각선종석보〉가 한글창제의 주역이 신미대사였다는 결정적인 단서임을 보여준다. 신미대사가 만든 훈민정음 언해본 〈원각선종석보〉의 발간 시기는 1483년으로, 세종의 한글창제 반포(1446) 8년 전이었다. 이는 훈민정음이 이미 8년 전에 비밀리에 만들어져 신미대사와 수양, 안평 등에 의해서 실험과정을 거쳐 왔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글창제와 관련된 ‘범자 모방설’ 은 신미의 한글 창제설의 사실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 조선 초 유학자인 성현의 〈용재총화〉나 이수광의 〈지봉유설〉에서는 “언문이 범자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세종, 신미 보호 위해 밝히지 못해
방증자료, 신록 등 문헌 곳곳서 발견돼
“세종은 ‘억불’ 아닌 ‘숭불’ 의 임금”
고증 통해 ‘한글창제’ 비밀 풀어내
팩션 넘어 역사적 복원 시도

소설은 수수게끼로 가득 찬 한글 창제의 진실을 〈조선왕조실록〉을 바탕으로 풀어간다. 이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에 문학적 상상력을 가미한 일반적인 팩션과는 다른 것으로, 흙속에 묻힌 유물을 건져내듯이 이 시절에 묻힌 역사의 퍼즐 조각을 찾아내는 ‘작업’ 으로 볼 수 있다.

“전하께서 〈석보상절〉을 참고하시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는 찬불가를 훈민정음으로 지으시면 어떠하겠사옵니까?”

“달이 천 개의 강에 비치듯 석가모니 부처의 교화가 온 백성에게 드리우는 노래이니 글자 그대로 〈월인천강지곡〉이 되겠구려.”

세종은 오백팔십여 장(章)의 〈월인천강지곡〉을 몇 달 만에 지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찬불가라고 할 수 있는 〈월인천강지곡〉은 이렇게 탄생했다.

“〈대장경〉을 무지렁이 백성들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우리 글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가여워했던 두 사람. 하여 조선의 글자를 꿈꿨던 두 사람. 두 사람은 우리 글자를 만들어, 천 개의 강에 비치는 달빛과 같이 만백성의 고통을 어루만져주고 싶었던 것이다.

소설은 ‘한글 창제’ 의 주역이면서도 역사에 기록되지 못했던 신미대사의 이야기를 통해 유 · 불의 갈등과 왕권과 신권의 대결 등 한글 창제를 둘러싼 시대상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세종 31년(1449) 12월 6일. 세종이 내불당 불단에 친히 곤룡포를 올린다. 세종의 명으로 내불당 마당에 도열한 261 명의 유신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고개를 돌리지도 못한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다. 숭유억불의 이념을 받들어야 할 임금 세종이 공개적으로 부처님께 귀의한 것이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다. ‘숭유’ 를 내건 나라 조선, 그 조선의 임금 세종은 ‘숭유’ 가 아닌 ‘숭불’ 의 임금이었다. 소설은 두 개의 큰 이야기로 전개되는데, 하나는 한글창제의 주역이 신미대사라는 것과 또 하나는 조선의 임금 세종이 ‘숭유’ 의 임금이 아니라 ‘숭불’ 의 임금이었다는 것이다. 소설은 한글 창제라는 역사적 사실을 그리며, 한편으로 한글 창제에 영향을 끼친 불교가 우리 민족 사상의 중심임을 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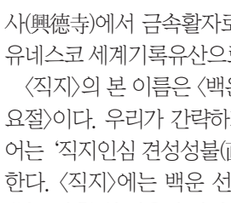
〈천강에 비친 달〉은 방대한 지식과 예리한 역사의식으로 엮어낸 서사와 역사적 현장에 직접 들어온 듯이 생생한 묘사, 인간사에 대한 밀도 높은 통찰력이 어우러진 작품이다. 이는 문학적 ‘허구’ 를 넘어 역사적 진실의 올곧은 ‘복원’ 을 시도함으로써 ‘소설’ 의 지평을 넓혔다.

박재완 기자

일체의 존재가 ‘하나의 마음(一心)’

〈직지심경〉 3권

백운 초록 | 덕산 역해 | 비움과 소통 | 전3권 4만2천원



〈직지심경(直指心經)〉은 고려시대의 고승 백운경한(白雲景閑, 1299~1374) 선사가 펴낸 공안(公案: 화두) 위주의 선문답 모음집으로 선(禪)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고려 선종사에서 귀중한 문헌이면서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으로서 귀중한 유산이기도 하다.

책은 그동안 역사 교과서나 박물관에서만 마주하던 〈직지심경〉의 고귀한 정신을 저자인 덕산 스님이 염불선(念佛禪)의 깨달음 체험을 바탕으로 현대인들도 알기 쉽게 설명한 해설서로, 저자인 덕산 스님이 2006년, 2009~2010년에 청주 시민과 불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직지심경〉은 선(禪)의 수행 지침서로서, 중심 주제인 ‘직지심체(直指心體)’ 는 사람의 본래 심성이 곧 ‘부처님의 마음(佛心)’ 임을 깨달아 완전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실현하며 살라는 가르침이다.

〈직지심경〉을 줄여서 부르는 〈직지〉는 1372년(공민왕 21)에 저술되었다. 1377년 청주목의 흥덕사(興德寺)에서 금속활자로 인쇄되었는데,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禪 교과서 〈직지〉 염불선으로 해설
여주 취암사 목판본 저본으로

〈직지〉의 본 이름은 〈백운화상초록 불조직지심체요절〉이다. 우리가 간략하게 부르는 〈직지〉라는 단어는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 을 뜻한다. 〈직지〉에는 백운 선사가 편집한 〈선문염송〉 〈치문경훈〉의 내용과 과거 7불(佛)의 게송,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받은 인도의 가섭존자로부터 28조 달마 스님까지의 게송이 들어있고, 중국 140여 선사들의 선의 요체 등 여러 고승들의 법거량과 선문답, 일화가 상 · 하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돈오의 길, 직지심경〉은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본 〈직지심체요절〉보다 1년 후에 간행된 우왕 4년(1378) 간행된 여주 취암사 목판본을 저본으로 했다.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인 〈돈오의 길 직지심경〉 상(上)권은 〈직지〉 원문의 상권에 수록된 과거 일곱 부처님과 인도의 28조사의 깨달음의 노래와 선문답을 모아 해설한 것이다. 간화선을 비롯한 참선 수행자는 물론 간경, 염불, 다라니 등 모든 불교 수행자들의 마음공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中)권은 〈직지〉 원문의 상권에 수록된 중국의 조사 48분의 깨달음의 노래와 선문답을 모아 해설한 것이다.

하(下)권은 〈직지〉 원문의 하권에 수록된 중국의 선사 90분의 깨달음의 노래와 선문답을 모아 해설한 것이다.

선(禪)은 언어나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以心傳心) 법등을 이어가는 것을 전통으로 삼는다. 선종의 초조인 달마 대사는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 마음이요,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는 것도 곧 나의 마음이다.”고 했다. 이것은 선이 언어 이전의 진실한 마음을 찾는 수행임을 말해준다. 선지식이 수행자의 참문(參問)을 받으면 주장자를 휘두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손가락을 세우거나 발을 들어 올려서 가르치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또한 선은 언어나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는 종지를 전할 수가 없다. 선지식들의 언행을 기록한 선어록들은 언어와 문자를 부정하는 말로 가득 차 있지만, 그 부정은 또한 언어나 문자를 통해서 표현된다.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문자를 부정하는 모순이야 말로 선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준다. 번뇌 망념에 의한 분별지가 아니라 본래 청정한 무분별지(無分別智)로의 회귀야말로 선어록이 간행되는 이유일 것이라 생각된다. 선가에서 유통되는 수많은 선어록은 모두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저술된 것들이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이번에 덕산 스님이 역해한 〈직지심경〉 또한 그러하다. 한국의 대표적인 공안집인 이 책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가섭, 아난으로 이어져 온 인도의 조사들과 달마 조사 이래 중국 선종 조사들이 이심전심으로 이어 온 심지(心地: 마음자리)에 즉입하는 골수법문으로 일컬어져 왔다.

덕산 스님은 〈직지심경〉을 번역하고 해설한 〈돈오의 길 직지심경〉을 통해 염불수행으로 체험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일체의 존재가 ‘하나의 마음(一心)’ 임을 밝히고 있다.

간화선(看話禪) 수행의 어려움을 느끼는 출가 수행자나 바쁜 일상 속에서 수행할 여가가 없는 재가자들은 이 책을 통해 깨달음이 결코 성취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라 차 마시고 밥 먹는 가운데 늘 함께 하는 것임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저마다 지닌 불성을 가리키는 성품이나 본래면목, 일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진여자성에 마음을 두고 수행할 경우 참선이나 염불, 절하기, 사경과 같은 다양한 수행법이 모두 불조(佛祖)의 안심(安心) 법문을 체득케 하는 방편이란 법문은 다양한 수행법을 가진 구도자들에게 희망을 선사할 것이라 생각된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泰華禪學大辭典
세계 最多 표제어를 수록한 漢文 선학사전

❶ 천안 平心寺 淨圓스님이 평소 閱藏, 譯經, 編著 과정 중 각종 燈史 · 語錄 · 淸規 및 《祖庭事苑》 · 《禪林疏語考證》 · 《禪林象器箋》 등에서 수집한 詞目에 중국 · 대만 · 일본 · 한국 4국에서 발행한 현대 불교사전류 20종을 대조 첨삭하여 엮음.
❷ 표제어에 한글음 병기, 배열순서는 첫째 한자 부수, 둘째 한글 가나다순.
❸ 표제어 33,475 예문 25,899 補註 1,200여 개.
❹ 부록 : 서역 · 중국 · 한국 · 일본의 禪燈 系譜 略圖 (57쪽)



3책(3,000쪽). 번체자. 12포인트. 4×6배판. 하드. 양장. 정가 30만원. 잔량 70부.

구입문의 : 041)566-7503 평심사
입금 : 우체국 311787-02-000518 (김호열)
· 《祖庭事苑》 · 《禪林頌句集》 · 《五宗錄》 (원문 및 역주) 각 10만 원.
· 《大藏辭苑》 50만 원. 《碧巖錄》 (1996 초판. 手書. 2책) 20만 원.
· 예약접수 : 《禪門拈頌集標註》(2책 인쇄중) 20만 원.

"연기법 수행은 선수행법인 심법과 회통"

이것이 깨달음이다

백창우 지음 | 김영사 펴냄 | 2만8천원



국내에서도 참선 수행, 염불 수행, 요가 수행 등 여러 수행법을 통해 영원한 자유인 깨달음의 세계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백창우 거사는 스스로 깨달음의 공부과정을 통해 겪었던 것을 정리해 "이 공부를 하는 도반님들을 위해서 필요한 안내서를 쓰고 싶었다. 멀리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중년의 늦은 나이에 수행을 시작한 저자는 공부 하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다. 깨달음의 답을 얻고자 무척 애를 태우고 노력했지만 명확한 지침서가 없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경전에 의지해보려고 했다. 그러나 초보자에게 경전은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다면 뒤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고생하지 않고 쉽고 분명하게 공부하는 길을 만들어주고 싶은 원력이 생겼다. 한편으로 지금까지 깨달은 사람들이 후학을 위해서 진정한 지침서를 남기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제 깨달음은 소수만이 향유하는 시대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깨어나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깨달음이 대중화돼야 너와 나의 구별조차 없어져 인류가 진정 평화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는 "처음으로 맞이하는 영성시대에 모두가 성불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 책이 그 길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했다.

이 책은 영원한 자유를 찾기 위한 수행의 시작부터 깨달음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방편과 경계, 공부 점검, 깨달음 이후의 세계까지 담고 있다.

저자는 공부 하면서 생겨나는 의문들을 해소하고, 수행 중에 옆길로 샐 수 있는 가르침이 많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글을 썼다.

이 공부에 갓 입문한 사람은 바른 안목이 없기에, 잘못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럴듯하게 여겨지는 가르침에 속기 쉽다. 우리의 의식층이 다양하고 각각의 심층 의식이 주는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은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드러나는 심층의식 영역을 궁극이라고 잘못 알기 쉽다. 저자는 "공부가 깊어감에 따라, 그만큼의 의식 수준이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궁극의 공부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공부인은 중간과정을 붙잡고 공부가 끝난 것으로 착각한다.(…)그리하여 기이한 심리적 현상들에 현혹되기 쉽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교 경전서도 이야기하지만, 초심자가 그것을 알기가 쉽지 않다."고 조언한다. 이 책은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설명했기에 초심자들도 쉽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책은 수행이란 무엇인지부터, 연기법을 통한 깨달음, 연기법과 심법의 회통, 무아와 불성을 넘어 공부인의 자세와 공부의 과정, 공부 중 발생하는 장애, 수행 방법, 깨달음이 무엇인지, 깨달음 이후의 세계까지. 깨달음 공부의 A부터 Z까지 순서대로 담고 있다.

또 그 설명 또한 어렵지 않게 누구나 읽을 수 있게 쉽게 풀어썼다. 깨달음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든 많이 배운 사람에게든 공평하기 때문이다.

특히 저자는 이 책에서 연기법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연기법 수행은 "여타 수많은 수행과 차별된다. 굳이 힘들게 다리를 꼬고 용쓰지 않아도 된다. 생각만 할 줄 알면 얼마든지 가능한 수행"이라며 "한 알의 사과는 사과나무만 있어서는 결코 열릴 수 없다. 사과나무는 물론이고 공기, 태양의 에너지, 땅속의 영양소, 농부의 노력 등 많은 요소가 함께해야 가능하다. 결국 한 알의 사과는 이러한 수많은 요소가 함께한 결과이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과나무는 또한 수많은 요소가 함께한 산물이다. 이러한 각각의 요소들 또한 마찬가지로 수많은 요소가 함께한 결과이다. 이것을 더욱 외연을 넓히면서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우주의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사과 한 알에 작용하여 형상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연기적 사유라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의 오관에 직접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부분을 사유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저자 중년 늦은 나이에 수행 시작

수행 방편, 경계, 점검 과정 소개

연기법 수행의 중요성 특히 강조

저자는 또한 이런 연기법의 이치를 깊이 사유하면 마침내 허공이라고 알고 있던 진공 속에서 일체의 존재가 묘하게 나타난다고 전한다. 저자는 이런 연기법 수행은 선수행법인 심법과 회통한다고 말한다. 존재는 공이고, 존재는 연기한 것이기 때문이며 존재는 공이라는 것이다.

오늘날은 특히 영성이 필요한 시대이다. 문명의 이기를 통해 편리한 삶을 살고 있지만,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하나 이상의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할 만큼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이성의 한계가 초래한 부작용이다. 이제 이 영역을 포괄하여 우리의 본성인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개개인이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되면 더 나아가 모두가 세상의 참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깨달음이다〉는 바르고 건강한 깨달음의 길에 기존 수행법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쉽고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수행서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백창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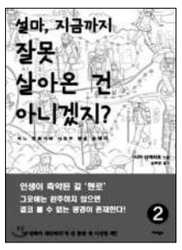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의문들에 대한 기존의 설명은 모호했다. 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지 강한 의문이 들었다. '내가 깨닫는다면 반드시 명확하게 설명하리라' 고 원을 세웠다. 이 공부가 무엇인지 몰라서 사이비 가르침에 빠져 수행자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도 막고 싶었다. 그래서 처음엔 인터넷과 카페를 통해 깨달음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지금은 대적광서울센터, 지리산센터, 부안센터에서 가르침을 펼치며 KBS 제1방송과 불교방송 등 방송활동도 하고 있다. 저자가 지도하는 일주일간의 집중수행을 통해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다. 저서로 수행지침서인 〈명쾌한 깨달음〉이 있다.

"왜 세상은 꿈만 쫓고 꿈을 포기하란 말은 안 할까?"

설마,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건 아니겠지 1, 2

시마 타케히토 지음 | 애니북스 펴냄 | 각 8500원





'헨로' 란 지금으로부터 약 1,200년 전 진언종의 창시자 코보 대사가 수행을 위해 시코쿠의 88개 사찰을 순례한 것이 그 시초다. 과거에는 유배자나 도망자를 차마 죽이지 못해 죽을 때까지 걷게 하는 '죽음의 여행길' 이었다가 현대에 이르러 관광화가 진행되어 자아 찾기나 소원을 빌기 위한 도보 여행길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과거에 비해 많이 관광화 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이 길은 전통적으로 '수행길' 이며, 따라서 단순히 건강을 위해 걷기 보다는 무언가 마음속 짐을 안은 사람들이 해답을 찾기 위해 모여드는 길로 통한다. 이 작품은 저자가 헨로길을 직접 걸으며 체험한 것을 토대로 그린 픽션이다.

'걷기' 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요즘, 독특한 '길' 이 있다. 일본 시코쿠 지방의 불교 순례길 '헨로' 가 바로 그것이다.

주인공 '안 팔리는 중년 에로만화가' 는 담당 편집자에게 "선생 작품은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실의에 빠진다. 주변 동료들은 승승장구하는 반면 자신은 점점 나락으로 빠져드는 일상 속 어느날, 사람을 상해하고 시코쿠 헨로로 숨어들어간 한 화가가 그곳에서 신분을 드러내며 작품 활동을 하던 중 불심검문에 걸려 달아났다는 뉴스를 보며 주인공은 의아해 한다.

'헨로길' 체험 토대로 그린 픽션

헨로, 1200년전 코보대사 순례 시초

인생좌절 맛본이에게 색다른 조언

'헨로라는 곳이 어떤 곳이기에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같은 창작자로서의 호기심과 주인공이 처한 비루한 현실은 결국 발길을 시코쿠로 향하게 한다. 그 화가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비현실적인 희망과 함께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본 헨로길에는 실로 다양한 사람들이 나름의 고민을 안고 걷고 있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 걷는지, 또한 그는 어떠한지… 이 이야기는 그 기록에 대한 편린이다. 헨로에서 만난 사람들의 다양한 고민들은 인생에 좌절해본 이들에게 색다른 조언이 되어 줄 것이다.

김주일 기자

인식론과 논리학, 서양 전유물 'NO' … 일찍이 인도서 먼저 발달

불교인식론과 논리학

카츠라 쇼류 외 지음 | 권서용 옮김
운주사 펴냄 | 1만5천원



일반적으로 인식론과 논리학은 서양철학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일찍이 인도불교에서는 서양보다 더 고도의 인식론과 논리학이 발달했다. 서양논리학에서는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합리적 관점에서 인식과 논리를 탐구한다. 그런데 불교논리학에서는 모든 것은 변화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무아의 입장에서 현실에 바탕한 인식과 논리를 추구한다. 이런 철학적 입장은 오랫동안 동양과 서양의 세계관 전반에 영향을 끼쳐왔다. 그러나 오늘날 서양에서는 불확정성의 원리, 상대성이론 등의 발견으로 불변의 실체를 전제한 인식논리학의 결함을 인지하고 불교의 인식논리학이 지닌 놀라운 현실성과 합리성을 새삼 깨달아가고 있다. 이것이 지성계에서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서구에서 불교가 각광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불교의 인식논리학은 우리의 인식, 특히 지각과 추리를 비판적 체계적으로 탐구한다. 그리고 인식의 본질을 외부의 대상인식이 아니라 내부의 자기인식이라 보기 때문에 결국 '인식논리' 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바로 자기인식, 곧 견성이며, 견성이 곧 성불이기 때문에 불교 인식논리학의 궁극적 목표는 곧 성불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인도 불교도에 의한 논리학적 탐구과정과 그 내용을 가능한 한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불교논리학을 체계화한 디그나가와 다르마키르티의 인식론 논리학을 중심으로, 거기에 이르는 불교논리학의 형성과정에 대한 기술과 그 뒤에 전개되는 찰나멸 논증을 비롯한 불교논리학 특유의 이론 해설을 행하고 있다. 또한 존재론 인식론 논리학 진리론 언어철학이라는 다섯 개의 관점에서 넓은 의미의 불교논리학을 기술하고, 찰나멸 논증 등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도 최신의 연구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이 책의 특색이다.

우선 제 1장 '불교논리학의 구조와 그 의의' 에서는 불교논리학의 기본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 인도의 철학체계로서 인도불교를 파악하고 나서, 디그나가에 이르기까지 인도논리학의 역사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존재론 인식론 논리학이라는 세 개의 관점에서 불교논리학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아울러 불교논리학의 불교로서의 존재의의를 논한다. 제3장 '인식론-지각의 이론과 그 전개' 에서는 불교인식론의 중심에 있는 직접지각을 제시하고, 그 정의 종류 대상 개념의 차이화 등의 관점에서 다르마키르티 이후의 전개도 시야에 넣고서 지각론의 기본적 구조를 제시한다.

'진리론-프라마나란 무엇인가?' 란 주제의 5장은 흥미롭다. 불교인식론의 중심개념, 바른 인식이기도 하며 그것을 획득하는 수단이기도 한 프라마나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리론을 논한다. 디그나가까지의 프라마나관을 개설하고 나서 다르마키르티를 중심으로 최후기의 불교논리학자에 이르기까지 그 전개를 밝히고 있다.

제6장 '언어철학-아포하 이론' 에서는 디그나가가 창설한 아포하 이론의 전개과정을 다른 학파에 속하는 쿠마리라나 자얀타 등의 비판적 눈을 통해 개관함으로써 불교논리학의 언어철학적 고찰을 밝히고 있다. 제7장 '전지자 증명 윤회의 증명' 에서는 다르마키르티가 행한 몇 개의 불교교리의 증명 가운데 붓다의 전지자 증명과 윤회의 증명을 제시하고, 각각의 사상사적 전개를 간명하게 제시한다.

인도불교 논리학적 구체화과정 제시

"불교는 종교이자 철학이다"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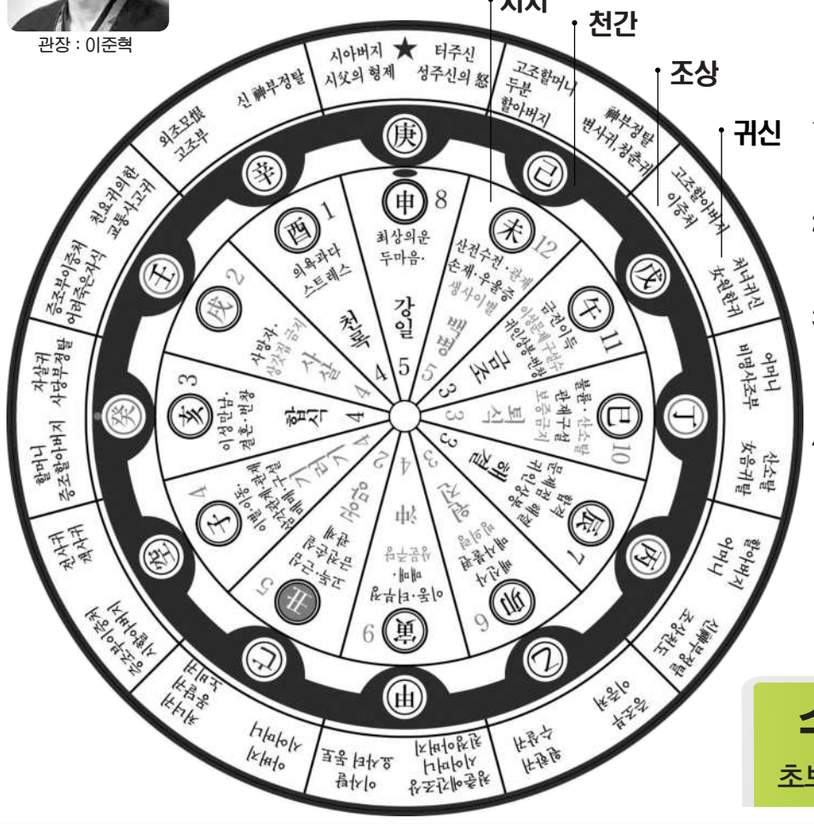
마지막 제8장 '찰나멸 논증-시간실체에 대한 도전' 에서는 다르마키르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의적 증명인 찰나멸 논증을 제시하고, 이를 서양철학에서 말하는 시간실체(time substance)에 대한 도전으로 파악하여 비교철학적 고찰을 가한다.

불교 인식논리학에서 잘 드러나듯이, 불교는 종교이자 철학이다. 철학에 기반하지 않는 종교는 맹목으로 흐를 수 있으며, 종교에 근거하지 않는 철학은 허무로 흐를 수 있다. 맹목적 종교, 허무적 철학은 우리의 일상적 삶을 더욱 맹목적으로, 허무적으로 몰아간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렇다. 이러한 현실에서 올바르게 철학과 종교의 융합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불교 인식논리학은 맹목과 허무로 흐를 수 있는 우리 내면에 신선한 자극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불교 인식논리학을 알고자 하는 이에게 이 책은 최적의 안내서 역할을 해준다. 김주일 기자

▲저자 **카츠라 쇼류**(桂紹隆)는?
1944년 시가현에서 출생했다. 교토대학 대학원 문학연구 수사과정과 토론토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류코쿠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논문으로 〈인도논리학에서 변충관계의 생성과 발전〉 〈히로시마대학문학부기요〉 제45권, 특집호1) 등 다수가 있고, 역서로 〈붓다의 생애〉 〈법화경II〉 〈깨달음으로의 편력〉 등이 있다.


관장 : 이준혁

백발백중귀장술 쉽게 보는 백문백답 회전원판, 내 손 안의 귀장술입니다 (극비 도궁술 추가 강의)



언제까지 손으로 짚어서 상담하시렵니까?

1) 금일 일진만 맞추면 한눈에 상담자의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庚申日 기준)**
2) 굳이 손으로 짚을 필요가 없이 공망도 표시되므로 육십갑자를 외우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3) 백발백중귀장술 원판은 오랜 기간의 연구 끝에 수작업으로 제작.
· 원판크기 지름 15.5cm
· 재질 : PC
4) · 초기원판 업데이트
· 크기확대 보기 편함
· 귀장 내용 추가

특허출원번호 : 30-0721929
※ 원판을 임의로 복사하거나 제작 배포할 시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수강생 모집
초보자도 교육가능 합니다.

문 의 : 010-8558-2345 / 02)2273-8557
주 소 : 서울 강동구 천호동 406-9 금강빌딩 B-105호
계좌번호 : 신한 110-371-828252 (예금주 : 이민희)
(5호선, 8호선 천호역 3번출구)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본래적으로 실존하라” 현대 철학 거두의 메시지

불교로 읽는 古典

마르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권순홍
군산대 철학과 교수

〈존재와 시간〉은 하이데거(M. Heidegger, 1889~1976)에게 철학적 명성과 권위를 듬뿍 안긴 대표적 주저이다. 그는 존재란 무엇인가를 근본물음으로 간직한 채 평생 존재론적 사유의 길을 걸어간 철학자이다. 그가 얼마나 큰 인물인지는 사람의 숨을 멎게 하는 존재물음과 죽을 때까지 고투한 그의 철학적 사유의 이력에서 가늠할 수 있다. 이 책을 이끈 물음도 존재 의미에 관한 물음이다. 천지간에 존재를 궁금해 하는 것은 인간, 곧 현존재밖에 없다. 여느 존재자와는 달리 현존재는 막연하게나마 존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에 존재물음을 제기한다. 존재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물음을 제기하는 현존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곧이곧대로 밝혀야 한다. 존재의미의 해명을 목적으로 해서 현존재의 존재를 본래성과 전체성의 실존론적 맥락에서 풀이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사실 이 책은 각기 세 편으로 구성된 제1부와 제2부로 기획되었으나, ‘현존재에 대한 예비적 기초분석’, ‘현존재와 시간성’ 등 제1부의 두 편으로 그치고 말았다. 현존재의 본래적?전체적 존재와 그 근원적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현존재의 시간성을 밝히는 것으로 일단락을 맺었다는 말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책이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의도와는 달리 실존철학의 교과서가 되었다는 점이다. 무릇 존재자는 존재한다. 산도, 강도, 개도, 나무도, 집도 존재자이기에 존재한다. 현존재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여느 존재자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그는 현존재의 존재를 따로 떼어내어서 특별히 실존(Existenz)이라고 부른다. 현존재는 여느 존재자와는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치 현미경으로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만을 따로 들여다보듯이, 그는 모든 존재자 가운데 현존재의 고유한 실존을 따로 꼼꼼히 들여다본다. 〈존재와 시간〉은 현존재의 실존에 대한 그의 솔직한 현상학적 관찰 기록이다.

과연 하이데거는 남다른 존재성격을 자랑하는 현존재의 실존으로 어떻게 접근하는가? 우선 그는 현존재의 실존에서 본질(Essenz)을 걷어낸다. 본질 개념을 거슬러 가면, 플라톤의 이데아,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에 이른다. 본질은 형상이다. 형상은 설계도이다. 설계도는 설계도를 본떠서 만들어진 제품이 무엇인지를 규정한다. 다시 제품이 ‘무엇인지’는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곧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규정한다. 이렇게 본질은, 설계도가 그렇듯이 존재자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미리부터’ 규정한다. 그러나 현존재에게는 그의 존재를 미리부터 규정하고 제한하는 본질이 없다. 현존재가 무엇인지를 미리 규정하는 본질이 없기에, 그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는 그의 자유이다. 현존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죽음의 가능성을 앞에 둔 그의 자유로운 결단에 달린 일이라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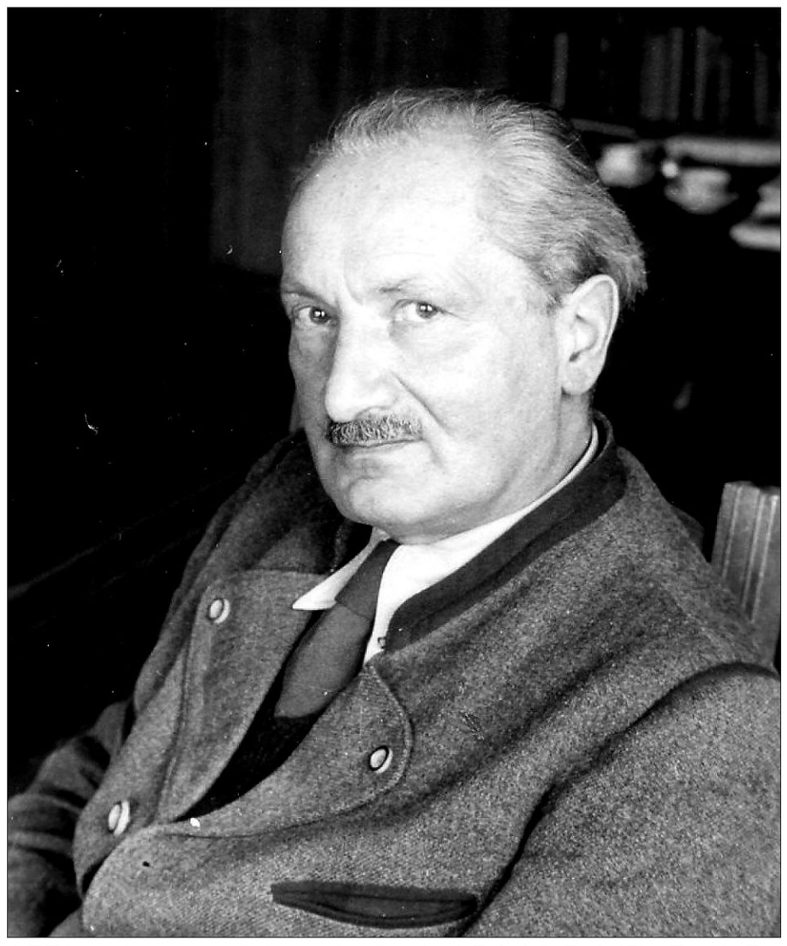
하이데거가 반(反)본질주의의 노선에서 현존재의 실존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실로 중요하다. 그가 붓다와 조우하는 것은 이러한 반본질주의에서이기 때문이다. 바라문이 무엇인지를 놓고 다투던 두 바라문 학인에게 반본질주의의 가르침을 베푼 〈바??타의 경〉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라문을 바라문으로 미리부터 규정하는 바라문의 태생적 본질은 없다. 도리어 그가 그때마다 ‘어떻게’ 행위하는 지가 그가 ‘무엇인지’를 말한다. 가령 태생이 바라문일지라도, 그가 계행을 어기고 갈애를 즐기고 이 세상에 집착하는 한에서 바라문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사람이 무엇인지는 그가 어떻게 행위하는가에 달린 일이지, 그 반대는 결코 아니다. 현존재의 실존에 본질이 없듯이, 사람에게는 본질이 없기 때문이다.

반본질주의의 노선에 서는 한, 하이데거와 붓다는 다시 반실체론에서 교차한다. 사람에게 본질이 없다는 것은 그의 온갖 행위나 작용을 아무 때에나 일으키고 조종하고 통제하는 실체적 영혼이나 자아가 없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서양 중세 스콜라철학에서는 사람의 지성적 영혼을 본질로 치부하지만, 애석하게도 사람에게는 지성의 능력을 갖춘 실체적 영혼이나 자아가 없다.

“다만 인간의 ‘실체’는 영혼과 육체의 종합으로 본 정신이 아니고 실존일 따름이다”라는 하이데거의 완곡한 발언에서 지성적 영혼을 거부하는 반실체론이 깊숙이 울린다. 현존재가 실존의 ‘행위’임을 알리는 그의 진술이 사람을 5온의 ‘작용’으로 보는 붓다의 가르침과 서로 소통하고 공명하는 것은 이러한 반실체론의 맥락에서이다. 물론 사람만이 실체적 자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실로 우주만법에 다 실체적 자아가 없다.

그것은 만법이 저마다 실체적 형상이나 본질을 갖춘 채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실유하지 않고 빈 가슴 속을 들락날락하면서 서로 어우러진 채 상호관계에서 상호작용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하이데거가 현존재에 대한 반본질주의와 반실체론에서 붓다의 가르침과 공명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연기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으로까지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어디까지나 선천주의의 궤도를 걷기 때문이다.

소극적으로 말하면,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존재에서 실체적 자아나 영혼을 걷어낸다는 점에서 반본질주의와 반실체론의 노선을 달린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존재를 일상성에서 현상학적으로 관찰한다는 점에서 현상학적 방법을 쓴다. 현존재에 대한 현상학적 관찰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일상성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형이상학적 가감(加減) 없이 존재하는 그대로 관찰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령 현존재의 존재를 어떠한 전제나 선입견을 달지 않고 곧이곧대로 관찰한다는 것이야말로 현상학적 방법의 골수에 해당한다. 기존 이론의 권위나 전통의 편의에 기대지 않고 현존재의 존재를 존재하는 그대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일상성에서 관찰해야 마땅하다. 그것도 오목렌즈나 볼록렌즈처럼 그의 일상적 존재를 쪼그라뜨리거나 부풀리지 않고 곧이곧대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그 일상적 존재에 얹힌 부폐(覆蔽, Verdeckung)와 위장(Verstellung)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실존주의 철학의 대표자 마르틴 하이데거의 사진. 그는 ‘실존’인 인간 존재는 '무'로 돌아가는 존재이며, 그 존재 방식은 ‘불안’이라는 것이며, 이 불안에 의해 존재하는 것은 스스로 전체로서 나타나게 되는 결국 무매개(無媒介)로 전체로서 초월하게 되며, 일상성으로부터 탈각한다고 했다.

‘존재란 무엇인가’ 화두 던진
철학자 하이데거의 주요 저서
인간 실존구조 분석 ‘새 지평’

하이데거 주장한 현상학적 관찰
부처처럼 가감없이 존재 살펴

형이상학적 가감 없이 존재하는 그대로 현존재의 일상적 존재를 현상학적으로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붓다는 〈열반경〉에서 열반을 놓고 가르치기를, “바라문이여, 그는 욕망이, 성냄이, 어리석음이 남김없이 다한 것을 경험한다. 그러므로 열반은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

요컨대 3독의 남김 없는 소멸에 대한 경험에서 열반이 어떤 경지인지를 당장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누구라도 와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가르침의 골자이다.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다는 것도 그렇지만, 붓다가 누구라도 와서 보라고 말하는 것은 열반을 3독의 소멸에서 어떠한 가감 없이 곧이곧대로 경험하고 그렇게 관찰한 까닭이다.

니까야 경전을 보면 알겠지만, 붓다가 와서 보라고 말하는 가르침이 없지 않다. 와서 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가르침이든지 간에 가르침이 그 실상에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딱 부합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그 실상을 붓다가 아무런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관찰한 까닭이다. 붓다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아무런 가감 없이 경험하고 관찰하고 드러내고 기술하는 현상학자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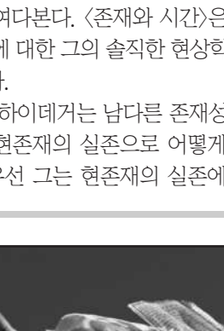
반본질주의와 반실체론의 노선에서 현존재의 일상적 존재를 존재하는 그대로 현상학적으로 관찰하건대, 대관절 그의 존재가 어떻다는 말인가? 단적으로 말해서, 현존재는 불안의 유정성에서 실존한다. 사실 현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기분에 젖는다는 것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현존재의 경우 존재한다는 것과 기분에 젖는다는 것은 구조적 통일성에서 서로 통일된다. 그 구조적 통일성을 유정성(有情性, Befindlichkeit)이라고 한다. 하이데거가 현존재의 존재를 줄곧 휘감는 유정성으로 꼽는 것은 불안이다. 그렇기에 불안은 현존재에게 우연히 닥쳤다가 이내 사라질 일시적 기분이 아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현존재의 실존을 속속들이 조율하는 근본 유정성이 바로 불안이다.

현존재는 언제나 불안의 기분에 젖어서 존재하게 마련이다. 그것은 그의 현사실적 존재에 존재자적 원인이 없는 까닭이다. 신과 같은 존재자적 원인 없이 현존재가 세계로 던져진 채 실존한다는 것은 그에게 불안의 기분을 안긴다. 게다가 현존재는 실존하는 한에서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실존의 호적에 호주로 기입된 것은 바로 죽음의 가능성이다. 현존재가 실존한다는 것은 죽음의 가능성을 향해서 존재한다는 말이다. 아무 때에나 죽음의 가능성이 찾아온다는 점에서 현존재는 실존하는 동안 내내 죽음의 가능성을 피할 길이 없다. 실로 하루하루 죽음에 가까워지게 마련이다. 그럴 바에야 죽음의 가능성으로 선구(先驅)하는 편이 낫다. 현존재로서 죽음의 가능성으로 선구하지 않고서는 달리 본래적으로 실존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현존재가 죽음의 가능성으로 달려가는 한에서 불안의 유정성에서 실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불안이 스산함(Unheimlichkeit)이나 안절부절못함(Un-zuhause)과 같은 고약한 기분이라는 점이다. ‘고향(Heimat)’을 떠난 방랑객이나 ‘집(Haus)’을 잃은 부랑아가 그렇듯이, 현존재는 스산하고 안절부절못한 불안의 기분에서 은근한 위협에 적나라하게 노출된다. ‘집’을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 그대로, 불안의 기분은 현존재에게 괴로움일 뿐이다. 현존재가 불안의 기분에서 실존한다는 것은 그가 괴로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4성제의 맥락에 대입하면, 현존재의 실존에서 고성제의 진실이 빛난다. 사람의 5온이 찰나마다 변화의 파고를 무상하게 오르내리는 것도 행고(行苦)의 괴로움이지만, 태어나서 삶을 영위하는 동안 반드시 병에 걸리고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도 고고(苦苦)의 괴로움이다. 현존재가 아무런 존재자적 원인이나 근거 없이 세계에서 실존한다는 것은 행고에 견줄 수 있다. 한편 현존재가 죽음으로의 선구에서 그때마다 본래성의 가능성을 놓고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은 고고에 견줄 수 있다. 이를테면 현존재가 죽음으로의 선구에서 본래적으로 실존하는 한, 행고이든지 고고이든지 간에 괴로움을 면할 수가 없다. 알다시피 그 괴로움을 하이데거는 불안이라고 부를 뿐이다.

괴로움이 있으면, 그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는 법이다. 괴로움의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제거할 방법이 있게 마련이다. 제거할 방법이 있으면, 그 원인을 말끔히 발거함으로써 마침내 괴로움에서 해방된 안온한 삶의 구경이 있는 법이다. 이렇게 고성제는 집성제, 도성제, 멸성제와 구조적으로 통일된다. 이른바 4성제이다. 안타깝게도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실존에서 고성제를 목격하지만, 고성제에서 나머지 4성제의 진실을 마저 독해하지는 못한다. 너그럽게 풀이하면, 현존재의 탈근거적 실존이나 죽음의 가능성은 집성제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아도 될 성싶다. 갈애와 같은 번뇌가 빠졌지만, 그 둘이 현존재에게 불안의 괴로움을 안기는 불안거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이데거가 현존재의 실존에서 도성제와 멸성제를 해독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현존재가 불안의 괴로움을 감내할망정 내 집처럼 편안하고 친숙한 세인의 일상적 공공성(公共性)을 떠나서 본래적으로 실존해야 한다는 것이 그가 〈존재와 시간〉에서 전하는 전언이기 때문이다. 본래성(Eigentlichkeit)은 현존재로서 불안의 괴로움을 등에 지지 않고서는 달릴 수 없는 고독한 실존의 길에 지나지 않는다. 도리어 일상적 공공성의 비본래성이 불안의 괴로움을 편암함의 기분으로 잠시나마 부폐한다는 점에서 현존재에게는 위안이 된다. 〈존재와 시간〉을 불교의 맥락에 놓고 읽을 때, 왜 현존재가 불안의 괴로움을 견디면서까지 본래성의 실존을 스스로 결단해야 하는가를 묻고 깊이 숙고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서로 교차하던 하이데거의 길과 불교의 길이 다시 어디에서 어떻게 결별하는지가 명료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최초의 티벳어 교재!
현재 티벳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일상 구어를
한국어 문법 체계에 기준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
쉽게 배우는 현대 티벳어

1 티벳어 문자를 한국어 발음 체계 안에서 소리 낼 수 있도록 한국어 발음을 제시
2 티벳어 문자의 구성을 한눈에 제시함과 아울러 자음이 되는 기본자를 중심으로 결합되는 유두자, 첨족자, 전접자, 후접자, 재접자의 5종류 글자들을 우리말 발음과 함께 설명
3 티벳어 문법의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도식화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
박은정 저/사륙배판/컬러/262쪽/값23,000원

원전을 제대로 읽어야
선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수행자와 중문학자가 함께 풀이한
무문관
중문학 전공자인 안재철 교수의 정확한 번역과 상세한 문법 해설 및 풍부한 예문, 그리고 태고종 중앙강원 강주 수암 스님의 선지를 꿰뚫는 강의가 어우러져 옛 선사들의 깨달음의 세계를 온전히 전해준다!
안재철 · 수암 공저/신국판/496쪽/값23,000원

초보자를 위한 한국선 입문서
간추린 한국 선사상사
선의 전래부터 고려말까지 한국선이
어떤 흐름 속에서 형성, 발전되어 왔는가를
주요 인물들의 생애와 저서, 사상적 특징 등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정리하였다.
한반도에 선이 전래되는 과정, 구산선문의 성립과 종파의 융성,
조계종의 성립과 전개, 임제종의 융성과
고려말 삼사三師의 선사상 등을 다루고 있다.
정영식 저/국판/214쪽/값1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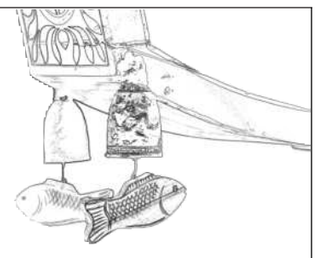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타인의 허물을 보지 말고 타인의 옳고 그 흠을
말하지 말며 타인의 깨끗한 생활에도 집착하지 않아서
모든 나쁜 말은 마땅히 버려야 한다.

- 발각정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 밀양)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삼일단기 교육생 모집
수맥탐사 이론실기
* 교육과정 이수 후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 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출가 희망자, 초보자 개인지도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 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백발백중 귀장술

쉽게 보는 회전원판
네이버 ·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 특허 : 30-0721929
수강생 모집
010-8558-2345



스님이 없는 절이나
포교당 원합니다
무보시로 도와드리며
공양주도 구해 드립니다
연락바랍니다
(어려운 절만)
010-4882-3838

최 면 공 부

주1-2회, 3시간씩,
총 5회, 55만원.
단체환영, 시간,
돈이 없는 분 상담환영
프로최면 강태현 합장
010-9609-1919

지리산 청학동 산신봉 줄기
도량에 빈집 독채가 있습니다
그 곳에서 참선 수행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무보시 수행 공부하실
보살님을 함께 찾습니다)
055)883-7385
011-759-0183

관혼상례, 화환, 케이크
유능한 지점장
시,군,구 지역별 차등 등록
비. 5년계약, 성실한 분
등본,이력서,사진부착,종교
기입,신분증,건강진단서
070-8849-3011
사회적상부상조 협업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수원시내)
031)253-8300
010-6604-9027

천 기 누 설

사주를 바꾸는
기도법을
전수합니다
010-9229-380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바다의 땅 통영! 아름다운 편백
나무 숲으로 어우러진 조계종 사
찰에서 기도하며 가족처럼 지내실
50대 공양주 한분 모십니다
보시는 월 130만원, 개인방사,
2박3일 휴가,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기타사항은 상담 후 결정합니다
055)645-5324
(24시간 상담)

비염으로 고생
하시는 분
특효 처방해
드립니다
경남 양산 무량사 동호스님
010-9798-1091

명리,기문둔갑,천기대요
3개월 무료강습
부산.울산.경남.경북지역
비구니스님에한함
<10명선착순>
언양읍 대웅사
052)254-4135
010-3423-4136

불 교 의 식 전 문

천도재 49재회향
법주1인 범음범패
학인 범패 의식교육
목포인근사찰만 행사 합니다
010-2011-1020

영가천도 본인이 직접 시켜 보세요

기도 기간 중 본인이 직접
보고 듣고 말하게 함으로써
천도를 확실히 시키는
특이한 기도요령을
지도해 드립니다
010-4508-5087
대각(大脚)스님

노스님
시봉하겠습니다
010-5213-9749

불가사의한 기적이
일어난 절입니다
절을 지을 명당 땅을
갖고 있습니다
새절 새법당에 부처님
모셔 줄 인연을 찾습니다
010-9583-3959
010-5327-7793
기도중에는 문자연락 바랍니다

부전자리
구합니다
비구승 입니다
010-8955-9485

천 등 · 번 개 · 벼 락

- 천등번개를 부리는 무서운 기도법을 스님께 전수
- 면접 후에 결정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명상 기초부터 지도자과정 안내

1. 무료 명상 체험하기 (서울,광주,파주)
2. 붓다의 가피명상 기본과정 & 지도자과정
3. 태교명상 & 좋은 부모 되는 예술
4. 가족세우기, 강력한 삶의 변화
   성공 풍요,건강,관계개선, 최상의 깨달음 코스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부전스님 초빙

신심으로 함께 수행 정진하실
천일기도스님을 우대하여 모십니다
연락처 051)853-5486~7
범어사부산포교원 여여선원
부산불교회관(부산시청 옆)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사명산 상운사)
033)482-3382
010-3764-3661

사찰행사 및 학인모집

(1000년 전통의 범음,범패 이수자)
과정 : 범음,범패,바라작법,나비춤
행사 : 천도재,49재,점안식
(정성껏 모십니다)
방편술 : 단기완성 무공역학,최면,성명학
부산 온천동 미타사
무상합장 010-4611-3738
정봉합장 010-3283-3658

천비록 天秘錄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리브로, 알라딘, 예스24 등)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 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사고 없는 軍 생활
군 입대 병사, 부모, 장교, 부대장
특별상담과 기도
– 부모님의 역할, 자녀들의 교육문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건전한 군복무
010-6789-5008
꿈바위불교교육원

사 찰 행 사

조상천도재, 49재,
각종점안식, 바라,
나비작법, 살풀이, 지전무,
극락연등무, 축원무 등
영남범음범패[통범소리]로
여법하게 집전해드립니다
010-9909-0602

진본 태을신수 기문둔갑

번역본 최초 출간
천문지리 통달의 신 기술수!
추길피흉의 역학도 필독서!
구입문의 010-2507-1042
편저자스님 직강 : 명리, 중국기문, 태을신수
기초반 : 왕초보자, 수강즉시 상담가능
실전반 스님, 철학관, 영업하실분
(인연영가 찾는 천도재비법전수)
사업,취업,진학,전공,결혼,건강,빙의 등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영 가 찾 는 법 강 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스토리텔링 힐링약손 치유요법 강좌

- 일시 : 2014년 10월 16일(목요일) ~ 12월 11일 매주 목요일 저녁 6시~8시까지 총 9강
- 장소 : 사단법인 녹색연 / 스토리텔링 아카데미 (대구, 수성구 동원로 91 / 3층)
- 모집인원 : 선착순 9명
- 주간 개인지도 : 부처골 지장선원 /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 2길 136
- 입금 : 농협 703088-51-013554 / 메일 : jijangsw@naver.com
- 강의 : 대체의학 초능력심령치료의 대가 혜봉스님 www.jijangsw.com
- 전수비 : 35만원. 회향하는 지식나눔의 재능기부로 (특별 70% 할인 교육 강좌비)

010-8585-4908 / 054)383-8553
2급 스토리텔링 힐링약손 자격증 취득 가능 / 중점강좌 : 복부, 어깨, 목허리, 오십견, 독소 빼기 / 우울증, 불면증, 빙의, 영적질병, 영동 수기, 족기 치유요법 / 장수 주천도수법 / 영동신기술 (단기 속서지도 가능)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북한산성 사찰,
은평구 진관동)
02)387-321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시내 60세이하)
010-7311-5335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대원정사
- 주 지 : 혜련(박경자)
- 주 소 : 경기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304-4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수행할 수 없어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불기 2558년 10월 9일

재단법인 한국불교 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법하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기도는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꾸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 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동안 살아 왔던 삶이 괴로우셨다면 이 기도를 바로 시작하십시오.
이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7일마다 한번씩 20분 정도 쉽고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집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성취효과는 매우 크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써 넣고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생전예수재 기도는 사후의 극락도 보장하지만, 살아 있을 때 전생의 빚을 갚는 의식을 겸한 재로서, 이 기도로서 업장과 전생의 빚이 모두 소멸되어 자신의 운명과 운세가 좋게 바뀌는 것을 경험 하실 것입니다.

전화 주시면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보배로운 부처님의 명호를 즐거이 들어서 아는 사람은
나고 죽는 흐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애써 고생하지 않으리"

- 살담분타리경 -

사 찰 안 내

사찰부지 및 토굴
- 위치 : 양산 물금(국도접)
- 총부지 : 자연녹지 10,000평
- 낙동강변 전망 최고위치
- 가액 : 6억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양도세. 취 · 등록세 전문상담(무료)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부산시내 오래된 사찰
- 위치 : 부산시 사상구
- 대지 : 239평 • 주차장 51평
- 건물 : 법당(목조) 21평, 요사채(대형)98평
- 최고위치(뒤에는 산)
- 가액 : 12억 5천

※ 전국 사찰 30년 역사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17번길(만덕동 다산타워505호)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 863-6622

사찰(급)안내

- 경주시 폭포 사찰 양도
- 단청법당36㎡. 삼성각29㎡
- 요사채90㎡.지장전.토지6,400㎡
- 전통있고주변폭포와 청정계곡사찰
- 양도금액 : 12억5천원(융자있음)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효목 2동
- 3층 건물 3층 30평
- 아담한 법당
  포교도량으로 최적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포교도량으로 최적
- 시설비 2천만원

010-7740-6004

대형사찰부지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황매산
  합천댐인근 해발 400m 남향
- 임야 52,000평(실사용평수 2만평이상)
- 기암괴석, 자연석 기도처 돌산
  이동가능한 일급자연석
- 수백억원 가치 용바위,거북바위,
  입석바위 등 기암괴석 다양
- 도로 전기 수도, 순환산책로 공사완료
- 노인복지,연수원,요양원,선원,기도처
- 관광사찰 최적장소 울산함양고속도로 개통시
  합천호 IC에서 5분거리 위치
- 가액:평당7만원. 답사상담후 절충가능

010-8677-093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진구
- 조용하고 포교하기 좋은 인법당
- 남향의 따뜻하고 밝은 사찰, 마당약간
- 비구니 스님 수행 전진하기 좋은곳
- 대지 188㎡, 건평 76㎡
- 가액 : 2억 5천만원

금호부동산 연산가-13-1645(이찬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18
051)861-2233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60평
◎ 법당 : 40평,
◎ 요사 : 40평
◎ 양도 : 7억8천,

◎ 위치 : 인천
◎ 부지 : 70평
◎ 법당 : 40평,
◎ 요사 : 60평, 전철10분
◎ 양도 : 8억7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석불,골동품,탱화,고서,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원주 도심 부근 좋은 위치 사찰
* 목조단청법당 80㎡ 목조요사 150㎡ 산신각등
* 토지850㎡ 주자창과 교통 편리한 남향사찰
* 금액 : 6억 3천만(융자있음). 실인수가 4억원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108호(대표: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신림동
- 3층 건물 중 2층
- 석가모니, 관음, 지장,
  삼존불과 후불 및 신중탱화
- 봉안지장보살 원불 297분
- 법당 외 방 1, 주방 1, 화장실 1
  약 30평, 도심속의 포교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77만원
  시설비 2,700만원(답사후 절충 가능)

011-309-3535

사찰안내(국유지)

- 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동
- 대지 734평, 인법당10평 정도
- 방 8개, 화장실 3개, 시설완벽
- 주차 : 마당에 10대가능
- 연못, 방가로 시설
- 가액 : 6억(절충가능)

010-4918-25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 백마산 줄기의
  계곡이 흐르는 아늑한 사찰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9평, 공양간 45평
  총평수 1,000평
- 가액 : 6억 9천만원
- 주지스님 법인 임명관계로
  10억이상되는 절 불사금보다
  낮게 양도합니다.

010-2772-7210

사 찰 안 내

- 위치 : 안동시 소재 시내에서 20분거리
- 대지 및 종교용지 약 590평 건평 약 80평,
  단청기와법당 15평, 산신각 3평,
  요사채 2동 약 60평
- 요사채1동 : 방3개, 거실, 주방, 화장실 2층
  황토원룸 방1, 화장실
- 요사채1동 : 방1 거실, 다용도실, 화장실
- 가액 : 3억 (법당 집기 및 요사채 집기 일체 포함)

010-4320-8842
010-5114-0172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큰 도로변
- 2층 약 60평
-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큰 공양간, 큰방 1, 작은방 2, 욕실
- 시설환경, 위치 특 A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200만원 (조절불가)

010-5173-3355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상동면
  (신대구 고속, 상동 IC에서7분,
  남해고속, 동김해 IC에서 15분거리)
- 종교용지외 930평, 임야 2870평,
  법당 목조 22평(단청완벽)
- 요사채 2동, 종각, 산신각, 용왕각등 100평
- 법종시설, 법당, 요사채, 모든 시설 및 집기일체 포함
- 복지시설, 선원, 연수원, 기타개발최적지
- 가액: 12억

010-3847-4705

청주시내 중심권 포교원

- 3층 건물 3층 80평, 심야전기, 차고
- 옥상 100평사용, 삼존불, 후불탱화
- 최고시설 집기, 법당, 대방스님접견실 외
  큰5개, 욕실3개, 넓은 주방
- 가액 : 전세 5,000만원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
  시설집기 1,500만원
- 좋은인연스님께 싸게 보시합니다

010-5883-225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팔도시장 부근
- 3층 건물 중 2층 42평
- 삼존불(동불), 아미타, 약사, 소불100여불
- 집기일체, 몸만오시면 됩니다
- 소임관계로 급 양도
- 가액: 보증금 1,500만 월 60만
  시설비 1,500만

010-2656-7775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경주 톨게이트 근처
  시내 7분거리 신경주역 10분거리
- 평수 : 대지 252평, 본체4칸집, 한옥인법당
- 방 2칸, 다용도실, 화장실, 뒤쪽요사채,
  방3칸, 공양간 별도, 바깥화장실, 마당잔디,
  연못, 정자3평, 산신각, 마을맨 윗집, 바위에서
  물 내려옴, 심야보일러, 방 따뜻하고 온수 따로 나옴
  사용하기 아주 편리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음
- 가액 : 2억 7천 8백만원

054)232-4853/010-8518-5515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1동, 산신각
- 사용가능평수 약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3억2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하이면 부근
- 대지 175평, 법당11평
- 친견실, 요사채, 방2, 거실,
  주방, 텃밭, 아미타도량
- 가액 : 9,275만원(시설비 포함)
  8,750만원(시설비 제외)

010-8503-5769
055)833-576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면
- 평수 183평, 인법당 18평,
  요사채 60평
- 큰방 4개, 큰거실 2개,
  화장실 2개
- 건강상 부득이 급양도
- 가액 : 2억 6천만원

011-9330-586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가액 : 2억 5천만원
  (대출 1억 포함) 교환도 가능

010-8725-3196

포교원선원

- 위치 : 서울 강남구 역삼동
- 강남역 인접 역삼역 3분
- 4층 중 4층. 15평
- 보증금 1000만원,월세70만원
  (관리비, 부가세 없음)
  시설비 5백만원(절충가능)

010-9019-3816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 대지 : 302평
- 법당 20평, 주방 10평
- 요사채 2동, 창고 1동
  목욕실, 화장실 1동
- 교통편리하고 주차공간 많음
  텃밭도 있음
- 가액 : 3억 2천만원

011-882-2897

사 찰 안 내

- 춘천 3,600평 3억 6천 주변시세 반값
  요양원 사찰건축 가능
- 경북 영주 2,500평 18억 복지원 요양원
  현재사찰운영중 모든조건 완비
- 서울상계30평 2층 포교원 8천만원
  35년운영중
- 수락산역 200M

010-4880-789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1640평
- 건물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전망 양자산 아래위치, 양쪽계곡,
  앞쪽으로 전망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기 허가 득
- 가액. 12억 5천만

010-6288-9067

사찰 및 전원주택 부지

- 위치: 양평군 양동면
  고송리(쑥골) 동남향
- 지목 : 임야
  (계획관리지역+보존임야)
- 평당 10만원 약 2,200평
-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인직접)

010-2215-3657

전원주택(한옥)

- 땅을 알고 터를 잡으시고
- 좋은환경,좋은이웃 찾아오세요
- 위치 : 경남 창녕군 부곡면 부곡리
- 대지 167평, 건평 30평, 목조, 기와집
- 황토방, 정자(이민관계로 양도)
- 가액 : 2억 7천 5백만원(절충가능)

010-3703-5879

사 찰 안 내

- 위치 : 거제시 중심부
- 대지 2,103㎡
- 건평(법당,요사) 329.4㎡
- 창고, 기타 약 15평
  약 25평은 기초공사 완료
- 석등 외 조형물 있음
- 주차장 넓고 경관이 좋음
- 답사후 절충 요함

010-7582-0098

청평 한옥 안내

- 대지 199평, 건평 30평
- 전통한옥에 실내는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음
- 방3,욕실2,거실,주방,패치카
- 현재 스님이 거주하고 있음
- 작은방 2개중 1개는 구들방임
- 가액 : 2억 7천 5백만원

010-9411-5302 (주인직)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대지 : 157평
- 법당 : 25평
- 시설 완비
- 가액 : 3억

010-3508-7710

명당터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신축
- 보은 IC에서 10분 속리산 20분거리
- 탁트인전망 뒤에는 산, 땅모양 좋음
- 귀농 귀촌 하실분, 사찰 암자, 휴양지 적지
  아주좋은 명당터, 조경석, 잔듸마당
- 총면적 1025평, 대지285평
- 신축 건평30평 20평 10평 차고 창고 보일러 기름 화목 겸용
- CCTV설치 150미터 암반약수
- 속리산 물줄기가 건물 (주변) 앞,뒤로 물줄기 흐름
- 가액: 3억8천만원

010-5458-2258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 장유 신도시 위치 최상
- 3층건물 중 2층 전체 40평
- 주불 아미,관음,지장,소불,인등설치
- 법당, 친견실, 스님방, 공양실,
  실내화장실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세 22만원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 비품 및
  시설비 1천7백만원. 약간 절충

010-2553-8827

포교원 안내

- 위치:서울동대문구전농동미주상가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정류장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두산동 2층
- 법당 삼존불 35평
- 시설 : 쑥뜸훈증침대 6대 옷20벌
  추출기 2대, 포장기 1대
- 약초 : 200여가지
  기공 교정모든 것 전수
- 보증금 :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1-573-4438

사찰(전원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마산합포구 자동차 전용도로옆
  창원 마산시내 5-7분거리
- 대지 160평, 건평 80평, 1-2층
  양옥기와집
- 법당 20평 아미타삼존불 주차장완비
- 1층 근린생활시설용도, 방 5, 욕실 1,
  화장실 5, 철학최적
- 요사채 40평, 공양간 20평,
  별도 다용도실 30평
- 가액 : 3억4천(융자1억8천포함) 가액 절충

010-8008-7913

명당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강원도 오대산
- 법정스님 집필 하시던
  주변 50m거리
- 좌청 우백 안산이 완벽
  수려한 삼길육수
- 1,000평(대지 100평 포함)
- 꼭 필요하신분 연락주십시오

010-2678-072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시청 부근
- 대지 78평(건물 70) 3층 전체, 옥상전체사용
- 4존불, 보물급후불탱, 삼성각 별도 위치,
  음향시설, 에어컨 4개, 방3개, 종무실1, 후원,
  다실1, 옥상창고25평. 몸만오시면 됨
- 현 불교대학 명상센터 방편 있으신 분 유리
- 가액 : 전세금 2,000만원, 월 40만원
- 집기 및 시설비 일체 2,500만원
  시설 최고(개인용품 제외)

010-8737-4583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주군 울주군 두동면 부근 부근
- 대지 180평, 대웅전 25평, 지장전,
  삼성각, 대중방 8개 예쁜 용왕당
- 연못 및 청정지하암반수 있음
- 가액 : 보증금 4,000만원에
  월 30만원(절충가능)
  시설비 2000만원

010-4855-7205
010-3036-7678

포교원 선원

- 위치 : 부산시 동구 수정동 (버스정류장)
  전철역 1분거리
- 상가건물 5층 40평
- 법당시설 일체(무량수전, 지장전 등)
- 공양간, 방 3개 등 생활시설 일체
  몸만오시면 됨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2천만원(답사후 절충가능)

010-6413-046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상가 3층 48평
- 아파트밀집, 재래시장 인근
- 시설 : 법당, 거실, 방2, 주방완비,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시설물 집기일체 양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45만원
  시설비 2,700만원(조정가능)
- 현재 7년째 법회중
- 불사관계로 저렴하게 급 양도

010-3102-5321

사찰 토굴(급)안내

- 위치: 경기도 동두천시
- 대지: 400평. 건평 80평
  (인법당 20평, 방6)
- 뒤에산, 전철, 버스, 온천인접
- 텃밭, 주차완비, 즉시법회
- 가액: 전세1억 (비구스님 정중히 사절),
  시설비 없음
- 양도 협의

010-6559-0913

암 자 안 내

- 위치 : 경주시 서면
- 2차선 도로 시내 버스다니는
  조용하고 아름다운곳
- 뒤는 명산줄기, 고급나무,
  유실수 다량, 포교 수행하기 좋음
- 요사채 30평, 법당15평
  대지+종교부지+임야 합650평
- 가액 : 3억 5천만원

010-5476-3659

사찰 전세(급)안내

- 위치: 대구시 대명동 위치 좋고
  아담한 단층 주택
- 리모델링 한 약 70평
  작은사찰 입니다
- 삼존불, 청동불, 24개금,
  석자반, 2자반
- 시설 깔끔 잘되있음, 주차장 완비
- 가액: 전세 3천만원 보증금 월세 무
  시설비포함 3,000만원

010-3131-1094

포교원 안내

- 위치: 울산시 남구 달동 874-4번지 3층
  (교보생명 빌딩 뒷쪽)
- 평수 50평, 법당, 방3, 주방, 화장실
- 가액 : 전세 1,000만원 월세 100만원

010-8928-9494
010-7132-9157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 2층 건물중 2층 독채 55평
- 방3, 거실, 욕실, 화장실,
  도시가스
- 인법당, 법당종, 에어컨 완비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1,300만원 절충가능

010-4056-567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홍제역에서 도보 10분거리
  마트, 시장근접
- 위치 최상 (건물내3층)
- 삼존불, 후불탱화, 세면장,
  부엌 방1개
- 재개발 확정(최고 1천만원 보상 가)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1,300만원

010-9168-046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화성
- 대지 740평, 건물 150평
- 가액 : 양도는 8억
- 세는 1억에 100만원
  전세도 할 수 있습니다
- 금액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031)358-6701

토굴(포교원)안내

- 위치 : 경북 영주
- 토굴(포교원)앞 전망이 아주좋음
- 단독주택, 대지 52평
- 인법당1, 작은방, 상담실1,
  별채방1, 시내 10분거리
- 가액 : 4,500만원
  전세도 가능함

010-5538-5570

암자 터(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횡성
- 임야 1,900평 이상,
  산중턱 작은 토굴 1동,
- 식수완비 7분내 거리 전철 공사중
- 원주 → 횡성 →
  강릉 2017년 완공
- 가액 : 1억

010-5538-557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영도구 남항동
- 3층 건물 2층
- 38평 대로변
- 가액 : 시설비 2천만원
  보증금 5백만원, 월세 35만원

010-7314-8732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 주안
  1~2분사이 가정법원, 1분거리내 아파트 대단지,
  2분거리내 카페 골목, 시장 복지관사이 위치
- 시설 : 단독 2층 • 대지 : 건평50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원목 조각)
- 가액 : 3억 8천(조정가능)
- 철학도 적합

010-8941-1484

생각사용 설명서

전현수 박사 (정신과 전문의)

〈4〉 불안한 생각 끊기

‘강박증 예방’ 놔두고 살아가는 훈련을 하자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는 방법

자기 분석(Self-Analysis)은 서양의 정신 분석 이론 중의 하나이지만 잘 활용한다면 자기 문제 해결과 자기 성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자기의 의지나 노력만 있으면 누구나 자기를 분석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자기 분석 이론을 처음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은 호나이(K.Horney, 1885~1952)와 함께 문화학파로 지칭되는 신분석(Neo-Freudian)학파의 대표적 분석가이다. 호나이는 자신의 자기 분석 체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기 분석은 가능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자기 분석에 대한 호나이의 체계적인 연구가 나오기 전에도 자기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행한 실례가 있긴 하다. 예를 들면 정신 분석학의 시조인 프로이트는 자신의 꿈 분석을 통해 자기 분석을 했고 키에르케고르, 니체도 자기분석과 유사한 분석을 했다. 루소의 〈참회록〉 일종의 자기 분석이라 볼 수 있다.

자기 분석은 본질적으로 자기가 평소 느끼고 행동하는 이면의 진짜 동기를 밝히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두통이나 위장 장애, 불안과 같은 특정 증상의 해결에서부터 인격 전반에 걸쳐서 성장을 저해하는 모든 요인을 다 다룬다.

자기 분석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한 경험은 귀중한 체험이 된다. 이것은 마치 기존의 등산로가 아닌, 자기 스스로 찾아낸 길을 통해 산을 정복하는 것과 같다. 이미 알려진 길을 따라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몇 배 힘든 과정을 거치고 설사 결과는 똑같다 할지라도 내적인 성취감과 자신감은 말할 수 없이 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긍지는 앞으로 어떠한 역경에 처해도 그것에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극복해 나갈 내적인 힘을 갖게 한다.

자기 분석을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우선 자신이 환자와 분석자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한다. 먼저 분석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인격을 전체적으로 관찰해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환자는 가능한 한 충실하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에는 ‘자유 연상’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자유 연상이란 그때그때 마음속에 즉각적이고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말한다. 자유 연상을 하는 동안에 연상의 흐름에 방해가 안 될 정도의 간단한 기록을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빠트리지 않게 될 뿐 아니라 후에도 그 연상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 자유 연상을 한 다음에는 그 연상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리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잘 모를 때는 덮어두었다가 후에 다시 보면 그 의미를 알게 되는 수도 있다.

이러한 자기 분석의 과정을 거치면 자신에 대해 인식하는데 이는 정서적인 체험으로서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느끼는 깨달음이다. 이런 깨달음 후에는 자신에게 문제됐던 장애나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아울러 긴장이 풀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자유 연상을 통해 이루어진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면 인격에 크나큰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분석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스스로 끊임없이 경계해야 되는 것이 ‘저항’이라는,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석에 반대하는 강한 힘이다. 이 저항의 정도에 따라 자기 분석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항이 자신의 마음에서 강렬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자신의 현 상태가 비록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자기가 처했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었고 적응책 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쉽사리 버리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항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양상을 보면 연상이 안 된다든지, 자기 분석을 하기 싫다는 막연한 느낌이 일어나거나 이것을 해서 과연 도움이 되겠나 하고 자기 분석을 해보기도 전에 회의나 의심이 드는 것 등이 있다. 저항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실제 자기 분석을 하면 도움이 되는데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저항의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기분석, 잃어버린 자신 찾는 과정

호나이가 쓴 〈자기분석〉이라는 책에 있는 자기 분석을 통해 두통을 해결한 실례를 한 가지 소개한다.

마음씨가 착한 사업가 J씨는 결혼한 지 5년차다. 하루는 아내 그리고 두 명의 친구와 함께 연극을 보러갔다. 그런데 공연이 계속되는 동안 J씨는 두통을 느꼈다. 이상했다. 왜냐하면 극장에 가기 전에는 기분이 괜찮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연극이 재미가 없어서, 저녁 시간을 낭비해서 속이 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연극이 그리 재미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연극이 재미없다고 두통을 일으킨 경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그가 좋아했던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ow)의 연극에 비하면 지금 연극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강박증 환자들은
안심될 때까지 아무일 못해
생각 멈추는 훈련 계속 해야

늪에빠진 사람이 할일은
힘빼고 큰 ‘大’자로 누워
구원자 기다리는 게 ‘최선’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문득 그때 떠오른 생각, 즉 ‘내가 좋아했던’이라는 말 한마디가 마음에 떠올랐다. 여기서 그는 순간적인 분노를 느꼈고 이와 연관된 의미를 파악하게 됐다. 그가 사람들과 어떤 연극을 보러갈까 하고 의논을 할 때 그의 의견은 항상 묵살됐던 것이다. 그러나 의식적으로는 이번에 보러가는 연극이 재미있을 것이다 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연극을 보러가야 되는 것에 대해 깊이 분노하고 있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자 두통은 사라졌다. 억압된 분노와 두통사이의 이러한 연관성을 발견하고서 깜짝 놀랐으나 그 문제에 관해 그 이상의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 뒤 그는 또다시 참을 수 없는 두통을 느끼며 일찍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전날 밤에 그가 소속한 단체의 간부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를 끝내고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처음에는 두통의 원인이 과음 때문일 것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잠을 청하려고 했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그의 얼굴 주위를 윙윙거리면서 날아다니는 날벌레가 그를 화나게 했는데 점점 심해져 나중에는 심한 분노로 변했다. 그러면서 좀 전에 꾼 꿈이 생각났다. 종이로 빈대 두 마리를 짓이겨버리는 꿈이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모형을 만들었던 종이가 연상이 됐다. 그 종이를 가지고 예쁜 모형을 접어 어머니에게 자랑하려고 보였으나 어머니는 다만 형식적인 관심만을 표시했다. 그리고 종이는 다시 간부 회의를 생각나게 했다. 회의 중 종이에 낙서를 했는데 그 까닭은 지루했기 때문이었다. 단순히 낙서를 한 것이 아니라 간부 회의의 의장과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 풍자만화 같은 것을 그렸던 것이다.

여기서 ‘반대하는 사람’이란 말이 떠올랐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은 평소에 그가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간부 회의에서 결의안은 투표에 부쳐져 채택되는데 그는 결의안에 대해 막연히 꺼림칙했으나 확실한 결함을 찾아내지 못했고, 이에 반대되는 의견을 그가 제시했으나 의장과 반대하는 사람의 방해로 별로 주의를 끌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패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진행하다가 꿈에 나타난 빈대의 의미를 깨달았다. -의장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흡혈동물과 같은 자들이었는데, 빈대만큼이나 싫었다. 그는 또한 이러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빈대를 두려워했던 것이다. -이제 최소한 꿈에서라도 복수를 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두통은 다시 사라졌다. 그 후 두통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위에서 J씨는 정신 분석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 분석을 통해 극적으로 두통을 해결하고 있다.

자기 분석은 정신 분석적인 기법을 사용해 자기 성찰을 함으로써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아가는 과정이다. 자기 마음의 갈등, 즉 걸림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세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왜곡돼 보인다. 예를 들면 화가 마음에 가득 찬 사람은 타인과 세상에 대해 화를 갖고 대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상대방의 진정한 모습과 마음을 알기 어렵다. 자기 마음에서 화가 빠져야만 남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 분석은 먼저 자기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서 밝혀내고 그렇게 해서 밝혀진 마음으로 타인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이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불가능한 엄청난 일도 아니다. 그때그때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보고 느끼려는 노력을 하면서 그런 상태를 항상 유지할 수 있다면 가능한 것이다.

점차 정신적인 여유를 잃고 거대한 사회 조직의 부품처럼 전락돼 자기중심과 주체성을 잃고 이리저리 끌려 다니며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자기 분석은 잃어버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길로 제시될 수 있다.

불안한 생각이 계속 떠오를 때

강박증은 환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불안한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정신 장애다. 떠오르는 불안한 생각이 불합리하고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생각이 떠오르는 그 순간에는 그것이 사실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다. 강박증의 정도는 환자마다 다르다. 정도가 심한 사람은 정신병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상한 생각이 떠오른다. 정신병은 그것이 사실인 줄 알지만 강박증은 그것이 사실이 아닌 줄은 안다. 그렇지만 그 생각을 할 당시는 혹시 그것이 사실이면 어떻게 하나 하며 굉장히 불안해한다.

나에게 치료를 받고 있는 강박증 환자도 심한 강박적 사고가 있었다. 다른 사람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내리면 그 사람을 때린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었다. 누구를 만났다가 헤어지면 그 사람에게 욕을 한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었다. 길거리에서 누구랑 마주치고 난 뒤 회사에 출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했으면 큰일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이 환자의 경우 강박증이 심했기 때문에 정신병에 쓰는 약을 썼다. 그러면서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강박적 사고도 생각의 일종이다. 어떤 생각이 나더라도 그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을 터득하면 강박적 사고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강박적 사고는 그 내용이 불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스리기가 어렵다. 안심이 될 때까지 계속 생각을 한다. 강박증 치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불안하고 찝찝하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강박증 환자들은 안심이 될 때까지는 아무 일도 못한다.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한다. 멈추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런 마음이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우리도 걱정거리가 있으면 자꾸 생각나고 걱정거리가 해결될 때까지 걱정거리에 대한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걱정거리가 있더라도 놔두고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한다. 그런 마음이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우리도 걱정거리가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나고 걱정거리가 해결될 때까지 걱정거리에 대한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걱정거리가 있더라도 놔두고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면 강박증은 예방이 된다. 강박적 사고는 떨치기 어려운 생각이다. 그런 만큼 생각을 다스리는 훈련을 철저히 해야 한다.

먼저 이 환자에게 마음의 속성을 설명해 주었다. 마음은 언제나 어딘가에 가 있다는 것, 그래서 가 있는 곳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불안한 내용에 마음이 가 있으면, 다시 말해 불안한 생각을 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했다. 마음이 한 번에 한 곳을 간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한 대상에만 간다는 것이 강박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준다. 마음이 한 번에 한 대상에만 가니 마음을 다른 곳에 갖다 놓으면 강박증적인 생각을 안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음은 어느 쪽으로 자꾸 가면 길이 난다. 강박증적인 생각이 나면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멈추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강박증적인 생각을 한 번 하면 한 번 한 만큼 또 할 수 있으니 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풀려고 자꾸 생각을 한다. 현실적인 문제는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적인 문제는 해결하는 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 불안한 생각이 나면 자꾸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다음에 더 떠오른다. 멈추어야 한다. 이것을 아는 것이 정신적인 문제의 해결에 매우 중요하다. 이 환자는 생각을 왜 멈추어야 하는지 이해했다. 생각하면 할수록 악순환 되는 것을 이해했다. 물론 그 생각이 들 그 생각에 빠져들지 않기란 어렵다.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 때 생각을 멈추기는 힘들지만 멈추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최대한 적게 생각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생각을 자꾸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생각하기 때문이다.

늪에 빠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한다. 힘을 빼는 것이 더 가라앉지 않는 길이라고 한다. 체표 면적을 최대한 크게 하는 것이 적게 가라앉는 길이라고 한다. 그러려면 대(大)자로 팔다리를 벌리고 편안히 누워있으면서 구해주러 올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어느 책에서 봤다. 강박적인 생각이 들 때도 그 생각을 멈추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이 글은 전현수 박사의 〈생각사용 설명서〉(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포교원 안내
- 위치 : 마산 합포구
- 면적 : 총 55평
- 법당구조 : 삼존불, 신중, 산신, 영단, 소불
- 음향시설, 방2개, 거실, 공양간 시설은 A급. 몸만 오세요
- 가액 : 보증금 전세 1,000만원 월 60만원 시설 및 집기일체 2,500만원

010-2610-9997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 평수 : 70평, 2층
- 법당, 간사 3동 응접실, 공양간, 엘레베이터, 도시가스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 상담 후 결정

010-3050-5055

포교원 선원
- 위치 : 광주 운암동 위치 최고 큰도로변
- 3층 건물중 2층 32평
- 법당,삼존불,후불,칠성,신중탱화 불단원목, 연등, 영가등
- 인등전기, LED전체리모델링 인터버 냉난방기 2대, 방3개
- 즉시법회가능
- 가액:보증금 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000만원
-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62)513-0391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두 반송 2동
- 평수 : 50평, 4층건물중 4층... 정원이 있음
- 삼존불을 비롯한 완벽한 법당 시설
- 전세: 3,000만원 .. 월 20만원 또는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 답사후 결정

010-2575-9876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감만동
- 평수: 약 90평. 2층 공양간, 3층 법당 4층 스님 친견실
- 전체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삼존불을 비롯한 완벽한 법당 시설, 주방기구 시설 완벽, 몸만 오시면 언제든지 법회 가능
- 전세: 1,000만원, 월세 40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2856-1099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언양시장 상가지역
- 전체 75평, 2층 건물 24평
- 1층 방3개, 거실, 주방, 욕실 2층 법당, 삼존불, 삼성각
- 마당 해수관음, 작은 텃밭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법회 즉시 가능, 시설완비

011-9542-8250

포교원 선원 안내
- 위치 : 서울 잠실, 자연선원 4층 건물 2층 약 45평
- 방2, 화장실2, 선방과 거실
- 가액:보증금 2,000만원 월세 120만원
- 시설비 저렴함 협의사항, 모든 주거시설 완비, 몸만 들어와 운영됨
- ※인수시 모든 주거시설 양도함

010-8714-3922
070-7761-6616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사당동 (이수역 부근)
- 1층 30평, 삼존불(석가모니불, 관음보살, 지장보살), 후불탱화, 신중, 칠성, 산왕, 조왕탱화,
- 인등, 연등 500개정도 시설 완비, 주차장있음
- 가액:보증금 3천만원 월 140만원 시설비 3천 5백만원

010-7173-6690

절터,요양원,전원주택지 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 거창읍 15분, 함양읍 20분거리
- 전,답 1300평, 보전관리지역
- 진입로, 지방도(25m)접한 구획정리된 정남향, 소나무숲속 3면
- 자연경관 수려함, 자연암반우물
- 가액 : 9천7백만원

010-3848-2452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갤러리 색즉시공



통(通)

"궁하면 통 한다고 합니다.
간절하면 통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없이
반복적으로
무르익다 보면

통 한다고 합니다."

그림·글 희상 스님

긍정적인 말(言)이 긍정적인 미래 가져온다

이란보살의
인과이야기



만델라, 감옥에서도 "감사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 늘 말조심

"미안하다"보다는 "감사하다"는 말을…

수필가 이경희 선생님을 만나는데 일행 중 한 사람이 좀 늦었다. 그가 늦어서 죄송하다고 말하자 이경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집보다 시원한 곳에서 한 시간 동안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러시더니 헤어질 때쯤 "아까 그렇게 미안한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고 다시 한 번 일깨워주셨다. 상대방이 미안하지 않게 진심을 담아 말씀하시는 것이 인상 깊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초를 선물로 드렸더니 "남편이 좋아하겠다."고 하시면서 즐거워하셨다. 그분은 외출할 때 얼마 전 돌아가신 부군께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했다.

"여보, 나 갔다 올게요. 젊은 친구들 만나고 올게!"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선생님은 사람을 만나면 웃는 얼굴로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시는 분이며, 여든이 넘은 연세에도 이름을 불러 주는게 좋고 예쁜 것 좋아하시고 마음이 큰 분이다.

한번은 뵈었는데 주황색 스웨터에 주황색 백, 주황색 머플러를 하고 나오셨다. 나이 들어서도 맵시 있게 자신을 다듬을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선생님을 여러 번 뵈면서 사람을 만나면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봐줘야겠구나 하는 것을 배웠다.

내 시가 게재된 책을 드렸더니, "나는 수필은 쓰겠는데 시는 어려워요. 시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위대해. 당신이 부러워."하며 격려해주셨다.

내가 주부클럽에서 붓글씨와 자수, 차 공부를 했다고 했더니, 당신도 주부클럽 창립멤버라고 하시면서 반가워하셨다.

"이렇게 만나 젊은 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서로 에너지를 나누니 좋습니다."

그러시면서 나에게 "얼굴에 아무나 가지지 못하는 맑은 빛이 있다"고 칭찬해주셨다.

인생에서 좋은 분을 만나는 것은 행운이다. 동맥경화만 병이 아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분을 만나 지혜로움을 배우지 못하는 인맥 경화가 더 심각하다.

나는 지금도 감성이 많은 편이어서 눈물이 금방 흘러나온다. 달력 나이, 사회 나이, 감성 나이가 있다는데 근수를 달아보면 나는 아마 감성의 나이 지수가 가장 높을 것이다. 감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한 일 앞에선 더 눈물이 나온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전 남아공화국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27년을 감옥에서 보냈다고 한다. 그분이 감옥에서 풀려나왔을 때는 이미 칠십 살이 넘었을 때였는데, 그가 감옥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그가 초췌하고 늙었으며 몸이 약한 모습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분은 어느 젊은이 못지않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걸어 나왔다. 그를 기다리던 기자가 비법을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나는 감옥에서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고, 강제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만델라는 노벨평화상을 받았고 대통령에도 당선되었다. 인욕과 감사가 빚어낸 결과였다.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살아야 감사한 인생이 된다.

말조심

외출했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 집 근처 전철역에서 군고구마를 사는데 외국인 한 사람이 내 앞에 서 있었다. 다른 사람에 비해 고구마를 조금 사야했기 때문에 군고구마 장수에게 "저부터 싸주면 안돼요?" 하고 물었더니 외국인이, "나, 한국말 잘해요!" 하지 않는가. 그날도 그렇게 공부했다. 외국인이라고 우리 말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큰 잘못이었고, 언제 어느 곳에서든 늘 말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

모든 일은 허공이 증명한다. 티끌처럼 미세한 한 생각도 아뢰야식에 쌓였다가 연을 만나면 거대한 폭발을 한다. 몸으로 한 행동, 입으로 내놓은 말, 마음속의 생각이 내 인생을 만들어간다. 조심해야 한다. 사람은 신구의(身口意) 업으로 사는 것이다.

"정신없다."는 말을 습관처럼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은 자기도 모르게 얼이 빠진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밥을 실컷 먹어놓고는 "배불러 죽겠다."고 한다. 왜 배불러 죽는가? 말을 배설하듯 한다. 말을 뭐 싸듯 해서야 되겠는가.

긍정적인 말이 성공을 부른다. 앞으로는 학교나 회사 입사시험 면접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 옷을 여미는 것, 인사를 잘하는 것을 크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옛 말에도 세상에서 가장 고운 게 사람이고, 사람이 가진 것 중 가장 고운 게 '말(言)'이라는 말이 있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다. 30대 때 우연히 친구 아들이 놀이터에서 놀다 떨어진 것을 보고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상황 설명을 할 때 엄마 친구인 내 이름을 몰라 "말 예쁘게 하는 엄마 친구 있잖아."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말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다시 아이들한테 말하기 전에 내가 솔선수범하면 하면 된다. 맞추어진 시스템보다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훨씬 힘이 있다.

말에 내일의 씨가 들어 있다

말이 씨가 된다. 늘 말하던 것은 마침내 사실대로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말씨라는 것은 말에 씨가 들어있다는 뜻이다. 씨 안에는 '내일'이 살고 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으로 되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인생이 부정적으로 흘러간다.

내 사전엔 '빨리'라는 단어가 없다. '빨리'라는 말 대신 '어서'라는 말을 쓴다. "빨리 가라" 보다는 "어서 가라"는 표현이 상대방에게 편한 느낌을 주지 않는가.

'짜증난다.'는 말도 써본 적이 없다. '짜증난다, 피곤하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에겐 "증짜 난다고? 곤피하다고?" 이렇게 되물어본다. 그 말은 듣기만 해도 부정적인 에너지가 전달된다. 그러니 그 말을 쓰는 사람에게 좋을 리가 없다. 말은 레이저처럼 상대방을 쏘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내가 아는 어느 분은 자식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 때,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꼭 해야 하는 말인가를 열 번 생각하고 한다고 한다. 자식에게 무엇을 해보라고 권할 때는 "네게 선물을 하나 주고 싶어! 네가 고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 그것이 인연에 맡기는 것이다.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 때의 일이다. 동국대 사회교육원에서 자수 작품 전시회를 열어서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전시회장에서 외국인하고 말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물었다.

"아까 외국인하고 무슨 말 했니?"

"저기 두루마기 입은 분 누구냐고 묻던데."

"그래서?"

"엄마라고 했지. 그랬더니 직업이 뭐냐고 물었어."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

"마땅히 대답할 게 없어서 에티켓 티처라고 했어. 잘했지?"

"그래, 잘했네."

아들 눈에도 엄마가 예절을 잘 지키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는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 기뻤다. 그렇게 말한 아들이 신통하게 보였는데, 그 후 '에티켓 티처'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리고 가정법회를 하면서 도반들에게 예절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은 아니었던 것 같다. 말씨가 얌전하다, 말씨가 예쁘다, 말씨가 좋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말에 씨, 내일이 들어있다는 뜻이다. 긍정적인 말이 미래를 좌우한다. 언젠가 '내 말에 내일이 들어있다'는 주제로 글을 한번 써보고 싶을 만큼, 말의 중요성을 실감한다.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몇 년 전 타계하신 성수 스님께서는 일상에서 도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좋은 말로 하루를 시작할 것을 당부하셨다. 매일아침 처음 하는 말을 좋은 이야기로 하라는 것이다. "남의 속을 푹 찌르는 송곳 말, 머리를 내리치는 도끼 말, 남을 때리는 작대기 말은 하지 말라. 말 한마디라도 선하고 푸근하게 하면 복이 찾아올 것이다."고 하신 말을 들었다.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 미운 일이 있어 저녁에 돌아오면 다시 대화를 하더라도 "잘 다녀오라"고 따뜻하게 인사해야 한다. 인생이란 게 사실은 낮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또, 퇴근해오면 그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가정으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여원 원장〉

한마음선원에서 발행하는 어린이 인성교육 월간지〈 마음꽃 〉은
어른들도 함께 보는 어린이 마음공부 놀이터입니다.



월간 〈마음꽃〉 2013년 4월호 '아무나 쓰는 이야기' 中

마음꽃 펴어라,

"가기 싫은 학원을 즐겁게 갈 수는 없을까?"
"보기 싫은 친구를 사랑할 수는 없을까?"

나와 같은 고민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마음꽃〉에서 만나보세요.



* 사찰이나 학교 · 도서관에 기증되는 마음꽃은 구독료를 받지 않습니다. *

정기구독 안내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31)470-3180 / 010-5650-3180

정기 구독료 :
30,000원 (1년 / 12권)

입금 계좌 :
농협 356-0822-8773-23
(예금주 : 권나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살아생전에 우리가 활딱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남): 그리고 제가 지금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기에요, 그동안 공부하던 것 중에서 두서없이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놓고 가는 과정에서 매일매일 무엇이 튀어나올 때, 놓는 게 너무나 귀찮아 갖고요, 어느 날은 '아이, 그러면 한꺼번에 몰락 놔버리지, 왜 이렇게 하나하나 놓느라고 고생을 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몰락 놔라 그러면서 몰락 놓으라는 소리를 계속 외치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사라지는 거 같았습니다, 느낌에요. 그래서 갑자기 사라지는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워서, 없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막 소리치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최근 한 6, 7개월 전에도 놓고 놓고 가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사라지는데, 이거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큰스님: 하하하….

질문자1(남): 그래 가지고 겁이 나서 다시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생각에….

큰스님: 죽어야 본다고 그랬는데 왜 나와요? 하하하…. 아니, 지금 죽으나 요다음에 죽으나 늙어서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진데 말이야. 내 몸뚱이가 공해서 없다는 사실은 알고 계세요?

질문자1(남): 스님께 설법을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큰스님: 알면 뭘 합니까, 실천을 못하는데.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 때문에, 허허허…, 스스로 마음이 걸림 없는 데로 도달을 못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사를 버린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내가 죽든 말든 그냥 버렸는데…. 본래 진리가 버리고 가는 겁니다. 본래 버려져 있는데, 본래 내가 없고 버려져 있는데, 주인공의 시자로서 몸뚱이를 움죽거리면서 다닐 뿐이지 내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살아 있을 때 내가 아님을 알고, 참나가 내가 아닌 나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나'는 정신계고 '가짜나'는 물질계란 말입니다. 이 물질계가 보이지 않으면 또 무효예요. 보이지 않아도 무효고, 정신계가 없고 이 물질계만 있어도 또 무효예요. 보이긴 해도 그것은 안 보이는 거나, 못하는 거나, 중생으로 그냥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살겠다' 하지 말고요, 그대로 정진력을 길러서 부지런히 뛰세요. 하되 함이 없는 것이니까요. 의욕적으로 무슨 일을 내가 어디까지 해야겠다 한다면 그냥 '주인공, 너만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뛰세요. 내가 의욕이 없으면 '의욕이 있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웃으면서 속으로 그럭하고선 의욕 있게 생각하게 만들고, 화가 나면 '화 안 나게 할 수 있는 것도 너 아니야!' 그렇게 하고 가고, 몸이 피곤해서 드러누워서 일어나지지가 않걸랑 '일으키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일어나고요. 아, 그렇게 자유롭게 살지, 그 왜 고달프게 살아요? 내가 쓸모가 없다면 그만 옷을 벗겨 갈 거고 쓸모가 아직 있다 하면 벗기지 않고 좀 더 둘 거고요. 새 옷을 입히듯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 말을 했는데 가늠이 됩니까?

질문자1(남): 예, 스님. 가늠이 됩니다.

큰스님: 하여튼 그 의욕과 그 모두를, 그것도 '욕심이니까 놓는다' 이러지 마시고요. 거기다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생각대로 뛰어보세요.

질문자1(남): 예, 잘 알겠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약 두 달 전에 이사를 갔어요. 그랬는데 스님이 평소에 설법하시기를, 이사를 가면 거기에도 많은 영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서요. 처음 이사 들어갈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고는 잊어먹었어요.

그랬는데 우연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의 어머님도 조금 아프시고요. 저의 집사람도 조금 아프고 저도 좀 시름시름 아픈 거 같고 그랬는데, 저희 집에 일하러 오시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기독교인인데요, 자기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찌트러진 데 가면 무슨 냄새를 맡는대요. 그리고 그런 냄새가 나는 곳에는 사람들이 아프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 말씀이 저희 집 부엌에서 그런 냄새가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교회 다니면서 "악마야, 나가라!" 이렇게 물리치면 된다고 그러면서 절 보고 교회를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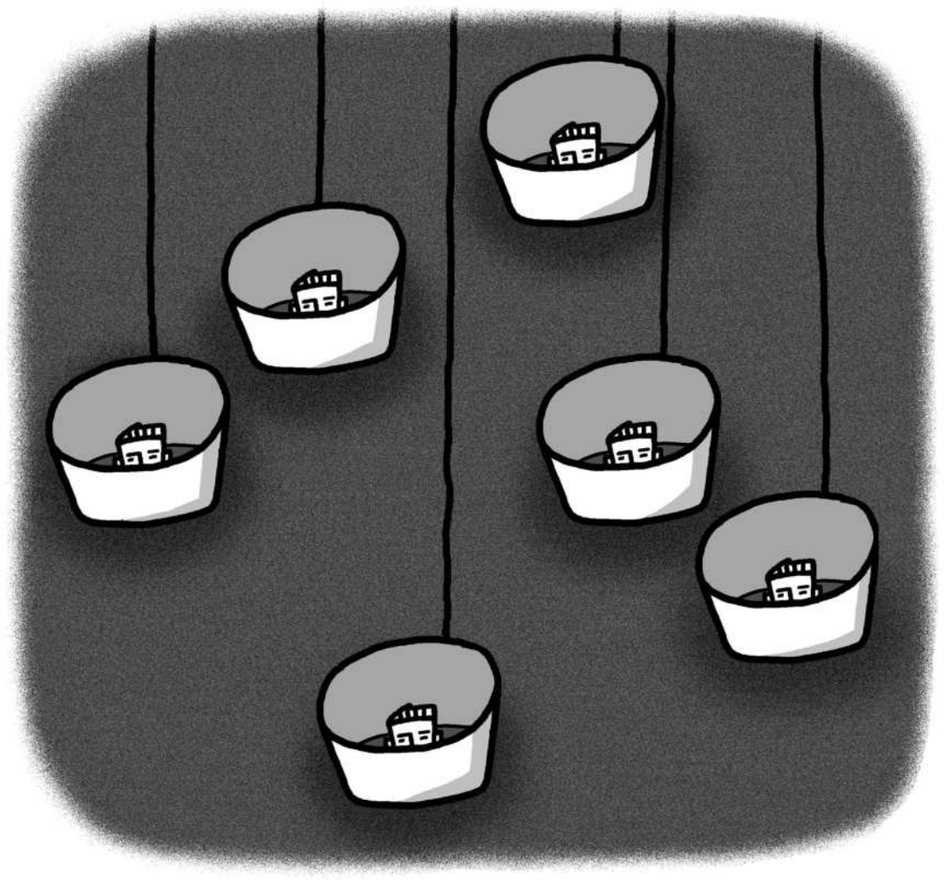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큰스님: 그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것에 해당치가 않습니다. 그거는 도깨비장난과 같다고 부처님도 예수님도 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어떠한 인과로써 그렇다면, 그럴 때에는 항상 자기 주인공에다 놓고 맡기세요. 그 속에 들어가면, 둘 아니게끔 생활을 한다면 그냥 스스로 없어져요. 그건 간단해요, 아주.

질문자1(남): 둘 아니라면 누구랑 둘이 아닌건지….

큰스님: 보이지 않는 데서 하는 일은 모르죠?

질문자1(남): 예.

큰스님: 그러니까 그 인과가 없다면 그렇게 않지 않거든요.

질문자1(남): 네.

큰스님: 그러니까 인과성에 의해서, 전자에 살던 그 사람의 주인공과 자기 주인공이 둘이 아니라는 뜻을 알면 되죠. 못 알아들었어요?

질문자1(남): 예. 조금 알 것도 같고….

큰스님: 이거 봐요. 어머니의 과거에 살던 그 영혼 있죠?

질문자1(남): 네.

큰스님: 또 부인의 과거에 살던 그 영혼 때문에 지금 현재에 정자 난자를 빌려서 자기가 형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과 내 주인공, 셋이 다, 식구가 몽땅 둘이 아닌데,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한다면 스스로 없어져요. 그 좀 요량 있게 하세요. 요량이 지혜예요.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 봐야 길이 막혔구나 하는 걸 안대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어떠한 게 닥치더라도 내가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싱긋이 웃고 놓으란 말입니다.

질문자1(남): 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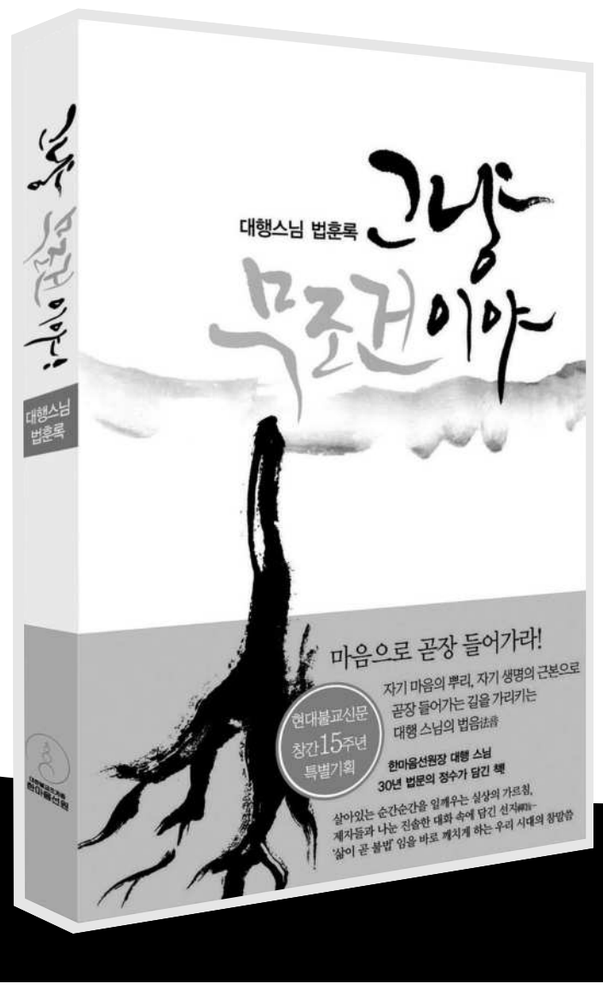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큰스님: 그렇게 해 보세요. 그렇게 해 보고 요다음에 다시 만나요.

질문자1(남): 예, 꼭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하하하…. 그거는 거기다 댈 것도 아니에요. 당신 진짜 보배예요, 그게.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내가 살겠다 말고 정진력 길러 부지런히 뛰세요

☞ 29면에서 계속

질문자2(남): 저는 독일지원에서 왔습니다. 법형제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큰스님: 주지 스님이 갔는데….

질문자2(남): 네, 알고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오늘이 독일지원이 1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기쁘고요, 큰스님께서 머나먼 독일 땅에까지 불법을 전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선원을 나간 지가 지금 11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개원법회 때는 큰스님을 뵙지 못했는데 그 후로 제가 선원에 나가게 돼서 지원 스님들을 모시고 불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번에 서울에 나와서 큰스님 뵙고 이렇게 또 질문도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큰스님: 나도 기뻐요.

질문자2(남): 다름이 아니고, 독일은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거기에 저희 한국 신도와 독일 신도가 있는데, 독일 신도 분들께서 언어 문제나 요런 것 때문에 공부하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한국 신도가 독일 신도 분들과 어떠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만이 앞으로 독일 땅에 불법을 널리 전할 수 있을지 큰스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그게 그렇게 된다면 연기법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독일 신도와 한국 신도가 말이 이어지질 않아서 못 할 때는 바로, 상대방하고 이 주인공은 둘 아니라는 것을 알고 관하시고 하시면 저쪽의 주인공이 이쪽의 주인공으로 합해져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빨리 터득이 됩니다. 모르세요?

질문자2(남): 네, 알겠습니다.

큰스님: 그러면 영혼의 근본이라고 말하죠. 어떤 신도의 따님이 저기 호주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도무지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가슴을 짚으시며) 여기에다가 '너만이 빨리 하게 할 수 있다.' 고 관하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잘, 자기도 깜짝깜짝 놀라리만큼 영어라든가 뭐, 중국어라든가 이런 게 마음으로 딱딱 와서 대학을 다니고, 또 중국으로 다니고 한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뜻은 영혼끼리 아는 겁니다. 말은 보는 사람들끼리 하지만 뜻은 자기 영혼과 그쪽 영혼이 같이 통하기 때문에, 둘 아니게 알기 때문에 그냥 빨리 알아지죠.

그래서 말은 못하더라도 외국 사람들의 마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또 외국 사람도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이쪽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자기 마음의 분신을 이름을 다 지어서 이렇게 해서 내놨죠. "너희들 나가서 둘 아니게 건져라. 개구리다 할지라도 네가 개구리가 돼서 개구리를 건져라." 그러니까 천차만별을 다 장엄하시고, 또 천차만별의 생명들을 다…. 장엄했다는 거는 흡수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일대사의 인연을 다 지으셨으니….' 이런 거는 천체, 과거 미래 현재 또는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모두를 한데 합쳐서, "내가 아님이 하나도 없고, 내 도량 아님이 하나도 없고, 내 아픔 아님이 하나도 없고, 내 모습 아님이 하나도 없고, 내 부모 아님이 하나도 없고, 내 자식 아님이 하나도 없고 내 형제들 아님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니 무엇을 내세워서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부처는 없는 게 부처니라." 하신 겁니다.

'돌 하나라도
내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돼야 모두가
우리와 더불어
같이 살아나가고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미움이 없고 예쁠 것도 없고
나와 더불어 항상
둘아니게 즐기게끔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디오 법회 할 때에 빠지지 말고 들으시고요. 나름대로 생각을 둥글게만 하세요. 모가 나게 하지 마시고요. 그 위력은, 둥근 가운데 그 위력은 쓸 만합니다. 말이 너무 깊어서 그냥 이렇게 '쓸 만합니다' 고만 하는 겁니다. 너무 깊어서 끝이 안 나는 말이거든요.

질문자2(남): 네, 큰스님. 감사합니다. 먼 독일 땅이지만 큰스님이 항상 옆에 하신다는 생각으로 공부에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러면요, 제가요. 찰나찰나 이렇게 생각날 때는 찰나에 하나가 돼 주거든요. 이 세상 사람이 다 한대도 다 그렇게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체제불도 우리들 마음에, 우리들 근본에 직결돼 있다고 그러죠. 그 얘기도 했죠?

질문자2(남): 네.

큰스님: 직결되고, 이 세상 일체 생명들의 근본도 가설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슴을 짚으시며) 이리로 통해서 이리로 가는 길밖엔 없거든요. 자기 통로 외에 다른 통로는 없어요. 근본은 자기한테 있는 거지 딴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각자 모두. 그래서 자성을 깨친다 이런 말이죠.

우리들이 지금 살아나가면서 저 모자라는 일체 만물이 없다면 그걸 보고 배울 수가 없을 텐데, 그렇다면 내가 어찌 깨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돌 하나라도 내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돼야 모두가 우리와 더불어 같이 살아나가고 배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미움이 없고 또 예쁠 것도 없고, 나와 더불어 둘 아니게 항상 즐기게끔 돼 있거든요.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모르는 사람이 '팔자 운명이다' '고(苦)다' 하지만 아는 사람은 팔자다 운명이다 고다, 이런 소리 안 해요. 집착만 없다면 고도 없죠. 집착이 없고 내가 없는데 멸함이 어딨고 도가 어딨습니까? 그대로 내가 움죽거리는 자체, 사는 자체가 바로 도예요. 하여튼 반가워요. 허허허….

질문자2(남): 그렇지 않아도 스님 가르침대로 저희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도 조그만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독일지원의 법당이 좁아서 수영장을 개조하는 불사를 하였는데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아주 좋은 인연들이 나타나서 저희를 돕는 걸 보고 '아, 이게 바로 한마음에서 나오는 일들이로구나. 참, 신묘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간염으로 인해서 고생도 하고 그랬었는데, 스님의 가르침대로 주인공 자리에 놓고 스님 말씀 믿고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이렇게 즐겁고 굉장히 좋은 나날인 것 같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큰스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법당을 꾸미는데 스스로 누가 와서 돌본다고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부처님의 마음이 분신으로 하여금 할 만한 사람이라면 거기에 (손바닥을 서로 붙여 보이시며) 첨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십 리 밖에서라도 쫓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공부를 해서 그 도리를 안다면 더더욱 좋을 거고요.

질문자2(남): 네, 그런 인연들이 저희 선원과 인연이 돼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영국 분도 계시고요, 독일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국 분들도 계시고 그럽니다. 불사라는 게 스님 말씀마따나 공부를 위한 것임을 저희들이 깊이 느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스님: 그래도 독일에서 오신 분이니까 내가 이런 말 하나 하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다 잊어버렸지? 금방 잊어버렸어. 어, 내가 무슨 말을 하려다 잊어버렸나. 꼭 필요한 말인데….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댁에서 지금 뭐라고 그러셨죠?

질문자2(남): 네. 독일 불자들이 그 인연으로 인해서 공부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팔자다 운명이다 고다,
이런 소리 안 해요.
집착만 없다면 고도 없죠.
집착이 없고 내가 없는데
멸함이 어딨고
도가 어딨습니까?
그대로
내가 움죽거리는 자체,
사는 자체가
바로 도예요.

큰스님: 그래 그 말은 잊어버리고요, 허허허…. 아주 필요한 말이 돼서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관하고 생활을 하는 것도요. 우리가…. 아, 이 말이구나. 불교라는 말 있죠? 불교라는 말도 있고 불법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런데 불법은 상대성 원리로서 불법이라고 했고요, 또 불교라는 것은 바로 생명과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금방 아는 게 아니라 길러져 가지고 어른이 돼서 삶을 알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니 가톨릭교니 불교니 하는 이름을 초월한 것이 불교지 그것이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체 생명의 근본을 '불' 이라고 하고 '교(敎)' 는 이 생활입니다. 생활이기 때문에 살면서 배우고 지혜로움을 느끼고, 잘못되고 잘되고를 알게 되고 이렇게 자꾸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따로따로 있는 줄 알아요.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구라는 공기주머니 안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지구 안에서 모두가 불교로 돌아가는 거죠. 어느 한 군데도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또는 종교가 없든 있든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그대로 필연적으로 이 공부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회자: 오늘 질문은 다 했습니다.

큰스님: 두 분밖에 안 계셨습니까? 예. 하여튼 우리가 부처님 자리에 모든 제자들이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모두가 주머니 속의 한자리에 한자리를 하고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리로 이사를 갔다 그래서 한자리가 아니고, 저 외국으로 떠났다 그래서 한자리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전부 동서남북으로 다 헤어졌어도 한 주머니입니다, 한 주머니. 한 주머니인까닭에, 모두 살고 보고 배우기 위해서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지만, 우리가 그 한 주머니 속에서 자유자재권을 얻고 활딱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들 공부하는 게 지금 활딱 벗어나, 살아생전에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죽어서 열반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렇듯이 살아서 벗어날 수 있어야죠. 벗어나기만 해도 안 되고 벗어나고서도 들고 날 때에 자유롭게 들고 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이 우주에도 가고 지구로 다시 찰나에 들고, 또 달로도 가고 찰나에 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내가 옷을 벗고도, 즉 말하자면 용도에 따라서, 또는 그 차원에 따라서 모두 소임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중세계에 모습으로 나와서 그 고통스러운 거를 또 느끼고 알고, 그렇게 하다가 죽지 않도록 열심히 하세요.

(합장하시며) 허허허…. 그럼, 이제 내려갈까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해 드린 거 잘 인식하시겠죠. 바깥으로 끄달리지 않는 것이 바로 업사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위 법문은 1997년 10월 5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hyunbulshop.com

孝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불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칠성상회 현불샵 복합기 할인판매



OKI MB471 DN -흑백
소규모 사무실과 업무 그룹을 위한 4가지 기능을 하나로(복사/인쇄/칼라스캔/팩스)
- 10명이상 동시 사용가능
- 해상도 1200dpi

현대불교신문 구매가 :
435,000원(vat 별도)
- 설치비 3만원 별도(배송시 지불)

토너 별도구매 :68,000원(용량:4,000매)
임대시 : 전화상담/기간24개월



OKI MC561 DN-컬러
소규모 사무실과 업무 그룹을 위한 4가지 기능을 하나로(컬러복사/인쇄/칼라스캔/팩스)
-10명이상 동시 사용가능
-자동양면 인쇄 가능

현대불교신문 구매가 :
595,000원 (vat 별도)
- 설치비 3만원 별도(배송시 지불)

토너 별도구매 :105,000원*4색(용량:5,000매)
임대시 : 전화상담/기간24개월

구매 문의 및 상담 : 칠성상회 02-879-2007 카드결제시 홈페이지 방문: www.7-star.net
입금계좌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불자 세상보기

비리 재벌 사면과 사회정의 추락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재벌 기업인에 대한 사면론을 두고 이러저러한 찬반 논의들이 오가고 있다. 최근 황교안 법무장관이 먼저 운을 띠었고 이제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현재 구속 중인 재벌 기업인의 사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경환 총리는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날 만큼 엄한 법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29일 임환수 국세청장이 연 매출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세정지원방안'을 내놓았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위로는 기업인 사면론을 띠우고 아래로는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라는 당근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과연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는 필자의 식견으로 말할 능력이 없다. 그러나 시회정의의 차원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정의란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이다. 따라서 정의는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가치 덕목이다.

사회정의의 실현을 통해 개인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사회구성원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정의의 실현을 통해 사회 구성원은 공동선을 구현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함께 어깨동무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 사회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는 매우 비관적이다. 한 예로 2010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를 보면 '우리 사회의 공정성' 평가에서 무려 73.6%가 불공정한 편이라고 보고 있고, 공정한 편은 24.1%에 불과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양극화에 따른 불만이 매우 높으며,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황제노역'에 분노를 터트리고 있는 현실이다. 계층의 양극화와 부의 세습 문제를 집중 거론한 '21세기 자본론'을 지은 피케티(T. Piketty)에 대한 열풍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벌 기업가에 대한 사면론이 사회 통합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 사회정의는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교정적 정의로 나눌 수 있다. 사면론은 교정적 정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교정적(矯正的) 정의는 잘못에 대한 대응과 처벌이

재벌사면 사회통합 악영향
법적정의 없으면 사회 흔들려
바른 경제 통해 서민 살리길

공정했느냐에 대한 기준이다. 이것은 법적 정의로 실현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되뇌는 '유전무죄, 무전 유죄'라는 용어는 우리의 법적 정의의 현실을 대변해 주고 있다. 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편법을 쓰게 되고 사회 규범은 흔들리고 분열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가치 분열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재벌 기업가에 대한 사면이 혹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하더라도 일반 서민의 가치 박탈감에서 나오는 폐해는 어떻게 하랴.

그리고 왜 한국 재벌 기업은 인물에 따라 그렇게 좌우되는 허약한 존재인가 되묻고 싶다. 지금의 재벌 기업 총수들은 창업 2세대 또는 3세대의 세습 기업인이다. 그들의 신상 변화에 따라 회사가 흔들리고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면 경제대국이라는 대한민국의 틀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스티브 잡스는 가도 애플은 건재하다. 그만큼 스스로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회사라 하겠다. 회사의 공금을 유용하고 횡령해서 감옥에 갔는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그 사람을 구하고자 하니 우리의 처지가 너무 빈궁스럽게 느껴진다. 많은 논란 속에서도 곧 사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발 일반 서민의 아픔을 알고 바른 경제를 통해 경제 살려주기를 그래도 소망할 뿐이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법인 특성 살린 '法개정' 필요하다

9월30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는 조계종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 17곳 가운데 9곳이 종단에 법인을 등록했다. 사찰보유법인 6곳과 사찰법인 3곳 등 총 9곳이다. 등록하지 않은 법인은 사찰보유법인 3곳을 포함해 8곳이다.

사찰보유법인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선학원과 법보선원은 결국 등록하지 않았다. 또 조계종 어장인 동주 스님이 이사장인 '대한불교조계종 보리동산'도 역시 마찬가지다. 사찰법인 가운데도 능인선원, 세등선원, 옥련선원, 만불회, 숭산국제선원도 미등록 상태다.

특히 사찰보유법인 가운데 조계종 창종의 모태인 선학원과 조계종 정신적 지주이자 현대 한국선불교의 최고 어른으로 꼽히는 송담 스님이 이사장으로 계신 법보선원이 등록하지 않고 탈종과 제적원까지 낸 일은 조계종 입장에선 큰 상처로 남게 됐다.

조계종 측은 이번 법인관리법 등록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법제정 과정서 법인들의 특성을 세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어 법인과 협의기구를 만들어 협의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추후 법인과 협의하면서 각 법인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법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으며 법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입법미비사항도 개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행 법인관리법의 문제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외에도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규모가 큰 법인인 대각회에게는 이행합의서를 통해 등록을 유도 했지만, 나머지 군소 법인에 대한 요구조건에 귀를 기울이는데는 미온적이었다. 종단은 이번 결과를 교훈 삼아 법인법에 대한 재정비는 물론 미등록 상태인 법인들의 목소리에도 적극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12월 31일까지 등록할 나머지 법인들도 동참할 것이다. 현행 법인관리법만 내세워서는 등록을 할 법인이 많지는 않음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불교 '신행 약체'로 남을 건가

불교를 흔히 '수행의 종교'라고 한다. 적지 않는 불자들은 기복과 구원을 위한 신앙이 아닌 수행을 통한 참나를 찾는 과정이 있는 불교가 고등종교라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상을 전혀 그렇지 않다. 계율을 지키는 것도 경전을 공부하는 것도 수행을 하는 것도 다른 종교보다 훨씬 뒤쳐진다. 이는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계율과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종교 신자 중 대부분이 개신교(49.5%)였고, 가톨릭(40.9%)과 불교(21%)가 뒤를 이었다. 경전을 자주 읽는다고 응답한 종교 신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도 개신교(37.8%)였다. 불교 신자 응답률은 7.9%에 그쳤다.

이렇다 보니 자기 종교에 대한 만족도도 낮을 수 밖에 없다. 자신의 신앙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개신교가 65.1%로 가장 높았으며, 가톨릭은 50%, 불교는 34.3%였다. 이는 2011년 불교사회연구소가 진행한 여론조사의 같은 질문에서도 나타났다. 당시 신앙생활의 만족도를 질문에 불자의 38.5%만이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가톨릭은 53.5%, 개신교는 58.1%가 만족함을 나타냈다. 개신교를 제외한 두 종교 신도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사회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종교로 국민들은 불교(30.2%)를 꼽았다는 점이다. 조계종 노동위원회 등 각종 사회 참여 운동으로 국민 여론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간화선 대중화 등 조계종에서 여러 가지 대책은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행과 포교는 불교의 양 날개다. 이번 여론조사는 두 날개가 갈 곳을 잃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한국불교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발언대

국군의 날과 병영문화

올해 잇달은 병영 사고로 홍역을 겪은 대한민국 국군이 변하고 있다. 국군의 날을 맞이해 병영문화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불교계에서도 위문활동을 강화하는 등 혁신에 일조하고 있다. 이에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군문화 혁신에 불자들의 따뜻한 관심 갖자



장성화
군종교구 기획실장

올해로 건군 66주년을 맞는 우리 국군은 근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가 돼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갈등을 극복해 한층 더 성장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은 잇따른 군사고로 우려하고 있다.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지만 대부분의 장병들은 건강하게 생활하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아픔을 계기로 더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군이 되어야 한다. 특히 국민의 군대가 되었으면 한다.

이런 국민의 군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그 분야는 포교, 상담, 봉사 위문 등에 나서고 있다. 군종교구에서는 이미 일선 군승법사에게 상담 등의 활동을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있다. 힘든 상황의 장병들에게는 따듯한 말 한마디가 그 상황을 이겨내는 또 다른 힘이 될 것이다.

이런 따듯한 마음을 불자들도 더욱 모아주길 당부드린다. 특히 초임장교, 신병들을 보살피는데 나서주었으면 한다. 조계종 군종교구에서는 최근 이들을 대상으로 위문 및 격려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자원봉사 등에 동참해 준다면 더욱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군대 내의 불자장병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군종병들을 비롯한 불자 장병들이 전역 후에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신행활동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하다. 또한 노후화된 군법당 보수 등 당면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자들의 십시일반 힘이 필요하다.

국군의 날을 맞이해 우리 국군이, 선조들이 지켜온 역사와 전통을 후손들에게 이어줄 수 있는, 하나로 일치된 강군으로 거듭나기를 강하게 염원해 본다. 또 따듯한 불심으로 인해 지쳐있는 그들이 심적으로도 강군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한다.

몸 · 정신 모두 건강한 군인 되도록 돕자



여정 강건욱 법사
5사단 호국금강사 주지

예순 여섯번째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이은상 시인의 '그대 왜 거기서 있나'를 읊어본다. 조국을 위해 여기 섰다는 이 시는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제5보병사단 열쇠전망대에 자랑스럽게 새겨져 있다. 늘 이곳에 갈 때마다 소중한 조국을 생각하며 군인으로서 또 성직자로서 장병들과 늘 함께 할 것을 다짐하곤 한다.

66번째 생일을 맞는 국군의 날, 이 시는 특별하게 다가온다. 올해 유난히 군에 자식을 보낸 많은 국민들을 마음 졸이게 하고 걱정스럽게 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분신 같은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은 가랑잎 떨어지는 소리에도 예민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제 바뀌고 있다. 병영문화의 획기적 쇄신이라는 큰 변혁의 흐름이 군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필자 역시 군종장교로서 입대한 아들들과 늘 같이 호흡하며 몸과 정신 모두 건강한 진짜사나이로 거듭나게 도울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전역할 날을 한마음으로 기도할 것이다.

오늘도 불철주야 나라를 지키는데 여념없는 우리 국군 용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평화의 전사(戰士)이며 국토수호의 금강역사(金剛力士)인 대한의 건아들이여, 오늘의 이 경험은 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 국가를 지킨다는 게 무엇인가를 느끼고 생각하고 실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대들의 군대 생활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성숙과 성장의 디딤돌이 될 것이며, 미래의 큰 자산으로서 오늘의 군생활은 반드시 그대들 인생을 빛나게 해줄 것이다."

그렇다, 대한민국 군인은 나라를 위해 존재한다. 대한민국 모든 부대의 평안과 무사고를 간절히 기도한다. 대한민국 국군 파이팅!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이 게 정말 가능해?" '자아실현교실' 개강 안내

강호 현인, 기사, 이인께 알립니다.

저 고복자 효사는 지난 15년 전부터 '육임강의록' 등 육임학습서와 '육임래정비법' 등 육임활용서를 많이 써내여러분의 호응을 받아왔고, 이를 '효사활인천역집Ⅰ·Ⅱ·Ⅲ' '효사비결' 등 육임CD 프로그램으로도 개발해 더 큰 애호를 받아오던 중 지난 2012년에 이르러 '미국동양학대학교'(고교미필자 · 대학입학인증/학사/학사단축/석사/석박통합/박사과정)를 설립해 한국, 중국, 독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번 교육당국으로부터 제가 편집인으로 있는 인터넷신문방송 진실보도 만인보 부설로 평생교육원을 인가받아 오는 9월 1일부터 '자아실현교실'을 열고, 아래 내용의 육임술을 단기간에 '진검승부적'으로 인도해 드릴 작정입니다.

학(學)이 아닌 술(術)은 오래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래 육임항목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시면 육임술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3개월에 그 진수를 충분히 인도해드릴 것이며, 여러분은 이를 매우 익숙하게 쓰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십시오!

오셔서, 육임의 진수를 얻어 가십시오!
더도 덜도 아닌 3개월입니다!

수강신청 과목

① 육임귀신술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귀신을 보는곳
나. 작사귀와 병 귀 구별법
다. 해소시킬 개소 및 물건 지적, 또는 해소 가능여부와 수법 효과여부 판단법
라. 불제 등 제거 방법(부적/제례) 실기 시범 등

② 육임사주감정술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육임가정법으로 일생의 대별 즉각 판단술
나. 육임천장법으로 일생 행로 즉각 판단술
다. 육임기궁법으로 일생 초, 중, 말년의 복분과 육친관계 즉각 판단술
라. 육임공망법으로 일생 운명 및 육친 기복여부 즉각 판단술 등

③ 육임풍수 묘지속판단술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이 묘지에 물이 찼는가? 뱀 구덩이인가? 뼈가 뒤집어져 있는가? 없어져 버렸는가? 등
나. 이 묘지가 자손에게 어떤 탈을 부리는가? 무슨 이로움을 주는 가?
다. 이 묘지의 1대, 2대, 3대, 4대, 5대의 생업과 흥망성쇠 및 그 연유는?
라. 이 묘지의 육친은 조, 부, 모 형제자매 누구며, 이장을 해야 하나? 화장을 해야 하나? 그대로 두어야 하나?
마. 육임 명당술 및 후손의 천부적 직업 교시술 등

④ 육임주식매매적기(滴期)술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언제, 어떤 종목의 주식을 얼만 큼 사면 이익이 될 것인가?
나. 지금 팔까? 언제까지 갖고 있을까? 최고로 오르내릴 시기는 언제인가? 등

⑤ 육임부동산매매시기(時期)술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내 집, 내 땅이 언제 팔릴까?
나. 지금 파는 것이 이익인가? 더 갖고 있으면 오를 것인가?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하나? 등

⑥ 경매, 낙찰 성공술 :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이번 경매낙찰에 성공하겠는가? 실패하겠는가?
나. 낙찰 경매에 성공할 금액은 얼마인가?
다. 현장에 누구(띠)를 지정해 보내야 할 것인가? 직접 참여해야 하겠는가? 등

⑦ 위 전체과목 수강은 200만원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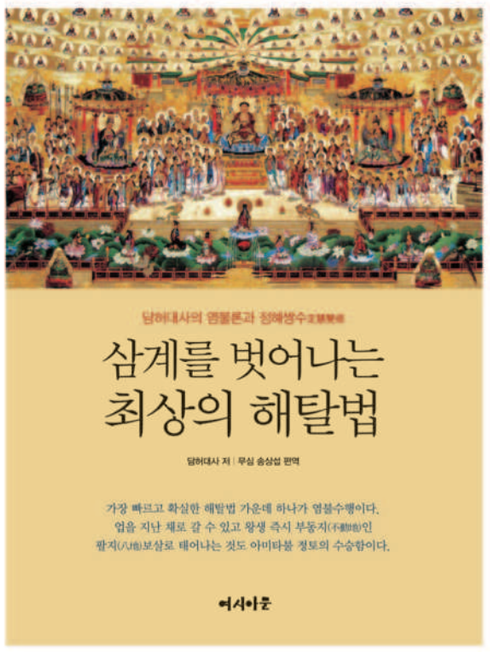
⑧ 신청 절차
검색창 미국동양학대학교 검색 / 첫 창 우측 상단 '평생교육원' 클릭 등록
입금계좌 : 외환은행 630-008387-338 미국동양학대학교
9월 1일 저녁 위 해당과목부터 개강 함.

단, 자기 자신의 방향성에 고민하는 분, 또 치열하게 습득하실 분들만 오십시오.
저와 이내각 박사께서는 위 내용에 한해서만큼은 여러분을 '프로'로
인도해 드릴 것을 자신 있게 약속 드립니다.

강사 : 육임가 고복자 효사
02)738-8680
만인보 부설 평생교육원 '자아실현교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7길 33 미국동양학대학교 1층 강당

이 책을 읽으면 다시는 헤매지 않고 이 법을 실행하면 가볍게 생사를 벗어난다

완벽한 해탈문, 정토왕생법
가장 빠른 해탈법(神通乘)
제일 확실한 해탈법(金剛乘)
너무도 놀라운 해탈법(不思意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탈법(最上乘)



담허대사 저/ 송상섭 편역(여시아문 刊)
신국판 | 무선 | 부분컬러 | 232쪽 | 12,000원

■ **해탈의 돈법(頓法)이 설파된 보배로운 책**

본서는 중국의 고승 담허(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내용이 간략하고 더없이 명확하다. 헤맬 필요가 없는 가장 중요한 해탈법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다.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해탈하게 되어있다.

말만 풍성하고 핵심이 빠진 내용은 읽을 수록 심혼만 산란해지고 해탈로 가는 길을 오히려 방해한다. 이 책은 그런 폐단이 없다. 누구에게나 적극 추천하고 싶은 더없이 보배로운 책이다. 경전이나 선정을 바르게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경건히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내용이다. 그윽이 조심스러운 것은 행여 아상이 높거나 법을 불신하거나 경망한 사람이 이 책을 가볍게 대할까 크게 두렵다. 여래께서 간절히 일러주신 해탈의 돈법(頓法)이 숨김없이 확연히 설파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선정을 닦지 않으면 의식이 자유로워지는 해탈은 문도 없고 길도 없다고 하지 않는가? 또 삼계를 벗어나 불국토로 왕생하는 염불수행 조차도 선정이 기초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심불란의 큰 집중력은 마련되기가 매우 어렵다. 선정이 깨달음이든 극락왕생이든 모든 수행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관쌍수(止觀雙修)는 순일한 집중력을 배양하는 지(止)와 밝은 통찰에 이르는 관(觀)을 고루 닦는다는 말이다. 줄여서 이를 정혜쌍수(定慧雙修)라고도 말한다. 집중 위주의 사마타와 관찰위주의 위빠사나를 함께 닦는 융합적인 수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수행도 만약 너무 한쪽만 쏠려 닦으면 절름발이처럼 원만한 수행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광신도처럼 집중은 잘 하는데 단순하고 지혜가 없거나 지식만 최고로 아는 사람처럼 머리는 있으나 실행력이 빈약하면 지혜와 실천 즉 안팎을 고루 갖춘 큰 수행은 못되는 것이다.

이 책은 선정과 지혜, 사마타와 위빠사나, 염불과 참선을 닦는 모든 수행자들이 읽으면 수행의 일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책으로서 일독을 권한다.

■ **책 속의 한 구절**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

우리의 의식 즉 한 생각 속에는 열 가지 법계(十法界)가 구족하다. 즉 온 우주가 통으로 우리 마음 안에 모두 잠겨 있다. 이른바 십세고금(十世古今, 영원한 시간)이 이 한 생각(우리의 의식)을 여의지 않았으며 티끌과 같은 찰토(刹土, 온 세계)가 털끝만큼도 막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영겁의 시간과 무한한 공간이 우리의 현재 갖고 있는 이 의식 안에 고스란히 다 숨어있다는 말씀이다.

"만약 발심하여 염불하면 일념염불이 일념의 깨달음이고,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인 것이다."

즉 다시 쉽게 해설하면 염불하는 그 생각마다 밝게 깨쳐있는 마음이고 순간순간 외우는 그 마음 안에는 순간순간의 더없이 밝은 깨달음이 아주 신령스럽게 작용한다는 그 말씀이다. (23p)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과거의 조사님들 천태지자(智者)대사, 영명선사, 우익(藕益)대사, 철오(徹悟)선사 등과 같은 분들도 나중엔 정토로 귀의해 염불을 전념하셨다. 또 남에게도 염불을 적극 권하셨다. 왜냐하면 다른 수행을 하면 근기가 잘 맞지 않거나, 혹은 상당(相當)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 때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아주 쉽고 그 병폐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염불하는 사람은 서천에 대한 믿음(信), 가고자 하는 원력(願), 지속적인 염불의 실천(行)만 구족하면, 이미 부처님의 힘을 의지하고 또 자력에 의지하니 절대로 길을 잘못 들어설 염려가 없다.

그러기에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다른 수행은 오직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삼계(생사를 반복하는 우주)내의 견혹(見惑, 잘못 보아 생기는 미혹)과 사혹(思惑, 잘못 생각해서 생기는 미혹)을 완벽할 만큼 남김없이 끊어야만 진리를 증득하여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말이야 상당히 쉽지만 실제로 상당한 공부가 없으면 결과는 성공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34p)

한마디 아미타불은 최상승의 법이며 무량한 법문(法門)을 포괄한다

아미타경은 석가모니부처님이 무문자설(無問自說, 제자들의 질문이 없는데 붓다 스스로 말씀하심)하셨는데, 서방극락세계의 의정 이보장엄(依正二報莊嚴, 즉 자력과 타력이 함께 한 장엄)과 염불하여 극락왕생할 것을 설하셨다.

그의 의미는 법화경과 같다. 왜냐하면 법화경도 사리불존자에게 설하셨으며 제자들의 어떤 질문도 없이 붓다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무문자설(無問自說)이었다.

부처님은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난후 무량의처삼매(無量義處三昧)에 들어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미간의 백호상광(白毫相光)을 내뿜으며 동방 팔천토(東方八千土)를 비추고 갖가지 상서로운 모습을 나타내어 법문을 듣는 대중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심을 갖게 하셨다.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이 대중을 위해 의심을 해결한 후에, 부처님은 곧 삼매에서 편안히 나오셔서 청하여 묻는 질문자가 없으나 사리불존자에게 말씀 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무량하다.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일체성문 벽지불도 전혀 알 수가 없다... 매우 깊은 일찍이 없었던 법을 성취하고..." (52p)

저자 소개

〈염불론〉의 저자 담허대사(1875~1963)



중국 하북 영하(河北 寧河, 현 天津) 출신. 속성은 왕(王)이고 이름은 복정(福庭), 법호(法號)는 융함(隆銜), 자(字)는 담허이다. 17세에 아버지의 명에 따라 혼인을 하여 다섯 명의 자식을 낳았다. 주로 농사일을 하였으며, 아울러 작은 장사도 하면서 생활하였는데, 후에는 다시 의술을 익혔다. 경자사변(庚子事變)을 당하여 영구(營口, 용령성 남부)로 피신하여 한의원을 열었다. 40세에 〈법화경〉을 듣고 즉시 속진을 떠나고자 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민국6년(1917) 43세 되던 때, 천진에 있는 청수원(淸修院)의 청지법사(淸池法師)의 인도로 내수 고명사(高明寺)의 인괴법사(印魁法師)를 의지하여 출가하였다.
이듬해 남쪽으로 내려와 영파(寧波) 관종사(觀宗寺)의 제한대사(諦閑大師)를 의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아울러 제한대사 슬하에서 천태교관(天台敎觀)을 익혔다. 민국10년(1911) 심양(瀋陽) 만수사(萬壽寺) 불학원에서 강석을 열어 법문을 하였다. 1915년에는 제한법사(천태종 43世)의 부촉(咐囑)에 의해 보정(寶靜, 1899~1940), 정권(靜權, 1881~1960) 법사와 더불어 천태종 44세가 되었는데, 이때 금함(金銜)이란 이름을 받았다. 이후 동북지방 각지에서 경전을 강설하며 불법을 널리 폈으며 아울러 많은 도량을 창건했다. 그 중에서 하얼빈의 극락사(極樂寺), 장춘의 반야사(般若寺), 영구의 능엄사(楞嚴寺)가 가장 규모가 크다. 그 후로 청도 담산사(湛山寺)의 주지가 되어 스스로 담산노인(湛山老人)이라 불렀다.
만년에는 홍콩에서 홍법하면서 화남불학원(華南佛學院)을 설립하여 원장을 맡았으며, 또한 중화불교도서관(中華佛敎圖書館)과 불교인경처(佛敎印經處), 천태정사(天台精舍), 홍법강당(弘法講堂), 청산(靑山) 극락사(極樂寺) 등을 설립하였다. 1963년 봄에 (중화불교)도서관에서 〈능엄경〉과 〈금강경〉을 강의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대중들의 염불소리를 들으며 가부좌하고 시적(示寂)했다. 세수 89세였다.
대사가 일찍이 평생의 사적을 구술한 것을 제자인 대광(大光)이 기록하여 〈영진회억록(影塵回憶錄)〉이란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주요저작으로는 〈금강경강의〉, 〈심경의소(心經義疏)〉, 〈심경강의(心經講義)〉, 〈기신론강의(起信論講義)〉, 〈보현행원품수문기(普賢行願品隨聞記)〉, 〈능엄경강의〉 등이 있다. 나중에 제자들이 스승의 법문과 저작을 모은 〈담산대사법회(湛山大師法匯)〉가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12선사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깨침의 노래 禪詩 '완전 이해'



(맨윗줄 왼쪽부터) 효봉 혜암 한암 학명 스님, (둘짯줄) 용성 만해 만공 동산 스님,(셋짯줄) 고암 경허 경봉 만암 스님. 모두가 근현대 한국불교를 풍미했던 선지식들이다.

염화시중의 미소만 미소랴. 한국 근·현대의 불교를 이끌었던 선지식도 중생제도를 위해 한 없는 자비의 웃음을 날렸다. 그러한 웃음을 선가(禪家)에서는 '황금털사자(金毛獅子)의 미소'라고 일컫는다. '황금털사자'란 존재의 모습을 표현하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 뜻이리라. 선사들은 삶 속에서는 물론, 법문에서, 제자 사랑에서 그 미소를 강물처럼 쏟아냈다. 이것이 노래로 우러 나오니 바로 선시(禪詩)가 됐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송준영 지음, 여시아문 펴냄)는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선시를 씨줄로, 이들의 삶과 수행을 날줄로 해서 이들 고승들의 진면목을 다루고 있다. 한국불교 근대 중흥조 경허 스님을 비롯해 용성·학명·만공·한암·만암·만해·효봉·혜암·동산·경봉·고암 스님 등 12명의 걸승이 그 주인공이다.

그동안 이들 선사를 개별적으로 다룬 저서도 많았고, 또는 모두를 한곳에 옮겨놓은 책도 적지 않았다. 이 책이 주목받는 것은 선사들의 자취가 오랜 시간 구전되다보니 더러는 뒤섞이기도 하고, 어느 것이 어느 분의 행장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워진 측면도 있었는데, 이것을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이다. 계간 '시와 세계' 발행인겸 주간으로 있는 지은이가 18세때 선문에 든 이후 동암·탄허·고송·성철·서옹 스님 등 여러 고승들을 만나고, 특히 서옹 선사에게서는 7년간 7차례나 의문나는 점을 물었고, 그 답을 얻어냈기에 가능했다.

선시를 통해 선사들의 생애를 조망하는 것은 참으로 신선한 시도다. 하지만, 선시에 대한 문학적 이해가 없어도 가능할까. 지은이는 이면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반 시와 선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다만 선시는 중생을 눈뜨게 하는 한 방편으로 읊어졌다는 데 차이점을 둔다. 본래면목을 보여주기 위한 선시 고유의 수사학(修辭學)이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이 보여주고자 했던 새로운 상상의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선시여서 크게 어려울 것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선시를 이해하다보면 조사들의 선풍은 물론, 실험적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책에는 12명 선사들의 게송, 법어나 소참법문, 직접 쓴 서간문, 투고글, 대담, 각 선사들의 법맥, 행장, 연보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가능한 문도회에서 만든 어록이나, 학자들의 근거 있는 기록, 인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 중심으로 묶었다고 한다.

경허 스님의 '졸음' '돌사람' '심우송' 등 게송은 제목만 들어도 다정다감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내용을 파고들면 극도로 탈속된 담담한 경지를 보여준다. 만해 스님이 학명 선사의 깨침에 대해 준 지어준 게송(일에 다다르면 고생이 많고/사람을 만나면 이별이 있다/원래 세상이치 이러하니/남아라면 '이것' 마음대로 살라·臨事多難處/逢人足別離/世道固如此/男兒任所之)은 수선납자의 목숨을 빼앗을만큼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본래 선시는 인도의 '가테(gata)'가 중국으로 들어와 '게(偈)'로 음사되었다고 한다. '가테'는 언어를 빌려 언어 밖의 현묘한 이치를 읊은 것. 이 게가 본래 있었던 '송(頌)'과 합쳐져 게송이 된 것이다. 지은이는 선시가 시라는 장르에서 발전된 것이라기 보다는, 선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를 차용한 성격이 짙다고 본다. 그래서 선시를 문학이라는 장르에 가두지 말고, '선문화에 대한 진검, 혹은 지혜의 검'으로 승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선문염송 강의록 〈현대언어로 읽는 선시의 세계〉로 선시연구의 일가를 이뤘다는 평을 들어 온 것이 우연이 아니다. 선시에 대한 해박한 이해며, 고승들의 진면목에 대한 깔끔한 정리가 돋보이는 책이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
(경허에서 고암까지)
송준영 지음 | 양장
575쪽 | 신국판 | 25,000원

경허-만공선사의 법을 이은 천진불 원담스님의 사자후



덕숭산 법향
(원담법어)

수덕사 엮음 | 566쪽 | 188*257 | 30,000원 | 여시아문 펴냄

경허-만공선사의 법을 이은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故 원담(1926~2008) 선사의 1980년 하안거 결제부터 20여년 간의 법어를 모아 엮은 선(禪)법문집. 법상에 오른 노 선승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스님의 어투가 최대한 살려진 활구법문(活句法門)을 접할 수 있다.
평생을 참선수행에 매진해온 선사의 활발한 선지(禪旨)와 고준한 법(法)의 향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선어록이다. 원담선사는 한국불교의 선맥을 중흥시킨 경허, 만공 스님의 선풍을 계승, 평생을 참선과 공부에 매진한 선승이다. 특히 12살의 나이부터 만공 스님을 시봉, 스님의 열반(1946)까지 옆에서 지킨 마지막 법손(法孫)으로서 '천진불(天眞佛)'로 일컬어졌으며, 서예에 능해 당대 최고의 선필(禪筆)을 남긴 고승이다.

"무정설법이 별것 아니니 목전에 역력하여 다만 이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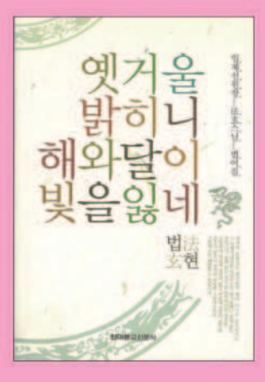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

대원스님 지음 | 양장 | A5 | 347쪽 | 13,000원 | 여시아문 펴냄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지극한 의심을 품어야 합니다. 밥먹고 똥 싸고 잠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의심이 진정으로 성성해져서 매(昧)하지 않으며, 그 의정을 그대로 깊이깊이 끌고 나가면, 내가 의식이 없는 세계에 가서도 그 의심 덩어리 하나가 그대로 성성하게 됩니다. 깊은 잠이 들었을 때에나 깨어 있을 때나 관계없이 순수하게 성성한 지경에 가면 비로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다 되었을 때에는 마지막에 가서 본인이 어떠한 경계든 경계에 부딪혀서 뒤집어 집니다. 번신일전(飜身一轉) 즉 몸을 뒤집어 엎어서 한번 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비로소 '아! 하고 본인이 깨달아서 알 뿐입니다."(본문 중에서)
계룡산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한암대원 선사의 법문과 대담, 전법의 현장에서 밝히는 좌선의 기초방식과 화두 참구법의 핵심을 담은 선(禪)법어집이다.

화두는 분별 없는 마음거울 밝히는 공부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법현 저 | 양장 | 신국판 | 416쪽 | 15,000원 | 여시아문 펴냄

"생사에 대한 분별심은 옛거울(古鏡)의 체와 하나로 같으면서도 그 자체가 허망한 영상으로서 옛거울에는 본래 없는 것이다. 본래 없는 것인 줄 알아버리면 생사를 초월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공포가 없으니 생사의 허망한 그림자로부터 근본적으로 해탈할 수 있다."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의 선(禪) 법어집이다.
생사를 근본적으로 해탈하는 방법은 분별심을 끊어 버려야 가능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말세의 범부라도 허다한 분별심이 본래 없는 옛거울의 지혜로 관조하여 화두를 심두(心頭)에서 끊임없이 일념으로 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생사의 뿌리인 분별심을 근원적으로 끊어버리고 의단을 타파하게 된다고 한다.

전국 서점과 인터넷서점에서 판매 중 • 출판 및 구입 문의 (02)2632-8739 • 도서출판 여시아문과 비움과소통은 자매 출판사입니다